업 무 자 료
WFK 사업운영 2011-05-167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2년간의 동행, 그 아름다운 도전

2010년 귀국단원 우수 최종보고서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FRIENDS KOREA

2년간의 동행, 그 아름다운 도전

2010년 귀국단원 우수 최종보고서

목 차

Contents

Ⅰ. 아시아 지역

1. 네 팔 (배선미, 이곤관 단원) ····· 3
2. 라오스 (김보은, 안현진, 최은영 단원) ····· 21
3. 몽 골 (장미정, 한정화, 황현상 단원) ····· 47
4. 방글라데시 (오세현 단원) ····· 95
5. 베트남 (배우기 단원) ····· 119
6. 스리랑카 (송재욱 단원) ····· 137
7. 인도네시아 (박신혜 단원) ····· 153
8. 태 국 (이수진 단원) ····· 163
9. 파키스탄 (권은영, 박유림 단원) ····· 173
10. 필리핀 (박영실 단원) ····· 205

Ⅱ. 아프리카 지역

1. 르완다 (최선영 단원) ····· 225
2. 모로코 (김소현 단원) ····· 257
3. 세네갈 (김은희 단원) ····· 269
4. 에티오피아 (박유진, 이범석 단원) ····· 275
5. 탄자니아 (박소희, 황진연 단원) ····· 311
6. 튀니지 (방수연 단원) ····· 331

Ⅲ. 중남미 지역

1. 페 루 (이현지 단원) ·····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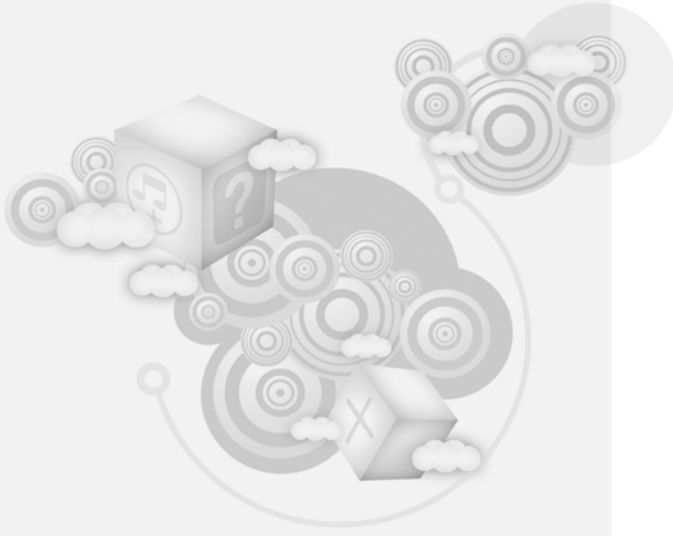
2년간의 동행, 그 아름다운 도전

2010년 귀국단원 우수 최종보고서

아 시 아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



KOICA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2월 17일)

파 견 국	네 팔	성 명	배 선 미
파견기수	39 기	활동기관	Tribhuvan University Institute of Medicine Teaching Hospital
파견분야	방사선	작성일자	2010. 02. 17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단원은 2008년 5월 트리뷰반 티칭병원 방사선과로 파견되었고 현재 2010년 2월 현지 업무는 종결상태에 있으며 단원이 티칭병원 방사선과로 파견된 후의 활동은 티칭병원의 업무파악, 환경개선, 현장근무 그리고 현장지원 사업과 그에 따른 실습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파악은 방사선과로 파견이 된 후 1,2특수촬영실, CT실, 1,2,3일반촬영실, 암실 그리고 접수실에 일주일씩 머물면서 네팔과 한국 병원의 방사선과가 시스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약 한달가량을 보냈다. 그 동안에 네팔 방사선과와 한국의 방사선과의 차이에 대해서 네팔 직원,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환경개선과 현장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파악 당시 직원들과 방사선과에 관련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병원에 적응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시간이 지금까지 네팔 티칭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좋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환경개선은 코이카 측의 활동물품 지원을 통한 방사선과 내 부족한 물품 구비, 방사선과 내원 환자들의 대기실에 필요한 안내 판넬 및 안내판 부착 그리고 단원의 건의가 병원 측에 받아들여져 접수실과 의자 등이 구비되었다. 우선 첫 활동물품 지원을 통해서 카세트를 구입했는데 엑스레이 카세트는 필름을 장착한 상태로 엑스레이를 찍는 방사선과 물품이다. 이 카세트가 부족함으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 시 촬영시간이 지연되고, 환자들의 대기시간 또한 길어지는 불편이 계속되었으나 활동물품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카세트를 구입하므로 카세트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촬영 중에 지체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잘 사용 중에 있다. 그리고 트리뷰반 티칭병원은 대학병원으로 한국의 대학병원과 같이 접수부터 진료까지 까다로운 절차가 많으며 지체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만 환자 대기실에 환자가 기다리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접수실, 그리고 안내인조차 없었다. 방사선과만이라도 조금의 불편을 덜어주고 싶다는 단원의 건의가 잘 받아들여져 의자와 접수창구를 구비했으며 환자들의 방사선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기실에 일반 촬영 시 주의할 점과 탈의, 결과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구비한 대형 판넬을 만들어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판넬의 효과가 좋게 받아들여져 컴퓨터 단층 촬영(CT)에 관한 판넬을 활동물품 지원을 통해 추가 제작하여 대기실의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촬영실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촬영실 문 앞에 붙이는 작업을 했으며 단원이 개인적으로 환자 대기실에 책장을 구입하여 잡지, 동화책, 신문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입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모두 없어져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네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높아지기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듯하다. 이런 활동을 처음 시행할 당시 생소하게 지켜보기만 하였던 병원 직원들조차 지금은 좋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장근무는 약 3개월 동안 각 촬영실, 접수실에서 보조업무를 시작으로 했으며 그 후로는 병원 내 여자직원의 부족으로 유방촬영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다.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습을 오는 트리뷰반 방사선과 학생들에게 유방촬영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돕고 방사선과 의사들과 조영촬영 업무를 하며 유방촬영, 초음파에 관한 세미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다. 유방촬영실에 근무 시 네팔 현지 직원과 학생들에게 아직은 부족한 환자 응대 법을 주로 교육하면서 네팔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 네팔의 관습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하며 이러한 환자 응대 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데에 의의를 둔다.

마지막으로 현장지원 사업과 그에 따른 실습 교육으로 현장사업의 내용은 Radiographic Positioning Doll을 이용한 X-ray및 CT 실습 교육과 가상촬영 실습 기회 제공이었다. 방사선과로 파견되어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촬영 실습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이 따로 없고 일반 교재를 통해 배운 촬영 이론을 바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제대로 기술을 연마하지 않은 학생들이 촬영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위험을 감소하며 나아가 판독에서 생기는 오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Radiographic Positioning Doll이란 팬텀을 구입하였으며 구입 후 방사선과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일반촬영 및 CT 촬영 실습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향후 10년은 팬텀을 이용하여 방사선과에 파견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방사선과 학생들의 방학과 맞물려서 몇 번의 실습으로 끝이 났지만 교수들이 촬영실습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개강 준비 중이며 후임단원이 파견된다면 단원의 현장지원 사업을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 카트만두 방사선 학회 참여



▲그림 2 : 치투완 방사선 학회 참여



▲그림 3 : 유방촬영실 근무



▲그림 4 : 유방촬영실 실습



▲그림 5 : 현장지원 사업 후 수업



▲그림 6 : 현장지원 사업 후 수업



▲그림 7 : 방사선 일반촬영 실습



▲그림 8 : 방사선 CT촬영 실습



▲그림 9 : 네팔 초음파 워크샵 참여



▲그림 10 : 네팔 초음파 워크샵 참여



▲그림 11 : 일반촬영 안내 판넬



▲그림 12 : CT촬영 안내 판넬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네팔 트리뷰반 티칭병원은 대학기관과 병설인 병원기관으로 네팔에서 규모적인 면에서도 가장 크고 우수한 의료진이 많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단원 파견 후 단원의 활동 내용이 좋을수록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크며 대학 기관과 병설인 병원으로 이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단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네팔에서 열리는 워크샵 및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단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며 네팔에서 한국, 코이카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단점으로는 규모가 큰 만큼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단원의 의견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교육적으로나 기계 및 시설 관련으로도 기부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코이카로 파견된 단원 활동이 크게 부각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단원 파견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다른 소규모 병원보다 단원 파견이 시급하지 않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결국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이 장점과 단점을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으며 코이카 단원이 병원기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 충족조건을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면 후임 단원이 더욱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티칭병원에서는 코이카의 단원 파견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후임 단원의 파견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이카 단원으로서 티칭병원이 첫 단원 파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과 의사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단원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단원의 활동과 관계된 모든 일에 협조적이었으며 다음 후임 단원에 대한 호응도 역시 높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네팔 트리뷰반 티칭병원은 2008년 5월 방사선과로 코이카 단원 첫 파견을 통해 코이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코이카로 파견된 단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 후임 파견을 원하고 요청 중에 있으며 병원 측에서는 대학병원 특성상 적절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시니어 단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원이 파견된 후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으로 꼽자면 치료방사선이나 핵의학에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으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치료방사선과 핵의학은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보급되어 치료와 검사 중이지만 아직 네팔에서는 치료방사선이나 핵의학이 도입되기 이전으로 티칭병원 방사선과 직원이나 트리뷰반 방사선과 학생들에게 그 검사와 치료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면서 나중을 위해 전문 지식을 교육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여러 전문적인 자료를 한국에서 준비해 온다면 더욱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4. 파견지역 연구

Tribhuvan University Institute of Medicine Teaching Hospital은 Kathmandu Maharajgunj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병원 기관이다. 티칭 병원의 조직 구성은 All OPD, Academic department(27), Ward, Cardiac center, Emergency, Transplant center, Well furnished 470 bed ward, Extended hospital service, Birthing center, Family planning programme, DOTS programme, De-addiction으로 Administration officer 526명, Nursing 318명, Technician 176명, Doctors 185명의 직원이 있고 직원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실습을 하러 오는 트리뷰반 대학 학생들과 여러 나라에서 파견되는 봉사자들도 일하고 있다. 티칭병원은 네팔의 의료를 주도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순한 진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며 Providing health services, Rehabilitation center, Data collecting, Providing tertiary heath care, Providing general health check up for foreigners workers, Regulation of academic activities from certificate to post graduate medical program, kidney & heart transplant service 의 기능도 하고 있다. 네팔의 다른 병원에 비해 외래와 입원 파트가 다양하고 진단시설이 많은 국립병원으로 사립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며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찾는다. 하지만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며 예약위주로 환자들이 다시 찾아오거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카트만두에서 일박을 더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고 사립병원보다 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Out Patient



Dentistry



Emergency case being discussed



OPD : Doctor-patient talk



Opthalmology Eye Exercise



Opthalmology : Slit lamp observation



Physiotherapy : Cervical traction



ENT : Endoscopy



ENT: Treatment of ear



Physiotherapy : Ultrasound

Investigations



Biochemistry lab



Microbiology



Histopathology Lab



X-Ray



Fluroscopy



Ultrasound equipment



CT Scan control equipment



CT Scan equipment



Gastroendoscopy

Indoor



Doctors on ward round



Nursing Station



Nurses on duty



Infant incubator



CCU Service



Operation Theater



ICU service

Miscellaneous



Central sterilized supply department (CSSD)



Library



TUTH Building



Mamogram equipment

5. 기 타

단원이 파견되어 2년을 보내기가 즐겁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힘든 시간도 꽤 있었던 듯하다. 외국인으로 해외에서 살면서 처음 겪게 되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역시 쉽지만은 않았지만 단원은 네팔 사람들에게 특히 티칭병원 직원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 티칭병원에 코이카로 단원 파견은 처음이었고 한국인 또한 혼자라서 적잖이 어려울 법도 했지만 티칭병원 직원들과 그리고 직원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항상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 네팔에 봉사 단원이라는 신분으로 왔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기보다는 네팔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으로 2년을 잘 보낸 것 같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2월 15일)

파 견 국	네 팔	성 명	이 곤 관
파견기수	39 기	활동기관	Bhaktapur Hospital, Nepal
파견분야	방사선	작성일자	2010. 01. 15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박터풀 병원은 예전에 비해 많은 것이 새로워져 있다. 처음에 파견될 당시에는 내가 이러게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너무나도 오래된 기계, 모든 것이 수 잡업 내가 한번도 접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에서 방사선과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국 의사가 아닌 네팔 의사들과의 만남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영상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역시 처음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는 것은 한국에 전화하여 알아보고 내가 이곳 사람들 보다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힘이 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상 또한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것이 나오고 했었다. 너무나도 오래된 시스템 힘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 시스템 즉 선진화 되었다.

첫째로, 새로운 X-Ray 기계 도입이다. 예전에는 100mA 이동성 촬영 현재는 120Kvp 이상, 500mA 이상, 기계에 도입으로 현재는 일반 촬영은 물론이고 IVP도 할 수 있다. 예전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박터풀 병원에서 실행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계 또한 매뉴얼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오토 방식이다. 보다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정 테이블로 인하여 환자가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던 촬영이 현재는 이동성 테이블로 인하여 환자의 불편함 그리고 근무자의 불편함을 현저히 줄 일수 있다. 흉부 영상 또한 호흡에 대한 Artifact또한 줄어들면서 환자의 진단영역 그리고 오진을 예방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모로 기계에 도입은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일반 촬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둘째로, 자동 현상기(Auto Medical X-ray Film Processor) 의료 기자재 구입이다. 현상액 ⇨ 정착액 ⇨ 수세 ⇨ 건조 등으로 시간이 20~30분 지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자동현상기 의료 기자재를 구입 하였다. 환자의 영상을 2분 만에 의사에게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보다 빠른 시간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기다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자동 현상기를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질 또한 향상 되었다. 그리고 정착액 현상액으로 인한 오염 그리고 악취 등 예방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방사선사들의 예전에 매뉴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줄어들었다.

셋째, X-ray 실의 노후 의료 기자재 교체이다. 박터풀 병원은 네팔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병원이다. 현재 방사선 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카세트(Cassettes), 스크린(screen) 교체함으로써 영상의 질은 현저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물질로 인한 재촬영 또한 줄어들었다. 이

물질로 인한 오진도 막을 수 있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는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환자 재촬영이 줄어들면서 환자와 방사선사 불편함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기계에 대한 관리이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기계를 많이 다루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기계의 고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부족하다. 현지 가게와의 연계 그리고 KOICA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X-ray 기계는 병원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문제점을 말을 하면 현지 엔지리어가 와서 고쳐 준다. 하지만 현상기는 병원이 아닌 KOICA 현장 프로젝트로 구입하였다. 물론 방사선 기계 가게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부품이 한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후임 단원이 한국에 연락하여 지원 받는 것이 편할 것이다. 여기서 KOICA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계에 대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기계의 도입으로 끝이 아닌 기계의 관리 또한 도입 보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박터풀 병원은 예전에는 현재에 있는 곳에 방사선 기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있는 예전의 기계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예전에 기계로는 복부 촬영 척추 촬영 즉 두꺼운 부분은 촬영이 힘들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오래된 기계(10년 이상) 즉 100mA 이동성 방사선 촬영 기계 이였기 때문이다. 또 기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었다. 빔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도 하지 않는 영상 또한 종종 나오기도 했다. 우리 방사선과는 기계가 필요하다. 좋은 기계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영상 즉 환자의 오진 진단영역을 확대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제 촬영 또한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현상 또한 매뉴얼로 즉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하였다. 즉 현상-정착-수세-건조 이러한 순서를 수작업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오늘이 아닌 내일 진단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지인들 역시 현상액, 정착액의 악취, 더러움으로 인하여 매일 손을 씻는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500mA 기계 그리고 자동 현상기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 되었다. 그리고 방사선 부속 기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영상의 이물질 또한 좋아졌다. 그리고 현상실 환경 개선과 방사선실 개선으로 현재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되었다. 즉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 조건은 네팔에서 좋은 것 같다. 단점으로는 기계의 고장에 대한 부분이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기계를 많이 다루지 못 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 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상기는 네팔에서 구입한 한국 기계이다. 문제점이 생기면 처리하기가 힘이 든다.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처리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 KOICA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처리 할 수 있게 단원에게 협력을 해야 한다. 기계가 1년이 지나면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만약 기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부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단원은 제가 방사선사로써는 처음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 편이다. 그 이유는 기계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방사선 기자재에 구입 등 이곳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현재 X-ray 도입 그리고 현상기 도입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새로운 기계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기계 다루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고장에 대해 대처하

는 방법 등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를 대해서 배울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제가 한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도입한 기계이다. 현재도 기계가 고장이 발생하면 먼저 단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저 또한 한국에 전화 및 메일로 기계에 대한 고장 부분을 묻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간다. 물론 현지 가게에 먼저 요청을 한다. 하지만 현지 가게에는 너무 느리고 특히 부속은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한 부분을 위해서도 후임 단원은 기계에 대한 A/S를 가르치고 가게와 연계 관계를 단원이 아니라 현지인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이해도 가르치면 좋겠다. 단지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방사선사이다. 찍는 포지션은 같지만 약간에 미비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사진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단원이 많이 안다는 생각 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곳 사람들은 몇 년간 이렇게 일을 해도 무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실천하여 계속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배우는 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4. 파견지역 연구

Bhaktapur distric hospital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립 병원으로서 벅터풀과 그 주위 시골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 병원이다. 국립 병원이 사립 병원보다 병원비가 더 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주로 오고 있다. 병원은 외래진료와 입원 진료,

이렇게 나누어진다. 외래 진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입원 진료는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고 있고, 당직 의사가 있다. 외래 진료에는 내과, 외과&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피부과가 있고, 입원실은 내과병실, 외과&소아과병실, 산부인과가 있다. 그 외에 응급실과 수술실, 결핵환자를 위한 DOTS center, 접수실, 약국, 중앙공급실, 검사실, 혈액 은행이 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직원수도 많고, 입원 환자, 외래 환자도 많은 편이다. 병원 원장님과 그 외 병원 사무실에서 주로 서류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 여러 의사들과 여러 간호사들, 그리고 청소부와 병원의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직원들 까지 매우 많다. 그리고 박터풀 병원 근처에는 국제 유네스코 지정된 박터풀 더르바르가 위치해 있다. 입장료는 750루프(10$)이다. 박터 풀 전체 지역이 문화재라고 말을 해도 무관하다. 어느 사원과 마찬가지로 네팔 신을 모시는 사당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시버 사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박터풀은 주로 네왈어 민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네팔어 보다는 네왈리어를 많이 듣게 된다. 단원이 의도 하지 않아도 간단한 네왈리어는 배우는 정도이다. 박터풀에 근무를 하게 되면 네왈리 민족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전통 결혼식 그리고 축제 민족의 특성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 우리 한국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축제 속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최고는 축제이다. 한 달에 한번 이상의 축제는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과 네팔의 힘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나도 속해서 느껴 보면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축제는 신년에 시작하는 비스켓 자뜨라(4월 중순), 가이 자트라 이다.

5. 기 타

우선 KOICA에 감사하다. 절대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봉사 보다는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2년 동안 네팔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네팔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생각 할 것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낯선 언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네팔에서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다. 네팔은 제 2의 고향으로 기억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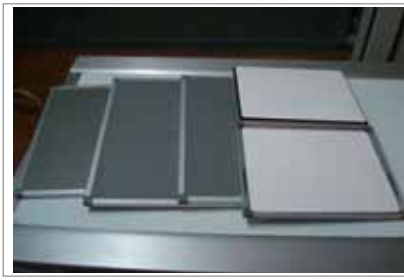


▲그림 : 과거 근무 환경






▲그림 : 현재 근무 환경

▲그림 : 현상기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2010년 06월 18일)

파 견 국	라 오 스	성 명	김 보 은
파 견 일	2008. 08. 19	활동기관	씨엥쿠앙 보건국
파견분야	간 호	작성일자	2010. 06. 18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1. 현지업무 종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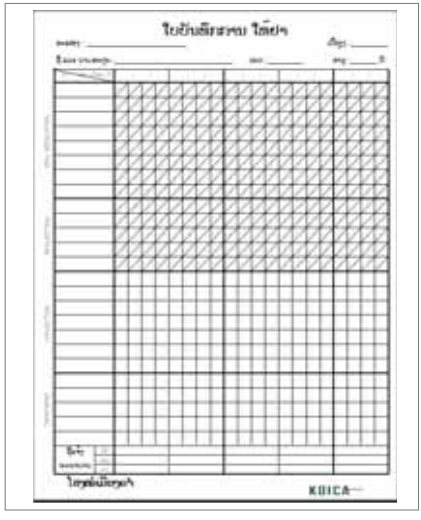
2년간 활동에서 주된 업무는 씨엥쿠앙주 내에 있는 캄 시립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간호기록지 작성' 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육한 것입니다.

교육 대상으로 씨엥쿠앙 주립병원이 아닌 캄 시립병원을 정한 것은 씨엥쿠앙 주립병원은 다른 원조기관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아왔기에 어느 정도 간호부 체계라든지 업무활동에서 질서가 잡혀있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캄 시립병원은 다른 원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병원은 잘 지어져 있지만 간호분야에 있어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른 간호체계및 간호기술에 있어서 주립병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병원측에서도 간호기술 향상에 있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의료차트에 들어가는 활력징후 기록지, 투약기록지를 그리고 간호사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침대이름표, 활력징후 기록지, 간호기록메뉴얼을 만들고 교육준비를 하였습니다.



▲ 활력징후 기록지



▲ 투약기록지



▲ 활력징후 기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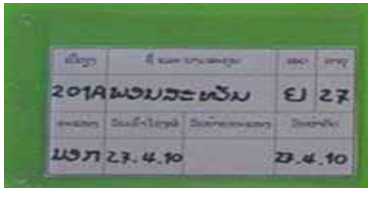
▲ 침대 이름표

2009년 10월 27, 28일 2일 동안 첫번째 교육으로 간호사 25명을 2팀으로 나누어 차트작성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이 끝나고 나서 바로 11월부터 KOICA스티커가 부착이 된 환자차트 60개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록지를 인쇄하여 활력징후 기록지 1000부, 투약기록지 1000부를 사용하도록 주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침대이름표 60개를 구입하여 병원에 비치된 침대에 모두 부착하여 환자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환자차트



▲ 침대 이름표

2번째 교육으로는 차트 작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록 되어지는 활력징후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일 '올바른 활력징후 측정' 이란 주제를 가지고 간호사 교육을 하였습니다.

3번째 교육으로 2010년 2월 4일 차트작성법 재교육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차트작성법 교육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를 하였을 때 활력징후 기록은 대체로 잘 되어있는 반면 투약기록지는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교육을 가졌습니다.

4번째 교육으로 2010년 2월 23일 '올바른 주사투약 방법' 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였습니다. 근육주사, 혈관주사로 나뉘어 무균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무균적인 방법으로 투약하도록 교육을 하였으나 지역병원의 필수의료기기의 부족으로 교육내용이 제대로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어 활동지원물품으로 주사카트 및 드레싱카트를 신청하여 7개의 지역병원에 이를 보급하였고 보급과 동시에 교육도 하였습니다.



▲주사카트 및 드레싱 카트 보급



▲주사카트를 이용하여 주사하고 있는 캄시립병원 간호사

주기적인 교육 스케쥴 외에는 매주 2~4일 캄시립병원을 방문하여 상주하면서 간호사들을 일대일로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1-2. 교육 성과

아직까지도 교육이 진행중이기에 평가 자체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되었던 기록지로는 의료진 간 비언어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였고, 의료적 행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도 부적합하였지만 교체된 기록지는 비언어적행위로도 의료진간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였고, 의료적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연구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초활력징후 교육으로 캄시립병원 간호사 100% 정확하게 혈압, 체온, 맥박, 그리고 호흡을 측정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초활력징후 문제시 어떻게 환자를 간호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사교육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병원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1-3. 문제점 및 대책

1년 남짓한 시간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간호부장, 수간호사를 중점으로 심어주어 교육을 진행하여 봉사단원이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100%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간호보수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을 진행시켜줄 기관 및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후임단원이 파견이 되어 제가 진행하였던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준다면 교육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상부기관인만큼 업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양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높은 활동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문서화가 되어야 하고 따라야하는 절차가 너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많은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협력하여 활동한다면 많은 활동및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기관장, 기관직원들 그리고 현지주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의 세세한것부터 큰것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3-1. 현지생활에 관한 조언

현지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오스인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어주기에 먼저 다가간다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파견시 현지어 구사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현지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현지인들에게 현지어 수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직장동료들과 계속 대화를 가지고자 한다면 현저하게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업무 외에도 영어공부나 타언어습득 (Tonsivit이라는 영어학원이 있어 영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원하면 등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운동 (골프장, 베드민턴장, 탁구장, 운동장이 있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외의 취미활동을 가져서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봉사활동에 관한 조언

보건국에서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지만 보건과 관련되어 모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인맥을 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부만이 다닌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및 폰사완 시내는 라오스의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씨엥쿠앙의 구석구석을 다녀보아야지 진정한 라오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제대로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4. 파견지역 연구

씨엥쿠앙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기후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지만 건기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11-2월)에는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꺼운 점퍼가 필요하고 전기장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을 제외한 날은 20-30도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그래서 에어콘은 필요없고 선풍기만 있어도 생활하기 문제 없습니다.

이런 기후 때문에 다양한 작물이 재배됩니다. 동남아인 까닭에 열대과일을 맛 볼 수 있고 신선한 기후 때문에 열대과일이 아닌 복숭아, 자두, 배 등의 과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악지대라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다양한 버섯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쌀재배 또한 활발한데 한국과 비슷한 맵쌀이 제배되고 찹쌀 종류도 4가지나 됩니다.

목초지가 많아 축산업 또한 활발한데 소를 방목해서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양을 키우는 목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씨엥쿠앙이지만 활발히 발전할 수 없는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입니다. 수도에서 3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도로가 잘 깔려있지 않아 산을 넘어야 하는데 무려 10시간이나 걸립니다. 비행기가 있지만 현지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이용률을 낮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이 투하한 수십만톤의 폭탄들이 여기저기 묻혀있어 이에 따른 피해도 상당합니다. 폭탄제거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여서 농경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많고, 폭탄이 터져 발생하는 인명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5. 기 타

없음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4월 20일)

파 견 국	라 오 스	성 명	안 현 진
파 견 일	2008. 04. 24	활동기관	Malaria Center, Luang Prabang
파견분야	간 호	작성일자	2010. 04. 20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년 동안 간호사 및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용어 및 영어를 가르쳤다.

루앙프라방은 관광이 대부분의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 및 장기, 단기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라오스가 아무리 의료 환경과 시설이 취약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프면 그래도 찾게 되는 게 라오스 현지 병원이고, 말라리아나 댕기열 등의 열병이 나면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센터에도 환자들이 오게 된다. 검사 장비나 의료진의 취약함도 물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된다. 몇 몇의 의사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잘 구사하는 간호사들 및 의료종사자들이 없어서 난황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된다.

특히 의료 문화와 장비, 약 등 거의 많은 것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며, 라오스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의료 교육 자료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으며, 라오스어로 번역된 것들이 많이 부족해 의료 교육에서 영어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더 느끼게 된다. 더구나 의료 교육을 맡은 교수들도 라오스어로 번역된 책 몇 권만을 가지고 수업하고, 그에 따라 수업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학생들 대부분이 세균 감염에 대한 인식조차도 희박한 채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라오스 병원관계자들이나 학생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 그에 따라 영어회화 및 병원 시스템의 영어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몇 차례의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다져야하는 영어를 잘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의 간호사들 및 의료관계자들과 특히 앞으로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루앙프라방 간호학교의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료용어를 가르치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자립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속기관이 말라리아 센터이고 루앙프라방 간호학교에는 파견근무 형식으로 봉사를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말 라오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를 하고 라오스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병원이나 기관에 장비등의 물건을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선진 문화와 기술들을 알리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 밖에 소속기관인 말라리아 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짧은 시간의 교육이었지만, 직원 대부분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할 줄 아는 정도가 되었다. 내가

처음 라오스라는 나라의 이름을 듣고 "싸바이디"와 "컵짜이"를 알았을 때 느꼈던 그 전과는 다른,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한국' 그리고 '한국 봉사자'에 대한 친근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한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루앙프라방 말라리아 센터이다. 기관이름은 말라리아 센터이지만 하는 일은 모기와 기생충에 의한 감염 예방 및 대책연구이다.

말라리아 센터는 Public Health Department 산하 기관으로 총 4개의 부서에 기관장, 부기관장,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작은 기관이다.

기관장과 부기관장은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이며 다른 직원들은 의료관련 학교 출신이거나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부서는 administration(행정)에 직원 5명, epidemic(전염병) & education(교육)에 직원 3명, treatment(치료) & lab(검사)에 임상 병리사 4명, entomology(곤충학)에 4명으로 총 16명이다.

직원 수가 20명(계약직 포함)밖에 되지 않아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같이 식사하고 불평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선임 단원들이 많이 근무하여 한국인에 대해 다른 라오스 사람보다 잘 알고 그만큼 더 배려하고 있다.

기관의 위치는 루앙프라방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고 좋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라리아 센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말라리아 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루앙프라방 주에 속해있는 여러 District 를 다니며 모기 및 기생충을 연구하고 예방사업을 벌이는 곳이어서 정작 루앙프라방 시내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주로 위치를 이야기 할 때에는 주위에 있는 정부기관을 이야기해야지만 아는 사람이 많다.

말라리아 센터의 구조는 2층짜리 본관 1채와 단층짜리 별관1채, 기숙사 1 채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숙사를 개조해 모자보건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1997년에 지어져 건물은 비교적 깨끗하고 본관에는 1층에 사무실 6개, 2층에 사무실 7개가 있다. 모든 부서가 본관에 있으며 기관장과 부 기관장실도 본관 2층에 있다. 별관에는 KOICA 단원들이 쓰고 있는 넓은 사무실 하나와 루앙프라방 어느 기관이든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미팅 룸,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주방이 한 개가 있다.

활동은 루앙프라방 간호학교에서 했다. 루앙프라방 간호학교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 6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약 3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각 병원의 간호사, 의료행정직 등이 되며 공부를 더 하면 의사도 될 수 있다.

건물은 일본 JICA의 원조를 받아 지어졌으며, 최근까지 JICA 단원이 파견되었으나 직접적인 봉사활동보다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시설이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있고, 외국의 원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의 분위기는 학구열이 뜨겁기보다 각종 행사가 많아 자주 쉬고 일정이 자주 바뀌기도 한다. 청강을 몇 번 했는데

교과서가 없어서 노트필기로 책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고, 2시간 수업인데 수업 시간을 충실히 보내지 않고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며 배울 내용이 많아 벅차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에 놀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가는 게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들었다.

나는 의료용어를 가르쳤지만, 다른 단원이 파견되어 교육부분에서도 먼저 교수들부터 보수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첫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처음 라오어를 배울 때부터 기본을 열심히 익히라는 것이다. 대부분 국내훈련소에서부터 현지훈련을 할 때 배운 라오어 실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단어 및 말하는 훈련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지만 역시나 점차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면 언어훈련 부분은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처음 실력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초기부터 확실하게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다. 어디에서나 인간관계는 중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꼽힐 것이다. 기본적인 것 이외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봉사하러 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주고자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라오스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워낙 원조를 많이 받고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경계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저 친구를 대하듯 편하게 다가가며 정말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원들 간의 인간관계와 현지의 한인 사회에서의 행동들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될 수도 있는 한인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 역시 한국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는 시간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의 열심히 살고자했던 마음과는 달리 이 곳 라오스의 더위에 눌리고, 2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게을러지게 되는 게 사실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지 않으면 생활이 많이 흐트러지게 될 수 있다. 시간표를 만들거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4. 파견지역 연구

라오스의 여러 주 가운데 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루앙프라방 주는 라오스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메콩강과 교통의 정맥이라 할 수 있는 13번 국도가 통과하는 곳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곳이다. 이곳에서 2년을 살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첫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므앙(도시)루앙프라방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의 고대 도시로 많은 사원과 문화재가 보전되어 있는 곳이다. 오랜 불교왕국의 전통이 있는데다 현재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탄압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덕에 라오스는 지금도 전체 인구의 96%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루앙프라방은 고대 불교 왕국의 수도답게 사원의 집적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그 중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왓씨엥통 거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절 옆에 또 절'이라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이다. 그렇다 보니 그 때문에 뜻하지 않게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딱밧(우리 말로 탁발) 때문이다.

라오스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하는 소승불교적 특성상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공양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고 믿고 그것을 생활화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벽시간에 부처님께 공양할 음식들을 가지고 길가에 나와 승려들의 딱밧 행렬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도시의 그 때문에 승려들의 숫자도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많은 승려들이 비슷한 시각에 딱밧을 나오다 보니 그 모습이 경탄을 자아내게 하기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새벽녘, 주황 가사 차림의 승려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지어 가고 신도들은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함과 규모미를 느끼게 해준다. 거기에 딱밧을 통해 공양받은 음식을 가난한 아이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둘째, 도시에서 벗어난 루앙프라방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2008년 뉴욕타임즈에 '세계의 꼭 가봐야 할 여행지'라는 여행지 소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된 곳이 바로 라오스였다. 20세기 말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정부도 폐쇄적인 모습

을 띠던 라오스가 개혁의 바람을 타고 경제, 문화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라오스에는 해외 자본과 함께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과거 라오스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의 사람들을 비롯한 유럽인들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손대지 않은 자연에 대한 향수 혹은 신비 때문에 이곳을 찾는 듯하다. 하지만 재밌게도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에서는 라오스로의 여행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에도 여행에 관해 다룬 각종 매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라오스가 소개 되었는데, 초반에는 비엔티엔, 방비엥, 루앙프라방과 같은 유명 관광지만 거론되더니 언젠가는 무앙응오이느아라는 곳이 다뤄진 적이 있었다. 이곳은 루앙프라방 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하천을 타고 한 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사실 그곳에는 '자연 그대로'라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아무 것도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려고 그곳으로 온다. 너무 개발 지상주의에 빠져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스스로에게 들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이곳은 개발 원조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진 곳이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이 아닌 이 원조금을 통해서도 빈부의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하다.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이 나라의 환율은 날이면 날마다 오른다. 그리도 수도 비엔티엔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고급차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가나 주거비 또한 산업, 경제 전반

에 있어 앞서 있는 옆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더 비싼 편이다. 라오스의 도시들만을 본다면 이곳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얘기를 하자면 라오스 체제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세계 제일의 피원조국 라오스의 진면목은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다. 하지만 차를 타고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어렵지 않게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 한 시간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아니 라오스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13번 국도를 벗어나 있는 어느 마을에 가 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라오스의 진면목, 즉 수없이 존재한다는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곳곳에 펼쳐진다. 하지만 그들은 원조의 혜택을 그다지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그곳은 아주 작은 도움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들이 루앙프라방 주 안에도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 인도적 원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기 타

봉사 기간을 마치고 나니 2년이란 시간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났네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소장님, 부소장님, 행정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라 오 스	성 명	최 은 영
파 견 일	2008. 08. 19	활동기관	비엔티안시교육청
파견분야	컴 퓨 터	작성일자	2010. 07. 18

Ⅰ. 업무사항

1. 봉사활동 최종보고서

본 단원의 담당 업무는 비엔티안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Windows XP, Windows Office 2007(Word, Excel, PowerPoint), Windows MovieMaker(동영상 제작), PhotoScape(이미지 편집), 스캐너 사용방법 교육 하였다. 지금까지 5회의 교육이 이루어 졌고, 1회 교육기간은 7~8주(월~금요일/1일 2시간)로, 총 105명을 교육하였다.

컴퓨터 교육은 오전(09:00~11:00)과 오후(13:30~15:30) 2개의 반으로 이루어진다. 오전 기초반은 컴퓨터 기초와 Windows XP, Windows Office Word 2007, PhotoScape, 스캐너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향후 업무상 필요한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오후에는 컴퓨터 기초를 습득하고, Windows Office Word를 사용해 본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Windows XP, Windows

Office 2007(Excel, PowerPoint), Windows MovieMaker, PhotoScape, 스캐너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 대부분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쓰일 수 있는 시험성적 테이블을 만들고, 분석하고, 챠트화 시킬 있는 능력배양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곳 라오스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프리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흥미유발을 위해 PhotoScape로 이미지를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Windows Movie Maker를 교육하여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하는 것을 교육하였다.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적어도 2주일 전)에는 Mr.짠씨(컴퓨터교육 대상자 모집 및 행정담당) 선생님께 교육 기간과 교육 내용, 교육 시간을 A4 용지에 간략하게 만들어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토대로 Mr.짠씨 선생님께서 공문을 만들어 공지하게 된다. 또한 수업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교육생들의 현 컴퓨터 사용 수준과 향후 수업내용 준비를 위해 참고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육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컴퓨터실)이 있는데, 늦어도 수료식 1주전까지는 수료증을 제작하여 KOICA 사무소장님의 사인과 KOICA 사무소의 도장을 받아 Mr.짠씨 선생님께 드려야 하고, 수료식이 있기 전까지 교육 중 2번의 시험을 치른 성적표와 수료자 명단을 만들어 Mr.짠씨 선생님께 드려야 한다.

2. 2년간 봉사활동 총 평가

본 단원은 비엔티안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때로는 경찰과 군인, 친.인척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Windows XP, Windows Office 2007(Word, Excel, PowerPoint), Windows MovieMaker(동영상 제작), PhotoScape(이미지 편집), 스

캐너 사용방법 교육을 하였다. 교육은 기초반과 고급반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초반의 교육생들은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 조차도 모르고,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기에 힘이 들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요구하는 대로 척척 해내는 것을 볼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나 사무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없거나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후되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않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또한 몇몇 교육생들은 더 향상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시교육청 컴퓨터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노후로 원하는 교육을 개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3.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본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비엔티안 시교육청의 컴퓨터실은 KOICA 선임단원의 프로젝트로 20대의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까지 많은 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인지 기관의 협조와 기관 분들과의 관계도 수월한 편이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단원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적절하게 협조해주고, 평상시에도 자주 찾아와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주신다.

지난 2010년 2월에 시교육청장(Xomphou KEOPANYA)이 새로이 바뀌면서 시교육청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새로운 부서장이 영입되기도 하고, 기존 기관 분들의 보직과 사무실의 이동이 있었다. 또한 새로 부임된 시교육청장님께서 수료식에 참석하셔서 참석한 부서장

과 교육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을 볼 때, 이전보다는 컴퓨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본 단원의 Co-worker인 바위선생님은 컴퓨터실 바로 옆에서 영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시다. 바위선생님은 친근감과 활달한 성격을 가지셨고, 기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 단원에 대해 궁금해 하면 주저 없이 한국에서 왔고, KOICA의 봉사자로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소개를 해주시고, 인사를 시켜주신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 수료식에 앞서 수료식과 수료증을 준비하는 데에도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주니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

4. 현지업무 종결 결과

본 단원의 담당 업무는 비엔티안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Windows XP, Windows Office 2007(Word, Excel, PowerPoint), Windows MovieMaker(동영상 제작), PhotoScape(이미지 편집), 스캐너 사용방법을 교육하였다. 지금까지 총5회의 교육이 이루어 졌고, 1회 교육기간은 7~8주(월~금요일/1일 2시간)로, 105명을 교육하였다.

교육차수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생수		비고
		오전(09:00~11:00)	오후(13:30~15:30)	오전	오후	
1	2009.03.02~2009.04.24	*컴퓨터 기초 *Windows XP *Windows Office Word 2007 *PhotoScape (이미지 편집) *스캐너 사용방법	*Windows XP *Windows Office Excel 2007 *Windows Office PowerPoint 2007 *MovieMaker (동영상 제작) *PhotoScape (이미지 편집) *스캐너 사용방법	11	7	
2	2009.06.08~2009.07.31			11	9	
3	2009.10.12~2009.11.27			11	7	
4	2010.01.18~2010.03.05			14	13	
5	2010.05.10~2010.06.30			15	7	

다음은 비엔티안시교육청 컴퓨터실과 수료식에 참석한 새로 부임하신 시교육청장(Xomphou KEOPANYA)님과 교육부 담당 부서장 그리고 수업시간 교육생들과 발표시험의 모습이다.













Ⅱ. 일반사항

1. 2년간의 현지생활 평가

라오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설레임과 훅 끼치는 더위를 잊은 지 오래인 것 같다. 그만큼 2년 동안의 기간이 나를 이곳에 물들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내가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과 동화되어 생활하기를 바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지인들이 나를 외국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헷갈려 하는 모습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만큼 내가 변한 것이리라. 2년 동안 열심히 타고다닌 자전거 덕택에 건강한 다리와 시커먼 얼굴, 팔, 다리를 볼 때면 나름 부지런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여기저기서 현지인 친구들이 불러줄 때면 내가 베푼 것보다도 그들이 내게 베풀어 주는 마음에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2. 봉사활동을 마치는 소감

본 단원은 비엔티안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때로는 경찰과 군인, 친.인척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Windows XP, Windows Office 2007(Word, Excel, PowerPoint), Windows MovieMaker(동영상 제작), PhotoScape(이미지 편집), 스캐너 사용방법 교육을 하였다. 교육은 기초반과 고급반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초반의 교육생들은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 조차도 모르고,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마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손가락으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하고, 왼쪽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도 몰라 나보다도 덩치가 크신 분들이 손바닥의 땀을 닦아가며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곤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기에 힘이 들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요구하는 대로 척척 해내는 것을 볼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교육 중 언어 소통의 벽에 부딪칠 때는 나 자신에게 화도 나고, 내가 진행하고 싶은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면서 수업을 마치면 그 후회란.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웃는 얼굴로 교실에 들어오시는 교육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처음 임지에 파견되었을 때는 나도 모를 자신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내가 조금 더 언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였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교육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그리고 나보다도 덩치가 크신 분들이 손바닥의 땀을 닦아가며 열심히 마우스를 움직이고, 자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열심히 타이핑을 하던 교육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1월 03일)

파 견 국	몽 골	성 명	장 미 정
파 견 일	2008. 03. 13	활동기관	허브드대학교
파견분야	한국어교육	작성일자	2009.09~2009.12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현지업무 종결을 앞두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 결과를 업무면과 개인면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업 무	단 원
1. 허브드 첫 한국어 교사 2007년에 신설된 허브드 대학교의 컴퓨터 한국어 학과는 컴퓨터 교수 7명으로 시작,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08년에 단원의 파견과 함께 한국어 학과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 2. 교사 채용, 교육과정 정립 단원은 매해 몽골인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과목 커리큘럼을 정립하고 학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이행하였다. 3. 30주년 기념 행사 파견 기관의 2009~2010학기는 30주년으로 2009년 9월 기념을 했고 한국어 학과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로 구성한 부채춤을 공연	1. 현지어 파견 후 6개월 동안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업무에 관련한 대화가 불가능 했다. 선임이 없었던 최초 파견지였기 때문에 집계약과 업무 조정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직군에 필요한 몽골어 습득을 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여러 가지 필요한 몽골어가 가능하기 시작했다. 몽골전통 문자 수업을 받으며 현지인과 더 어울리게 되었고 언어습득이 빨라졌다. 1년 정도 되었을 때 업무와 생활 속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고 파견국내휴가 때 몽골 지역을 방문하면서 더욱 현지어가 능숙해졌다. 2. 한국어 교사로서의 능력 개발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업 무	단 원

에 선보여 학교 선생님들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크게 가졌었다.

4. 서부 최초 한국어 말하기 대회

허브드 대학교는 몽골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이며 주변 5개의 지역에서 모여 수학하고 있다. 서부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학교에서 본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 5월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대회를 개최하였다. 정식 등록된 대회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 사기를 진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기 대회로 발전을 위해 현지인 교사와 계속해서 구상 중이다.



5. 문화교육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음식을 만들었고 활동지원물품으로 받은 사물놀이와 한복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언어 수업과는 또 다른 한국어 교육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



직후 바로 파견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로서의 교육 방법론이나 교육론이 몽골 내에서 많이 습득이 되었다. 비단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국한될 지도 모르지만 국내에서 반 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본 때를 비교하면 크게 도움이 되었다. 흡드에서 세 번의 학기를 지냈지만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했던 단원의 특수성이 더욱 단원의 한국어 교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

가. 1학기 수업 시간표

1학년
2학년

월	화	수	목	금
	회화1		품사론	회화3
품사론				
		회화2		회화
		음성학		회화
번역	회화1	회화2	음성학	
			회화3	

〈표 1 08~09' 1학기〉

학 생 수 : 1학년 29명(남 8명, 여 21명)
2학년 32명(남 10명, 여 22명)
수업시수 : 1학기 정규수업 416시간,
1학년 특별보충수업 10시간
총 426시간

나. 2학기 수업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2학년회화			2학년회화
1학년회화			2학년회화	2학년회화
1학년회화		2학년회화	2학년회화	
2학년회화		2학년회화		1학년회화
2학년회화	2학년회화			1학년회화

학 생 수 : 1학년 27명(남1, 여1 휴학)
2학년 30명(여1 휴학, 여1 재적)
수업시수 : 2학기 정규수업 448시간, 특별활동 10시간 총 548시간

업 무	단 원

6. 기타 번외 업무

파견 기관 외 홉드 지역 빈곤 가정을 위한 식재료와 의류지원, 의료봉사 등을 행했다.

〈처음으로 만난 빈곤가정〉



〈안과병원에 가기 위해 수도에 가는 버스에 탄 바타르벡과 아버지〉



다. 09~10' 1학기

월	화	수	목	금
		3학년회화		1학년회화
	3학년회화	3학년회화		1학년회화
2학년회화	3학년회화	특별반	2학년회화	
2학년회화	2학년회화			

학 생 수 : 1학년 17명
2학년 24명(남1 휴학, 여1 전출)
3학년 27명(여1 휴학, 여1 전출)
수업시수 : 352시간

3. 개인 성과

결과적으로 수상한 것은 없지만 몽골 내에서 활동하며 이러저러한 것들을 적은 시와 소설 소수편이 있다. 파견 되면서 꼭 한 번은 완성하고 싶었던 이곳에서의 이야기를 완성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개인적으로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4. 기타

여러 국적과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사는 몽골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지내면서 지난 한국에서의 삶보다 더 유려하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었다. 먹고 사는 것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게 만드는 일까지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변화들이 있었다.



허브드 대학교에 파견 되고 학교 측에서 요청한 바는 한국어 수업 진행이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는 시작하고 있는 한국어 학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학과 존속에 그 목적이 있었다.

4년 동안의 전과목 교육 과정을 완성하고 현지인 교사를 채용할 때마다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지인 교사가 계약직으로 같은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계약직의 한계로 현지인 교사도 근무의 보람과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컴퓨터 교사들 사이에서 교류하지 못하고 겉돌아 학교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다. 코이카 단원으로서 본교에서 한국어학과를 전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컴퓨터 한국어 학과장에게 한국어 학과 전임 교수를 임용하는 것에 대한 제의를 했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직해 올 전임 교수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의 미흡으로 장기 지속될 문제로 보인다.

또한 허브드 대학교는 2018년까지 캠퍼스 구성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 그에 맞춰 총장의 발전 목표에 컴퓨터 한국어 학과의 성장이 들어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컴퓨터 한국어 학과는 기존 수학과에서 분과(2009년) 컴퓨터학과로 독립해 컴퓨터-한국어 학과를 더불어 컴퓨터-영어 학과에 대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장하고 학교가 성장하게 되면 한국어 학과에 대한 지속과 전담 교수 채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이카에서 일반단원으로 한국어 교사를 보내 아직 미흡한 현 학과에 뼈대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현지인 교사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교사로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사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커리큘럼도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허브드 대학 뿐만 아니라 몽골 전역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육과정의 정비인데, 교육과정과 교육교재개발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몽골에서는 한국 대학에서 운영되는 언어교육원에서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되거나 회화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언어 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교재가 너무 많다. 그 중에 번역과 단어집은 코이카 단원이 현지인과의 협력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교재 중의 하나이다. 단원의 파견이 아직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장 점	단 점
1. 2018년까지 캠퍼스 구성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 2. 서부 최대의 대학으로 허브드를 중심으로 바양울기, 고비알타이, 옵스, 자브항 지역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 3. 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컴퓨터 한국어 이중전공으로 직업 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다.	1. 현재 컴퓨터 한국어 학과의 입학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7~2008년도 30명 2008~2009년도 29명 2009~2010년도 17명 2. 서부 최대의 대학이지만 수도와의 접근이 어렵다. 버스로 40여 시간 / 비행기로 3시간 3. 이중전공이라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컴퓨터의 능력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컴퓨터를 모두 잘하는 학생이 드물다. 4. 홉드 현지에서 한국어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다.

- 소속 기관의 동료 교사들과 단원의 바람

향후 필요한 지원체계 및 협력관계	1. 전임 교수가 없고 1년 계약직과 시간강사 두 명의 현지인 교사가 있다. 단원 파견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국어 수업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한국어 학과에 전임 교수가 생길 때까지 단원 파견이 필요하다. 2. 단원 파견에 있어 후임 파견이 바로 이루어져 바로 인수인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몽골 울란바타르에 있는 한국어 학과나 한국 현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울란바타르에 집중되고 있는 문화행사에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소외된 곳에 도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단원 파견도 중요하지만 단원만 보내는 것으로 활동의 전부가 이뤄지기는 힘이 부친다.
단원 파견 호응도	1. 허브드 대학교에 현재 한국어 교육 분야 본인과 컴퓨터 교육 분야 유상원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과장은 한국어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단원과 현지인 교사에게 모두 맡기고 있고,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유상원 단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2. 지속적으로 단원이 파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동료 현지인 교사들은 선진 지식을 교육받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3. 단원 파견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여러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 늘 알고 싶어 하신다. 4.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현지인 교사들이 단원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하며 한국의 이모저모에 대해 듣기를 좋아한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2010년 1차 파견 단원 중에 허브드 대학교에 한국어 교육으로 오는 단원이 없다. 2차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단원이 귀국 후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단원이 파견되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교사도 채용해야 하고 4학년까지 전 학년이 채워지는 만큼 새로 시작하는 실습이라던지 여러 교육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단원이 필요하다.

후임은 그런 면에서 입시나 채용의 경험이 있으면 좋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좋다. 회화 책은 서강대와 서울대 교재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별로 구성된 교재를 챙겨오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된다. 현재 인수할 책 목록은 서강대교재 전권, 서울대교재1~4, 한국어 학습 소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한국어 사전, 한몽사전, 발음론, 국어의 규범, 한국문학통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학습 자료는 한국 전통 문화 사진과 동영상, 한국 현지에서 쓰는 한국말이 없다. 각종 전단지와 광고, 방송매체 등 실제로 한국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면 수도와 한국에 나가보지 못하고 있는 이곳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책과 교육이 될 것이다.

봉사자로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와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한국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보다 희노애락을 함께 가르치고 인생의 목표를 잡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학생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보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바란다.

1학년	2학년	3학년
1. 새흥자르갈 : 수줍음을 많이 타고 조용하다. 한국어 쓰기가 아직 서툴고 읽기, 말하기, 듣기도 부족하다. 2. 이칭허를러 :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남학생인데 게으른 게 흠이다. 단어 외우기도 안하고 공책에 정리하는 것도 게을리 한다. 3. 아이솔로 : 카자흐스탄족이라 몽골어가 서툴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어도 미흡하다. 카자흐스탄족은 보통 언어 습득이 좋은데 학생들은 두 부류가 있다. 처음부터 출중히 잘하거나, 부지런히 해서 잘 하게 되는 아이들. 이 친구는 후자	1. 아마르사나 : 수업을 많이 빠진다. 64번 중에 10%도 출석률이 안 된다. 하지만 1학년 때는 한국어를 가장 잘했던 아이. 지금도 그때의 실력이 남아 있어 언제라도 다시 공부만 시작하면 잘 할 수 있다. 2. 아이벡 : 카자흐스탄족으로 한국어 습득 능력은 떨어진다. 최근들어 말하기에 열심히인데 이유는 모르겠고 늘 긍정적이라 예쁜아이 3. 아르자나 : 러시아 토와라는 지역에서 온 유학생으로 한국어 습득 능력은 좋다. 러시아어, 토와어, 몽골어를 모두 할 줄 알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아이	1. 알탕통갈락 : 친구들 말로는 이유없이 화를 잘 낸다고 하는데 수업시간에는 그런 모습은 없다. 하지만 성격이 화통한 것 같기는 하다. 한국어도 성격대로 시원시원하게 열심히 한다. 2. 바트자야 : 열심히 수업시간에도 빠지는 일 없이 잘 나온다. 교과서를 외우는 것은 잘 하는데 시험에 약하다. 말하기가 좋지 않다. 3. 베르드굴 : 3학년 학기 초까지 공부에 소홀. 그렇지만 늘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말하기에 자신감도 붙었다. 수업시간에 발표 시키면 불편해했는데 현재 그런 성격이 많이 사라졌다. 4. 밤바자야 : 학급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고 이해도 좋고 활달

1학년	2학년	3학년
4. 바트암갈랑 : 학급 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선교회를 다니고 있다. 말하기가 부자연스러우나 근면성실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5. 다리마 : 털털한 여자아이다.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 했던 아이였는데, 수도로 공부하러 못 가고 홉드에 남게 돼서 마음을 못 잡다가 적응하게 된 아이. 열심히 하고 4개 영역이 골고루 무난한 아이. 6. 벌러르마 : 반에서 가장 예쁘장하고 눈치가 좋은 아이다. 머리가 좋아서 습득도 빠르고 이해력이 가장 좋다. 4개 영역 모두 잘하는 편. 7. 푸룹자우 : 남학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로 노르바히트랑 친하다.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 옆에서 항상 앉아 있는 탓에 스스로 한국어를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부족 8. 바승후 : 성격은 활달한 편인데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늘 긴장하고 간단한 쪽지 시험에도 늘 커닝을 한다. 9. 바트여용 : 여학생 가운데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 하지만 처음에 쓰기와 읽기가 무척 안	4. 갈망다흐 : 출석률이 좋지 않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 커닝이 잦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워 한국어 점수가 늘 좋지 않다. 5. 강치멕 : 학급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 마음이 따뜻하고 차분히 공부할 줄 안다. 이해력이 좋은데 문법을 많이 신경써서 말하기가 트지 못했다. 6. 굴자나르 : 카자흐스탄족으로 처음에 쓰기도 읽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한국어를 잘 하게 됐다. 하지만 응용력이 없어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좋지 않다. 7. 궁스마 : 활달하고 말이 많은 친구. 3개 영역이 골고루 발달했는데 듣기는 조금 떨어진다. 8. 더르즈 샤웍 : 자브항에서 온 학생. 1학년 때 출석률이 좋지 않아 현재 열심히 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기초의 벽이 늘 문제다. 기초가 없어서 본인도 현재 힘들어한다. 9. 이칭허를러 :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 수도에 편입해서 공부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못 가고 있다. 친근하고 정 많은 성격으로 외국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는데 한국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다.	한 아이다. 행동과 성격은 가장 한국 사람을 닮았다. 5. 강바트 : 수줍음이 많은 남학생으로 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다. 마음이 여리고 건강이 늘 좋지 않다고 한다. 항상 겉돌아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기 힘들다. 6. 강얼즈 : 활달하고 나서길 좋아하는데 최근에 침착해지고 한국어 말하기도 나아졌다. 한국 선교회에 다니면서 수업에 빠지는 일이 많아졌다. 쓰기 연습이 필요 7. 강수흐 : 출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는 그저 스트레스. 하지만 성격 좋고 호남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8. 골망 : 카자흐스탄족.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됐지만 말하기나 듣기가 좋지 않다.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좋지 않아 실망이 많다. 9. 델게르마 : 최근에 임신을 해서 공부에 소홀하게 됐다. 조용하고 표현이 적은 아이라 한국어 실력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 10. 코미사이 : 카자흐스탄족. 한국어, 러시아어를 잘 한다.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의식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한다. 목표가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나 이번 학기에 감기로 많이 아파서 잠시 주춤했다. 몽골-카작어-한국어로 한국어 회화 1을 번역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돼서 힘들어 했었는데 점차 좋아져서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 10. 세르즈마달 : 쓰고 외우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콘쿠르스(우리네 수능) 점수가 400점(50%) 11. 노르바흐트 : 남학생 가운데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 한국어 이해가 좋고 발음이나 4개 영역이 골고루 좋다. 12. 어트겅 자야 : 한국어를 잘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수업시간에 가장 열성으로 하는 친구. 체격은 작은데 늘 작은 고추가 매운법. 한국어도 잘한다. 13. 체첵자르갈 : 어디서 한국어를 배워 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수업시간에 전혀 이해 못하는 것 없이 매우 잘 한다. 다만 시험에 약한 편. 14. 엥흐철멍 : 남학생 가운데 가장 개구진데 그만큼 정도껏 예의가 없기도 하다. 자존심이 세서 지기 싫어하는데 한국어 수업 처음 들을 때는 가장 독보적으로 잘 했었다. 몇 번 수업 빠지고 이해를 못하게 되자 비뚤어져서 수업시간에 떠들고 딴짓하게	10. 뭉궁토야 : 2학년 반장인데 1학년 때 마음을 못 잡고 잦은 결석으로 한국어 기초가 부족한데 머리가 좋고 공부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현재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11. 냠덜거르 : 2학년 중에서 가장 한국어를 잘 하는 친구. 열심히 노력하고 수업시간에도 가장 열심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12. 냠더르즈 : 자브항에서 온 아이로 1학년 때 마찬가지로 출석률이 좋지 않아 기본이 없다. 읽기와 쓰기는 떨어지지만 말하기와 듣기에는 비교적 좋다. 2학년 2학기에 반장이 됐다. 13. 냠자르갈 : 예능쪽으로 재능이 많은 아이로 예쁘장하게 생겼다. 출석률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고 있다. 14. 어서르가랍 :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아이. 배운 것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데 과외로 더 공부하는 것이 없어서 큰 발전이 없다. 15. 설렁거 : 몽골 전통 춤을 가장 잘 추는 아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큰 여학생인데 말 할 때는 가장 순박하다.	11. 뭉궁샤가이 : 똑똑하게 생겼는데 출석률이 좋지 않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성격은 좋은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12. 뭉흐저릭 : 4개 영역 모두 능숙하고 상황 이해도 무척 좋다. 성격도 좋고 작은 형이 한국에서 3년간 일을 하고 와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 잘 한다. 13. 뭉흐졸 : 자브항출신. 요리를 잘하고 조용한 듯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활동적이고 마음이 예쁜 친구. 4개 영역에 대한 자신감 만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아이 14. 나랑게렐 : 시낭독을 좋아하고 춤을 잘 추는 아이. 열심히 하는데 수업 시간 외에 더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사전이나 책이 없어서 모든 것을 수업에 의존하고 선생님을 잘 따른다. 15. 나랑치멕 : 4개 영역 모두 부족한 편이지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고 수업에 흥미가 있다. 한번도 수업에 빠지는 일 없이 잘 나온다. 농업대학 미용학과 출신이라 앞으로도 미용을 하고 싶어한다. 16. 너밍에르덴 : 1학년 때는 무척 한국어를 잘 했는데 출석률이 좋지 않던 2학년을 지나고 현재 한국어를 잘 못하게 됐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마음과 달리 공부

1학년	2학년	3학년
됐다. 15. 투무르촐로 : 한국어 말하기는 가장 잘 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아이. 한국 선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일이 매우 열심히라 수업 시간에 많이 빠지는 편이다. 이해력이 좋고 일본어학과에서 전과한 학생. 16. 툽싱히식 : 수업 시간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딴짓 한번 안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다. 17. 어용바야르 : 주위가 산만해서 수업 시간에도 차분히 못하고 늘 이것 저것을 한다. 정신없이 하지만 얻는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진다.	역시 1학년 때 기초를 못 다져서 급수가 오를 때마다 힘들어하고 있다. 16. 투무르바타르 : 학급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는 아이. 성실한 것 같지만 특별히 성적이 오른다거나 한국어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17. 히식자르갈 : 1학년 때 수업에 불성실했지만 2학년 때부터 많이 성실해졌다. 이해력이 좋아 열심히 하면 그대로 점수로 나오는 편. 18. 체윌마 : 두 번째로 성적이 좋은 아이. 수업 시간에 늘 답을 먼저 말하며 열심히 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조금은 겸손할 필요가 있는 아이 19. 첸드후 : 1학년 때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2학년이 들어서 한국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 20. 체필 : 발음이나 말하기가 제일 좋았는데 2학년 들어서 역시 관심과 흥미가 떨어졌다. 전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고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21. 신바야르 : 남학생 가운데 가장 열심히하는 아이로 성적도 상위. 오브스에서 왔는데 몽골어 사투리가 심해서 인지 부끄러움을 타서 쓰기 외에는 자신감이 없다.	에는 재미가 없는게 흠. 17. 어트겅히식 : 학교 일을 맡아서 하는 등 책임감이 높다. 4개 영역 골고루 잘 하는데 한국어로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18. 어너르자르갈 : 어학보다는 문학을 좋아하는 아이. 중고등학교 때 시를 써서 여러 번 상을 탔을 정도. 최근에 임신을 해서 수업받기 어려워졌다. 19. 사롤자야 : 또한 결혼해서 임신을 한 상태로 본래 한국어 능력이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 20. 실렉마 : 응용이 되지 않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는데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힘들어하고 있다. 21. 수렝자야 : 활동적인데 한국어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연습문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편. 단어를 외우지 않아 한국어가 안 된다. 22. 투그스어용 : 존대어보다 낮춤말을 더 좋아해서 문제지만 열심히 잘 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다. 뱜바자야와 함께 서로를 한국인 삼아 한국어로 이야기를 잘 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서 그만큼 습득이 좋다. 컴퓨터도 잘 한다. 본래 꿈은 프로그래머. 23. 하시에르덴 : 3학년 대표로 우직하고 믿음직한 친구.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서 그만

1학년	2학년	3학년
	22. 바트치멕 :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아이. 한국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 열심히 하고 그만큼 성적도 좋은데 시험에 약하다. 23. 엥흐톨 : 본래는 3학년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3개 F학점을 받아 재시험을 보지 않고 낙제를 했다. 출석률이 계속 좋지 않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고 때문에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 24. 보양히식 : 착하고 마음이 따듯한 아이. 한국어도 마음만큼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한다.	큼 글씨도 예쁘게 쓴다.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계기만 된다면 지금 실력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정도 24. 척트바야르 : 열심히 잘 했던 아이인데, 3학년이 돼서 변했다. 많이 소홀해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작년에 홀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어린 남동생을 돌보는 가장. 25. 체렝더르즈 : 남학생 가운데 가장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부끄러움을 타서 한국어 말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듣기가 좋아서 이해도 잘 하고 마음만 먹으면 말도 잘 할 것 같다. 26. 송도이 : 2학년 때 수도에서 편입해 온 학생으로 본래 컴퓨터디자인 전공을 했던 아이다. 포토샵을 좋아한다. 한국에는 관심이 많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27. 첸드바야르 : 2학년 때 편입해 온 학생으로 2년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와서 말하기가 잘 되는 아이. 컴퓨터보다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데 출석률이 좋지 않다. 쓰기가 좀 모자라다.

4. 파견지역 연구

홉드(Khovd)는 여름과 가을 한 때이지만 농산물이 난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지역 곳곳에서 지역 특산물인 수박, 참외(멜론)가 나고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을 재배한다. 홉드 안에 16개의 솜이 있고 자르갈랑트 시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 생필품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특산품으로 카자흐스탄물건(이불, 가방, 방석, 지갑, 인형 등)들이 있다.

알타이솜에는 채굴하지 않아도 금속탐지기로 지나기만 해도 금을 획득한다고 하고 오브스 가는 길에 있는 솜에 갈탄이 채굴되고 있다. 이렇게 곳곳의 솜에 광물들이 있어서 개발한다면 자원 획득이 좋은 곳이다.

두르궁 솜에는 작지만 수력발전소가 있다. 아직 건설중이지만 완공된다면 두르궁 솜 지역은 그 수력발전으로 자가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력발전소 건설은 중국의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현재 홉드, 오브스 지역은 러시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사람들 말로는 홉드 다른 솜에서 전기발전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전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두르궁 솜이 아닌 다른 곳이었는데 정확한 사실 여부를 모르겠다. 알 수 있는 것은 오브스와 홉드는 정전도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대부분의 전기는 러시아에서 받고 일부 지역으로만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몽골 대통령의 고향이 홉드인 만큼 당선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다. 지방으로는 유일하게 시내에 버스가 있고 볼강 솜에는 중국으

로 연결되는 아스팔트 길이 놓여있다. 최근까지도 바양울기와 울란바타르를 잇는 길에 도로를 깔고 있었고 어디까지 놓일 지 모르지만 사람들 말로는 울란바타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광산물운송을 위한 철도 건설과 러시아, 홉드, 중국을 잇는 제2의 철도가 놓여질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

홉드는 고비알타이나 마찬가지로 사막지역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물만 준다면 푸른 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충분히 여름 한철이긴 하지만 농산물이 재배되는 것을 보면 중하라 못지않은 농업지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농업대학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농업기술을 배우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팀제 봉사단 파견이 계획되고 있는데 농축산 팀제 봉사단이 파견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홉드는 다른 몽골 지역에과는 달리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라 지역마다의 특징이 모두 다르다. 단원이 지역마다의 특징을 모두 섭렵하지 못해서 지역마다의 특징을 정리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북쪽 보다는 남쪽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 중국으로 통하는 길은 남쪽으로 나 있지만 시내에서 볼강까지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알타이 산맥이 있어서 골짜기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놓기도 길을 놓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 자원 개발이나 지역 개발의 시작은 도로와 전기일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홉드 전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5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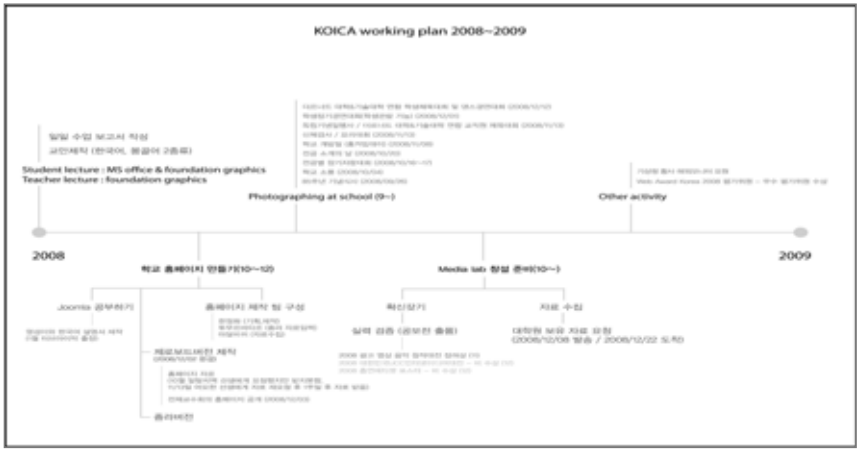
파 견 국	몽 골	성 명	한 정 화
파견기수	2008. 06. 04	활동기관	더르너드기술학교
파견분야	컴퓨터	작성일자	2010. 0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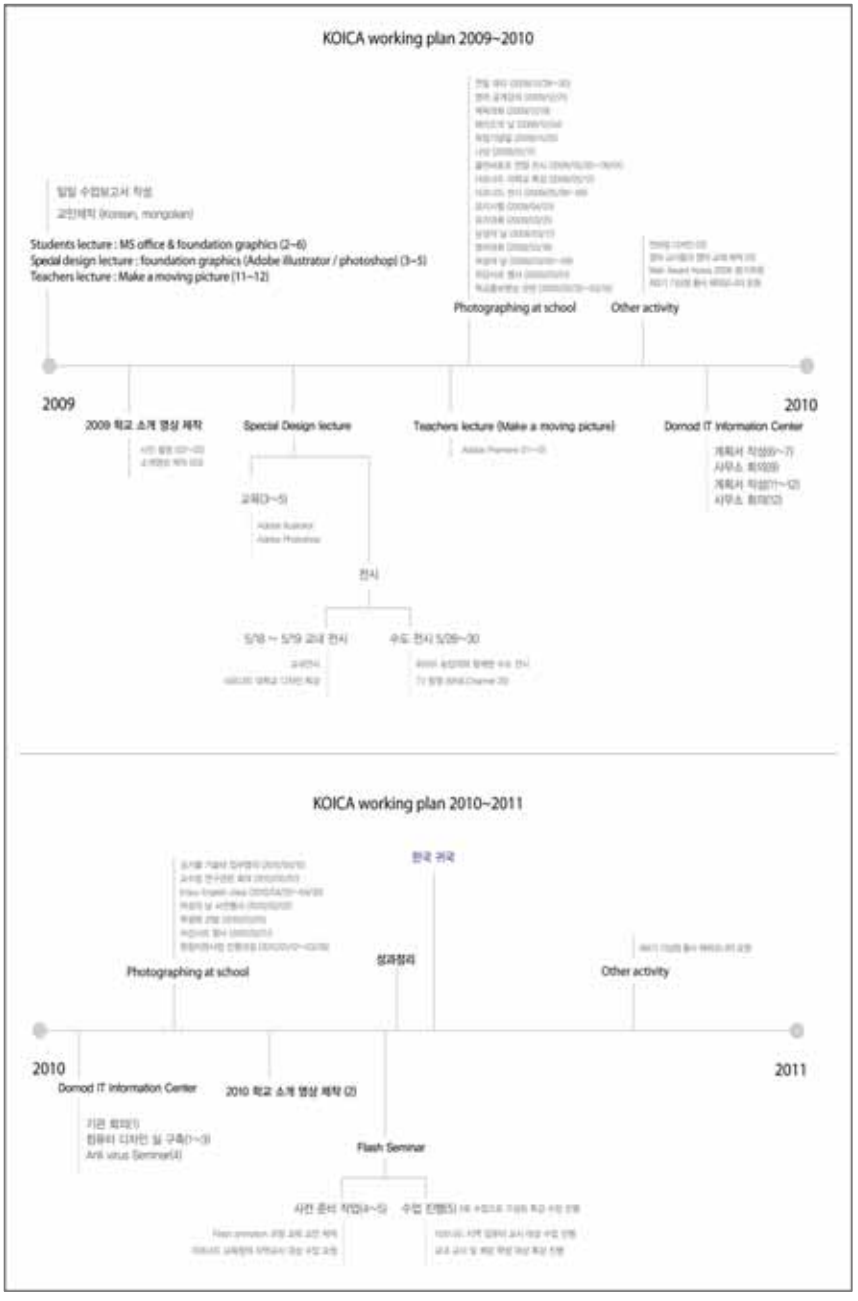
1. 전체 활동 정리

1-1. 활동 방향 설정

컴퓨터 분야 중 컴퓨터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을 진행하여, 더르너드 지역 주민들에게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자.

1-2. 활동 성과/내용 도표




KOICA working plan 2009~2010
입실 수업보고서 작성
고민해적 (Korean, mongolian)
Students lecture : MS office & foundation graphics (2~6)
Special design lecture : foundation graphics (Adobe illustrator / photoshop) (3~5)
Teachers lecture : Make a moving picture (11~12)
Photographing at school
Other activity
2009
2010
2009 학교 소개 영상 제작
Special Design lecture
Teachers lecture (Make a moving picture)
Domod IT Information Center
계획서 작성(9~7)
사무소 회의(9)
계획서 작성(11~12)
사무소 회의(12)
교육(3~5)
전시
5/18 ~ 5/29 교내 전시
수도 전시 5/28~30
KOICA working plan 2010~2011
한국 귀국
성과정리
Photographing at school
Other activity
2010
2011
Domod IT Information Center
2010 학교 소개 영상 제작 (2)
기관 회의(1)
컴퓨터 디자인 실 구축(1~3)
Anti virus Seminar(4)
Flash Seminar
사진 분석 작업(4~5)
수업 진행(5)

1-3. 활동 성과/내용 세부 내용

1-3-1. 총 4회의 수업 진행 및 총 5권의 서적(학습교안) 집필

- Ms office (word,excel,power point) - 비서과 정규 수업
- Illustrator - 학생 특별반 수업
- Photoshop - 학생 특별반 수업
- Premiere - 교내 교사 대상 수업
- Flash - 지역 컴퓨터 교사 대상 1회, 희망 교사/학생 대상 1회



최초 수업을 진행하기 전, 수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교육법은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다. 강의의 최우선 목적은 나도, 학생도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방향을 설정 하였고, 학생들의 꾸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이용한 타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디자인 수업의 경우 수업에 쓰이는 사진 자료를 수업 중간 중간 사진을 찍어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해진 같은 자료를 이용해 진행하는 수업보단 학생들의 이해도가 확실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3-2. 디자인 전시

- 더르너드 교내 전시 (2009/05/08~09)



참고사이트 : http://juroweb.com/exhibition2009/

디자인 수업의 결과물과 교안을 활용하여 교내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는 이들에게 생소한 분야이기에 교육 초기 학생들이 저에게 이걸 배운 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기도 했지만,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머물기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결과물의 공유를 통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초이발산 지역에 있는 기관/학교의 반 정도 규모를 걸어서 초대장을 전달하는 등 몸이 고생한 부분도 있었던 전시였지만, 실로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전시를 방문해 학생들의 작품을 관람하기도 했으며, 학생들 또한 각 작품에 담긴 뜻을 자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하루로 예정했던 전시는 부총장님의 부탁으로 하루 더 연장 전시하였으며, 전시 중 더르너드 대학교 디자인 전공생 및 교사들이 방문하였는데, 아직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작품들을 재밌게 관람하였으며, 저에게 포토샵 특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더르너드 인문대학교 내 디자인 전공생 대상 포토샵 특강 (2009/05/12)



더르너드 전시 때 요청을 받았던 더르너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이었기에 학습능력이 우리학교 학생들보다 빨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시간여의 특강에 같은 학교 컴퓨터 선생님이신 아딜비쉬 선생님이 중간 중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등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 허브드 농업대학교 와 울란바토르에서 연합전시 (2009/05/30~06/01)



허브드 농업대에서 활동 중인 황현상 동기 단원 또한 주 교육방향이 디자인 교육이었기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업이 완료되면 수도에서 연합전시를 개최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각 자신의 파견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소 운영비

용을 지원받아 수도의 자나두 갤러리에서 3일간의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경우 졸업식 날짜와 맞물려 같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행사 중에 전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들의 졸업식에 같이 못하는 대신 더르너드로 돌아온 후 우리끼리 다시 한번 파티를 하자고 말하는 등 마음은 같이 해주었습니다.

1-3-3. 현장지원사업 - 더르너드 IT 정보센터 구축

- 더르너드 IT 정보센터 구축(2010.1~3)



참고사이트 : http://juroweb.com/dream2010/

꿈의 공작소란 sub name으로 진행했던 더르너드 IT 정보센터 구축 사업은 관련 전공 선생님 뿐 아니라 전체 교사 및 학생들의 크고 작은 도움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수업 뿐 아니라 세미나 및 외부 교사 특강 등의 장소로 이용되며, 실제 꿈들이 만들어지는 공작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교사 대상 플래시 특강 (2010.5)



현장지원사업 현판식때 시설을 방문하였던 더르너드 교육문화부장이 현판식때 만들었던 다양한 영상들을 관람 후 이 영상들을 만든 툴에 대한 교육을 지역교사들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 지역교사 대상의 플래시 특강을 5회, 1회 2시간이라는 수업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배우고 싶어하였기에 자리가 남으면 들어오셔서 청강하시게 하였지만, 실제 교육기간 내 좌석이 만석이었기에 교내 교사 및 학생대상 특강은 추후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3-4. 2년간의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대한 사진 촬영



2년 동안 컴퓨터 분야 말고 내가 즐기며 할 수 있는 추가 업무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하게 된 것이 학교 행사들에 대한 촬영이었습니다. 초기 하이앤드 카메라만을 가지고 왔었지만, 활동 중간 DSLR로 기종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어 학교에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2주에 한번 꼴로 다양한 행사들이 학교에서 열리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기에, 저의 이런 활동은 학교에서도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행사가 끝난 후 총장님과 둘이 걸어서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항상 행사 때 마다 사진을 찍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쌓인 자료들이 나중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귀국 전에 CD로

정리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셨으며, 귀국 시점인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 중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도 학교로 가져오셔서 행사 사진을 촬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1-3-5. 영어 선생님들과 영어 학습교제 제작



현재 석사과정을 진행 중이신 학교 영어선생님들의 논문 제본작업 및 디자인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연장선상으로 학습교재를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작업을 한 후, 시범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제작한 책은 교내 도서관에 기증하여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6. 타 국가 봉사단원과의 교류 및 연계 봉사활동을 통한 Friendship 구축



독일 봉사단원인 안야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타 국가 봉사단원들과의 연계 활동은 단원 활동의 범주를 좀 더 다양하게 해줬습니다. 서로

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봉사단원이며 같은 지역에 파견되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서로 좀 더 동질감을 느끼며 선뜻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안야가 소속되어있는 이동식 도서관의 여성의 날 행사에 피스콥 단원들과 함께 참여해 피스콥 Bob 단원은 자신의 전공인 음악교육에 맞춰 안야와 함께 왈츠, 차차차 등을 현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교 행사 사진을 주로 찍던 저는 이 날의 행사 또한 제 카메라에 담은 후 CD에 담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VSO단원인 이스트리나는 제 소속기관의 영어 전공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했던 영어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피스콥의 트린 또한 마지막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기도 하였습니다.

1-3-7. 디자인 업무 수행



학교소개영상 및 연하장 등의 디자인을 통해 현지인에게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고, 디자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직원 및 현지인들에게 실제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르너드 대학교에서의 포토샵 특강, 더르너드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 컴퓨터 교사 대상 플래시 특강을 진행하여, 그들에게 생긴 니즈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1-4. 활동 중단 사례

1-4-1. 컴퓨터 한/몽 사전 제작

활동을 하면서 몽골어 단어가 필요할 경우가 초기 많았지만, 매번 사전에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의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써의 한몽사전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으며, 자료 또한 부실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베이스 확장성이 좋은 사전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다른 업무들로 인해 집중하여 진행하지 못하였고, 실제 이 업무가 개인적인 활동방향으로 정한 컴퓨터 디자인 분야와는 거리도 있었기에 자료조사단계에서 중단하였습니다.

1-4-2. 특성화 반 학생 교육을 통한 한국 내 공모전 참가

지방학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취업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공모전 수상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로 제 개인적인 노하우가 과연 지금도 통하는지를 시험해보고자 나갔던 한국의 공모전에서 수상하기도 하였으나, 출장으로 수도를 방문했던 기간 중 사무실 관리요원들과의 협의 내용 중 본선 수상 시 직접 한국에 가야할 경우가 생길텐데, 이러한 국외 출장의 경우 최대한 빠른 승인



이 나더라도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본선 통과자 명단 발표 후 실제 본선이 행해지는 일~이주의 시간안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학생들의 국외 공모전 참가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였고, 대신 교내/수도 전시로 방향을 재 설정하였습니다.

1-4-3. 아료카 보청기 지원

어깨 검사를 위한 수도 방문이 있었던 2009년 7월, 한국인 의사가 있는 연세병원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료나 선생님이 가는 길에 지인의 아이인 아료카도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데, 선천적으로 소리를 거의 못듣는 상황이었고, 상태 호전을 위해 더르너드 국립병원의 소아과를 데리고 다녔지만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세병원에 방문 후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정밀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신경쪽 이상일 확률이 높으며, 이럴 경우 수술등을 통한 치료보다 보청기를 이용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 옆의 보청기 회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회사 앞에서 아이가 고집을 부리며 안들어가려고 하였기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듣진 못하지만 아마도 남의 가축을 대신 키워주시는 일을 하는 부모님이 걱정되어 그런 것같았기에, 따로 후원을 해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군데 보청기 후원사업을 하는 회사들과 컨텍을 해봤지만, 긍정적인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청기의 경우 사용자의 청각 상태를 검사한 후 상황에 맞는 보청기의 선택이 중요하고, 하나의 보청기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보단 몇 년을 주기로 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 사비로 구매하는 방법 또한 현재 단원 신분으로는 제약이 많아서 검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료카의 보청기 지원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한국으로 돌아간 후 기회를 봐서 다시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1-5. 향후 파견 단원 시 필요 활동 사항

1-5-1. 바이러스에 대한 컴퓨터의 성능 저하 현상.

단원활동을 하며, 아직 확실한 정답이라고 할 것을 찾지 못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몽골 현실에 맞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 대책

  개인적 방법으론 v3lite 와 아바스트 프로그램을 병행 사용하고, usb형 바이러스 전용백신을 통해 컴퓨터를 관리하였지만, v3lite가 한국어버전이라는 점은 단원 임기종료 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다른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2. 교사실내 비치한 물품에 대한 도난 주의.

컴퓨터실 내 교사실에 놨던 개인 물품들에 대한 분실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기에 현지인들에게 갖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면 물건이 분실되는데, 이렇게 비치하는 물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책

  물품 관리철을 만들고,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자물쇠가 있는 케비넷에 비치 후, 다른 교사들에게 대여할 경우 물품 대여 목록지에 대여 사실을 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회 대여기간은 1주일 이내)

1-5-3. 인터넷 허브 구매를 통한 IT센터내 내부 인트라넷 구축

현장지원사업을 실시 하며 학교측에서 인터넷 허브를 컴퓨터 대수에 맞춰 추가 구매하긴 하였지만, 기존 구 인터넷허브의 성능 저하로 인해 현재 IT센터 내 모든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몇 개의 컴퓨터에만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단원 파견 시 학교측에 추가 허브 구매를 요청하거나, 코이카 활동지원 물품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설치하여 모든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보다 쉽게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 또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 장점

  초이발산 기술대학의 총장과 학교운영진은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모든 교직원의 활동에 영향을 주며, 단원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업무/생활과 관련되어 요청사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모든 전공이 전공특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되어있으며, 그룹 회의를 통해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전체 전공들간의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코이카 및 피스콥 봉사단원들과의 다양한 협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풍부합니다.

기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이 오래 되었지만, 신지식에 대한 학습욕구가 높아 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수학하기도 하며, 관련 세미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석 및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단점

지방 학교이고, 기술학교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평균 수학능력이 낮은 점이 단원 활동에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공이 존재하고, 평균 2~3주에 한번 꼴로 있는 행사 및 다양한 업무로 인해 교사교육에 꾸준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필요한 지원체계

환경적 지원과 함께 특강 형식의 비교적 짧은 교육기간을 둔 교사 교육이 진행될 시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사 교육 전 소규모 학생 대상 교육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공개하는 장을 마련한다면 교사들의 학습욕구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파견 단원의 업무종료일과 신규단원의 파견일 사이에 겹치는 기간을 두어 정확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며, 단원 파견시기는 신학기 시작 전인 7~8월 사이가 단원의 업무 수행 및 적응에 가장 효율적인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단원 파견 호응도

총장님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독려하며 필요사항이 없는지 질의하시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시며, 교사들 또한 업무 진행에 있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시 학교 측에서 해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단원과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코이카 단원파견이 가능한지와 파견 방법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단원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현지에 실제 파견된 후 초기 적응 기간 동안 겪게 되는 혼란은 GO 소속으로로 파견된 코이카 봉사단원들의 기본적인 봉사활동이란 개념은 NGO 로써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규범안에 종속되어야 하는 코이카 단원 생활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일반 NGO단원이 갖지 못하는 권한으로 파견기관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관용여권을 가지고 나온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은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규칙에 대해선 사무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더불어 교육기관에 파견된 단원들의 경우 이들보다 선진국에서 왔기에 당연히 이들의 문화에서 쉽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비 실용적인 구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단원 누구나 초기 겪게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들의 문화적인 특성과 삶의 목적 등을

이해해 본다면 이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방향적인 선진 교육의 전수 보단 이들의 문화를 고려한 유동성 있는 교육이 피 교육대상자들에게 더욱 잘 전달 될 것입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온 외국인 이라는 생각에 현지인들이 단원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서로가 함께 일하는 관계라는 이해를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파견 직종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 봉사활동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긴하지만, 꼭 그것이 전부일 때보다 다양한 분야들과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들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단원생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먼저 다가가기' 를 늘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파견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외국인은 신기한 존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국말로 단원이 보이면 멀리서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로 인사를 하거나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있긴한데 살며시 웃어주며 인사를 건내다보면 그들에게 이방인에서 친구로 점차 다가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몽골어가 서툴렀을 때도 인사만은 꼬박꼬박 했더니 어느날 선생님 중 한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몽골어를 잘 말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먼저 인사를 건내고, 안부를 물어봐주는 행동. 그런 행동들 자체가 이미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서툴러도 마음이 먼저 통하게 되면 언어에 대한 습득력도 빨라지고, 전체 말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해지게 되는 것같습니다. 한국 또한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선 좀 인색한 부분이 있으며, 우리에게도 어색한 부분이지만, 이부분은 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파견지역 연구

역사적으로 더르너드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의 전쟁이 있던 지역으로 폭격지 및 승전 기념탑 등 전쟁관련 다양한 전시물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초이발신 시 내에 있는 박물관은 수도에 있는 박물관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속에 구성된 콘텐츠 중 전쟁관련 콘텐츠 또한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며, 할흐골에 있는 전쟁박물관은 전쟁당시 사용했던 여러물품들과 전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이발산에서 조금 외곽쪽에 위치해있는 원폭지와 함께 최대 격전지였던 할흐골 지역은 전쟁 위문비와 기념비 등 다양한 비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몽골인들의 경우 초이발산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호전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몽골의 동부지역(수흐바타르, 더르너드, 힌티 아이막)의 중심 아이막 역할을 하는 더르너드 아이막의 초이발산은 동부 에너지 발전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인근 아이막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동부 중심 도시이기 때문인지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아이막 내에 2개의 기술학교가 존재하며, 한 개의 대학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타 지역보다 많은 교육기관을 수료한 졸업생들의 취업률 또한 울란바

토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제일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가까이 잇는 몽골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게 이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과 세관 업무가 발달해 있고, 이러한 지역적 특징에 맞게 중국음식점과 유럽 음식점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한 이 두 국가를 연결하는 기차또한 있습니다. 이 기차가 울란바토르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러시아/중국이 몽골을 무시한 채 진행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더르너드 밀가루가 있으며, 석유 및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초이발산 인근 지역인 투무르 잠에는 대규모로 석탄 공장이 있으며, 이 곳에서 나오는 석탄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특성 때문에 중국음식점과 유럽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다수 존재합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몽 골	**성 명**	황 현 상
파 견 일	2008. 06. 04	**활동기관**	허브드농업대학교
파견분야	컴퓨터	**작성일자**	2010. 06. 01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1. 학교수업(교양수업/전공수업/디자인특화반수업)

2008년 가을 학기부터 총 4학기동안 일반학과와 컴퓨터학과 학생들의 컴퓨터 수업을 매학기 평균 12파르 정도의 시간을 배정받아 진행했다. 일반학과는 주로 건축과, 미용과, 토목과, 의상과의 교양수업으로 컴퓨터의 기본 사용과 타자연습, 오피스 사용법, 그리고 인터넷활용을 수업내용으로 진행하였고 컴퓨터학과는 포토샵 수업, 아이디어 발상, 그리고 그래픽디자인 과목을 새로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일반학과의 수업내용은 굳이 본 단원이 하지 않아도 현지 교사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한 내용이기에 학기가 거듭할수록 그 수업 수를 줄이고 대신 컴퓨터학과의 수업시간을 늘렸다.

컴퓨터학과는 직업훈련학교 내에 속한 학과로써 매학기 30명에서 40명 사이의 학생들을 맡았다. 전산실 컴퓨터의 성능은 무난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 한 컴퓨터에 2-3명의 학생이 앉아 수업에 임하

고 있었다. 포토샵수업을 진행하면서 1인 1 PC를 맞추다보니 분반이 3-4개로 늘어나 수업시간이 배로 늘어나긴 했지만 훨씬 효과적인 수업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보통 3개월의 수업이 끝나면 2개월간 실습을 나간다. 실습기간에는 배정된 수업이 없어서 그 공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성적과 학습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 디자인특화반을 만들기로 했다. 디자



1. 컴퓨터그래픽스 수업 풍경 2. 아이디어발상 수업 중 학생 발표 모습
3. 야외수업 풍경 4. 2010년 졸업식 학생들과 함께
5. 컴퓨터실 풍경 6. 허브드내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사들을 위한 포토샵 강좌

인특화반은 전시회를 목적으로 하는 커리큘럼 외의 반으로 아이디어 발상과 그래픽디자인 과목을 개설해 수업을 하였다. 한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는 허브드와 수도에서 각각 3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그래픽디자인은 아직 몽골에서 생소한 학문이기 때문에 매 전시회마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1-2. 교사/일반인을 위한 포토샵 강좌

기관 내 관심 있는 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방학기간에 포토샵 강좌를 열었다. 한 달간 12명의 교사들에게 포토샵의 기본 사용과 응용법에 대해 수업을 하였다.

2009년 봄, 수도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모자란 재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야 할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 포토샵 강좌를 열었다. 10명 정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모자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 허브드 내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사들을 위한 포토샵 강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달간 6개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다. 주로 각 교사들이 맡은 컴퓨터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페이지 3 사진참고)

1-3. 그래픽디자인 전시회

매학기 디자인특화반 학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 실습기간에 작업한 것들을 전시해왔다. 첫 번째 전시회는 "4 가지의 이야기"란 주제로 4가지의 각각 다른 주제의 작업물들을 교내 강당에 전시하였다. 첫 전시회라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쳐버리고 정작 학생들의 취업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었다. 허브드는 지역의 특성상 취업의 폭이 매우 좁다. 그래서 수도에서의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수도에서 약 36시간 떨어진 지역이라 수도에서의 전시회는 여러모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었다. 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 수도에 나가는 차비조차 부담하기가 힘든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재정을 부탁하고 모자란 부분은 유료강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3일간 한 갤러리에서 열렸던 전시회는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갔고 여러 방송과 매스컴에 실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애초 의도한 학생들의 취업문제는 예정보다 빨라진 국가시험을 위해 다시 허브드로 돌아가게 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행히 2명 정도의 학생이 허브드에서 사진보정관련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전시회는 지역사회에 자그마한 기여를 하자는 목적으로 기획, 진행되었다. 몽골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고쳐보자는 공익성 캠페인을 전시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이왕이면 허브드 내 다른 학교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육부에 도움을 빌어 각 학교의 학생들의 작품들도 공모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장에서 4일간 전시회를 열었다. 행사 후 함께 쓰레기를 줍는 이벤트도 하는 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보다 깨끗한 허브드를 함께 꿈꿔보는 기회가 되었다.



1 2 1. 2008년 디자인 특화반 1기 첫 전시회. 관람하는 학생들 2.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3 4 3. 2009년 디자인 특화반 2기 Ulaanbaatar 전시회 4. Channel 25 생방송 참여
5 6 5. 2010년 디자인 특화반 3기 야외 전시회 6. 쓰레기를 버리지말자라는 주제의 공익 포스터 (학생들 작품)
7 8 7. 오프닝 행사 후 광장 주변 쓰레기 주워 담는 모습 8. 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봉사자들

1-4. 한국문화알리기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의 부탁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레스 스쿨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식강좌를 열었다. 허브드 단원들이 총 출동해 잡채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한국음식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였다. '한국친구들과 놀자'라는 주제로 한국의 놀이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3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4가지 코너활동(종이접기, 칠교, 공기놀이, 점토놀이)과 단체게임을 하고 간식과 학용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며 서로의 마음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었다.

1-5. 불우가정돕기

개인의 활동에서 벗어나 코이카란 이름으로 함께 봉사를 해보자는 마음이 단원들 간에 있어 시작한 불우가정돕기는 한 달에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2가정을 방문해 석탄, 밀가루, 쌀, 고기를 전달하는 봉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문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발을 해주기도 하며 봉사의 내용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매달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면서 단원들 간에도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 만난 바타르벡(카작계 어린이)은 한 쪽 눈이 실명위기에 있지만 돈이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수도로 나갈 수가 없는 처지였다. 마침 한국에서 온 안과 의료팀이 수도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단원들이 적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한국의 지인들에게도 후

원을 받고, KOVA 장학금도 신청해 수도 나가는 비용과 체류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수술 시기가 한참 지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만 난생 첫 수도방문에 바타르벡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 3 2. 만든 음식을 시식하는 교사들
3. 한국친구들과 놀자 행사 쥬 코너놀이 활동 중인 어린이들
4.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액자 5. 선물을 받고 함께 단체사진



1. 얼린 닭고기를 구입하는 단원 2. 빙문한 가정의 학생 머리를 자르는 단원
3. 새롭게 만난 가족과 단체사진 4. 눈수술을 받아야하는 버터르백에게 KOVA 장학금 전달식
5. 수술을 위해 수도로 떠나는 버터르백 부자

1-6. 코이카단원/해외봉사자들과의 교류

수도에서 워낙 떨어진 지역이라 단원들 간에 단합이 잘되는 편이다. 위에 언급한 봉사들도 이런 단합에서 시작된 것이다. 먹거리가 부족한 이곳에서 수도에서 공수한 작은 것도 모여서 나눠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주 모이게 되고 서로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허브드에는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을 비롯해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해외봉사단원들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각종 이벤트 참여와 교제를 하면서 봉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2 1. 설을 맞아 몽골 전통 옷을 입고 가족사진 2. 차강사르 몽골 가정을 함께 방문
3 4 3. 정월대보름 맞이 쥐불놀이 4. 권국단원과의 아쉬운 이별
5 6 5. 피스콥(Peace Corp) 단원과 함께 명절보내기 6. 허브드 내 타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생일 파티

1-7. 기타활동

학교직원분의 요청으로 어린이 영어교실을 만들어 일주일에 3번씩 1년간 수업을 했다. 기초와 회화수업을 진행하고 서혜연 단원의 도움으로 영어노래와 율동도 함께 가르쳐 효과적인 수업이 되도록 노력했다. 계속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다른 업무들로 인해 중단되었다.

디자인특화반 3기 학생들의 요청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하루에 한 시간 반씩 매일 진행하고 있다. 귀국일이 얼마 남지 않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중이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2-1. 활동기관의 장/단점

활동의 절반은 기관의 협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허브드농업대학교는 우수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곳에 처음 파견되는 코이카 단원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본 단원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특히 수업 관련해서는 프로젝터가 꼭 있어야 되는 본 단원의 수업에 맞게끔 다른 컴퓨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옮기거나 교실을 옮기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어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미리 예산책정이 안 된 상태였지만 본 단원이 기획한 행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웬만한 사항은 총장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상의할 수 있어 일처리 속도가 빨랐고 부재 시 부총장님과 직업훈련학교 학과장님 역시 협조를 잘 해주었다.

코워커 더르찌 푸릅(Dorj Pureb)은 같은 컴퓨터 교사로써 본 단원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컴퓨터 관리를 잘해주었다. 또 한 명의 코워커 마리마(Marimaa)는 영어교사로 기관과 중대한 사항을 논할 때 중재역할을 해주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올 7월 1일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학교명칭도 바뀌고 총장님을 비롯해 윗 선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로 인해 후임단원의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끼칠 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요청과 관심을 보면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무소 측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추후 단원 파견 및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조치해주길 부탁드린다.

2-2. 단원파견 호응도

처음 파견되자마자 총장님께 부탁받은 것은 학교 로고였다. 그 후로 각종 디자인물과 사진들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았다.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활동하는데 있어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첫 학기가 끝나고 학교에서 몽골전통의상인 델을 선물로 주었다. 차강사르에 받은 델을 입고 학교 선생님들 집을 방문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각종 파티에도 초대되어 선생님들과 친분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학생들 역시 한국에서 온 낯선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때문인지 어설픈 몽골어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존에 없던 과목들을 개설했기에 많이 낯설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잘 따라와주었다.



1 2 1. 파견되자마자 착업한 학교로고 2. 별 증정식
3 4 3. 신입 파티 때 선생님들과 함께 4. 자긍사르 총장님 댁에서 총장님과 함께
5 6 5. 졸업식 총장님, 부총장님과 함께 6. 졸업식 선물 증정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효과적인 봉사활동에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처음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에서 완전 어긋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시설, 전혀 다른 분야의 업무 등 여러 변수들이 참 많다. 그러다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에 젖는 때가 많다. 또한 반복되는 활동가운데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들기도 쉽다. 이런 경우에 상황을 받아드리고 따라가기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럼 2년이란 시간동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회의감과 매너리즘에도 금방 회복되어 활동을 뜻 깊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파견지역 연구

허브드는 수도에서 약 1,200km 떨어진 도시로 아이막 전체에는 약 90,000명이, 허브드에는 약 32,000명이 살고 있다. 전체 면적은 약 76,100km^{2}이며 평균 해발은 1,406m이다. 수도에서 거리가 떨어진 만큼 수도와 1시간의 시차도 있다. 아이막 전체에 있는 솜의 수는 17개이며 가장 큰 솜은 볼강으로 약 9,6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몽골의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허브드의 기원은 16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갈단 보쇼거트(Galdan Boshogot) 왕 시절 서부군사기지였던 곳에서 225년간 만주군과 전쟁을 하면서 점차 도시의 형태로 발전해나갔다. 1762년 만주군의 몰락함에 이어 보얀트 강변을 따라 상깅헤렘(Sangiin Kherem)이라 불리는 요새를 새우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교통편은 러시아 봉고인 포르공과 버스 그리고 항공편이 있다.

포르공은 재래시장인 나랑톨 시장에서 허브드로 가는 포르공을 찾을 수 있다. 몇명이 타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보통 기사들은 한번 갈 때 900,000 투그릭을 받는다. 따라서 15명이 타게 되면 개인당 60,000 투그릭을 내게 되고 10명이 타면 90,000 투그릭 씩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인원을 초과해서 태우기에 매우 불편하게 가능 경우가 많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36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인 드래곤 센터에서 출발한다. 지정석은 30석이 못되지만 항상 30명 이상을 태워 역시 비좁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리 예매를 하면 개인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에 포르공보다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은 55,000 투그릭이고 시간은 포르공과 비슷하게 걸린다.

항공편은 이지니스항공(EZnis Airways), 에어로몽골리아(Aero Mongolia), 그리고 미야트(MIAT)가 운행된다. 보통 3시간정도가 소요되며 이지니스 항공은 코이카 단원의 경우 현지인의 가격으로 표를 끊을 수 있다. 편도는 220,000 투그릭이며 왕복은 440,000 투그릭이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외국인 가격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서 보통 이용을 하지 않는다. 미야트는 여름 성수기에만 운행하고 편도 150불, 왕복 300불이다.

물가는 자체 생산되는 몇 품목(육류, 유제품류, 제빵류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중국과 수도에서 육로로 오기에 비싼 편이다. 유가에 따라 변동이 되기도 한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방글라데시	**성 명**	오 세 현
파 견 일	2008. 11. 04	**활동기관**	Rajshahi TTC
파견분야	컴퓨터디자인	**작성일자**	2010. 10. 01

Ⅰ. 업무사항

1. 봉사활동 최종보고서

| 컴퓨터디자인코스 6개월 과정 승인 | KOICA 컴퓨터디자인분과 단원들과 BMET 헤드오피서와의 장기간의 조율 끝에 드디어 수업일수를 늘이는 데 동의하였고, 2010년 7월 하반기 수업부터 6개월 과정(일일 3시간, 주 6일 수업)이 시작되었다.
라즈샤히 TTC는 7월 7일 첫수업을 시작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대학가 시험 등으로 인해 하반기 등록인원이 상반기의 50%였기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주일간 워드 연습을 하면서 자판연습은 물론 컴퓨터 ON/OFF부터 다시 점검했다가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였다.

| 컴퓨터디자인코스 교사세미나 | KOICA 컴퓨터디자인 단원들과 컴퓨터디자인코스가 개설된 전국의 TTC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기간 : 2010년 6월 12일 (토) ~ 17일(목) 일주일
• 장소 : 방글라-코리아 직업훈련원
• 대상 : 각 직업훈련원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담당교사

날짜		시간	수업내용	담당자	비고
6월12일 1일차	1부	09:00 ~ 11:00	오프닝 세레모니 / 6개월 과정 커리큘럼 안내 및 교사세미나 강사소개	오세현	BMET 관계자 및 소장님 참석
	2부	11:00 ~ 12:00	디자인분과 교사 토론회	우민정	
	3부	02:00 ~ 04:00	소묘 - 명암과 구도	김정율	PPT
6월 13일 2일차	1교시	09:00 ~ 11:00	포토샵 예제 1,2	최우영	
	2교시	11:00 ~ 13:00	포토샵 예제 3	최우영	
	3교시	03:00 ~ 05:00	컴퓨터디자인의 활용 예	정유주	PPT
6월 14일 3일차	1교시	09:00 ~ 11:00	포토샵 예제 4,5	최우영	
	2교시	11:00 ~ 13:00	포토샵 예제 6	최우영	
	3교시	03:00 ~ 05:00	제품디자인 기획 실습	강정화	PPT/ 만들기
6월 15일 4일차	1교시	09:00 ~ 11:00	이미지레디 예제	최우영	
	2교시	11:00 ~ 13:00	일러스트 예제 1,2	최우영	
	3교시	03:00 ~ 05:00	칼라시스템	황윤구	PPT/ 색칠도구
6월 16일 5일차	1교시	09:00 ~ 11:00	일러스트 예제 3,4	최우영	
	2교시	11:00 ~ 13:00	일러스트 예제 5,6	최우영	
	3교시	03:00 ~ 04:00	사진 촬영법	타카이 유키	PPT
	4교시	04:00 ~ 05:00	사진 보정 실습	박주란	PPT
6월 17일 6일차	1교시	09:00 ~ 11:00	일러스트 예제 7,8	최우영	
	2교시	11:00 ~ 13:00	일러스트 예제 9,10	최우영	
	3교시	13:00 ~ 14:00	Farewell	최우영	

총 23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일주일간 일러스트와 포토샵의 심화 학습을 받으면서 연습도 하고, 다양한 특강 수업을 통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수업방법도 익혔다. 무엇보다 컴퓨터디자인 교사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6개월 과정으로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교사교육을 요구했던 BMET의 협력을 끌어내어 세미나 기간 동안의 교사들의 점심식사 제공과 오프닝 행사와 토론회 참석 및 수료증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헤드의 지원이 있는 만큼 한방TTC의 자발적 지원으로 교사세미나 교재까지 준비되었다.

마칠 무렵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대체로 참석한 모든 인원들이 이번 세미나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가 빛났던 이유는 잘 지어진 한방TTC의 환경적요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KOICA 멤버들이 준비하고 진행한 결과라고 보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짧은 휴식시간 외엔 줄곧 실습을 하였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더 연습할 수 있도록 교실을 오픈했는데 대부분 그 시간에도 다음 수업을 위해 성실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특별 강의에 대해 모두들 새롭게 접하는 다양한 시도에 아주 만족하였으며, 미술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칼라시스템이나 컴퓨터디자인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다.

다음 세미나에서 웹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아 TTC 컴퓨터디지인분야의 교육방향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를 느낀다.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코스 교사세미나)

| Regular Course 개설 | 법정 나이 20세 미만이며 SSC 시험을 패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전 코스를 개설하였다. 가장 큰 문제

였던 컴퓨터디자인 담당교사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오전 수업을 Nazrul Islam (전자과) 교사가 전담해주었다. 그는 장차 나의 후임이 와서 웹디자인 수업을 개설하게 될 경우 그 쪽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듯하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더욱 미래지향적인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해주었다고 본다. 학생들의 스케줄을 감안하여 6일 3시간 수업을 4일 4시간 수업으로 조정하였다. 교사 역시 남은 시간 전자과 수업을 담당하면서 계속 적을 두고 싶어 했다.

	SUN	MON	WEN	THU
am 08:00 ~ 09:20	Illustrator & Photoshop - Nazrul Islam / Oh Sehyun			
am 09:40 ~ 11:00				
am 11:00 ~ 12:00	Practical - Rezaul Karim			

교사가 진행하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나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오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도 오전에 나와서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점검하고 연습한다.

오전 레귤러 코스에 등록한 학생은 총 10명으로 코스피는 일인당 600Taka 정도이다.

Special Course의 경우 대학생들과 교제하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 코스피에 대해 예민한 상황이라 KOICA 단원들은 오후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관장과 교사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단원의 부담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2010.7. Regular Course 학생들)

| 6th Batch 학생들 | Rajshahi TTC에 처음 부임했을 때 2nd Batch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벌써 마지막 학기 학생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Special Course 학생들은 SSC 시험을 패스한 학생들로써 대부분 대학생들이다. Batch가 거듭될수록 이전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추천으로 온 학생들이 많다. KOICA와 기관의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같아서 흐뭇하다.

6th Batch는 Lab-1의 15명, Lab-2의 12명 학생으로 총 27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 기존의 Nazrul Islam 선생님과 지난 번 교사양성과정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Sarowar Hossain 선생님이 두 교실의 전담 교사가 되었고, 이번에 새로 수업을 시작하는 Sarowar 선생님 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을 도왔다. 그러다보니 Lab-1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수시로 두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바빠진 것 같다.

	SUN	MON	WEN	THU
pm 03:00 ~ 04:20	Illustrator & Photoshop Lab-1 (15명) : Nazrul Islam Lab-2 (12명) : Sarowar Hossain, Oh Sehyun			
pm 04:40 ~ 06:00				
pm 06:00 ~ 07:00	Practical - Rezaul Karim			



(2010.7. 6th Batch Special Course 학생들)

| 기관 홍보물 제작 | 기관의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을 만들어준다거나, 기관 홍보 브로셔 디자인을 해주면서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코스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단원들이 대체로 교사들의 업무를 왜 봉사단원에게 떠넘기냐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수업 이외의 일은 전혀 하지 않겠노라는 우격다짐을 하는 것을 종종 본다. 나 역시 이 일을 해줘야하는 건가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성실함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다. 컴디교사들이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치지 못해 그저 아쉬울 뿐이다.



(라즈샤히 직업훈련원 홍보 브로셔 시안)

2. 2년간 봉사활동 총평가(효과, 문제점 등)

| 라즈샤히 직업훈련원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코스 | 라즈샤히 TTC에는 2007년 처음으로 2명의 컴퓨터 분과 단원이 파견되었다. 한명은 컴퓨터 베이식과 네트워크 과정을, 또 한명은 컴퓨터디자인 과정을 개설하여 멋진 컴퓨터교실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떠나고 2008년 12월. OJT로 라즈샤히에 왔을 때 평가가 다양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베이식과 네트워크 과정을 맡았던 선배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지 않고, 결국 네트워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교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송별식도 컴퓨터디자인 교사들이 함께 챙겨줬다고 한다. 컴퓨터디자인 과정을 담당했던 선배는 교사들과 함께 고민해주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BMET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주면서 노력을 많이 해줬다고 했다. 현장사업 때문에 수업은 한 텀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인상은 아주 열정적인 교사라고 했다.

나는 좋은 교육을 위해 내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교사양성과정을 3차례 시도하면서 이전 단원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이전 단원보다 내가 더 쉽게 가르쳐준다며 흥미로워했다. 나도 직접 겪어보니 듣던 것보다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 여겨졌다. 퀵익스프레스 과정에서 만난 4명의 교사와 한 달 만에 문을 닫기는 했지만 2차 교사과정의 12명의 교사 그리고 최종 과정에서 4명의 교사들을 만나면서 기관 교사들과 아주 친밀해진 것 같다. 나에 대한 소문은 내가 떠난 후에 생각할 문제긴 하지만 말이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직업훈련원의 9, 10학년 학생들과는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 2nd 배치의 30명, 3rd 배치의 28명, 4th 배치의 16명, 5th 배치의 32명, 그리고 6th 배치의 27명 이렇게 133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참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도 외국인 교사와 만남으로 인해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소풍도 가고, 게임도 하면서 추억을 쌓은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으리라 믿는다.

방글라 학생들의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facebook 사이트를 통해 사진도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젊은이들은 역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강했다.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코스 학생들과의 다양한 활동)

| KOICA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대회 | 2009년 11월. 방글라데시 TTC에서 근무하는 컴퓨터디자인 분야 단원들이 학생들의 사기충전과 교육효과를 위해 전국 KOICA 디자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라즈샤히 지역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전국 대회가 먼저 진행되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대회가 이런 것이란 이해를 시켜줄 것 같아 흔쾌히 참여의사를 밝혔다.

첫 회는 한국과 방글라의 상호관계 포스터, 방글라 홍보 포스터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TTC의 학생들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출품하였고, 이를 컴퓨터디자인 단원들이 심사하여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지방 TTC 학생들이 어떻게 다카 TTC 학생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며 걱정하였으나 결과는 단원과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나왔다. 라즈샤히 TTC에서도 2등, 3등, 4등이 한명씩 차지하게 되었고, 입선작품도 2개나 되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며 평가하고, 시골 학생들이 덕분에 다카 구경도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2010년 8월 20일. 컴퓨터디자인 분과 단원회의와 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해 조금 더 준비해서 실효성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6개월 과정으로 새롭게 시작한만큼 이번 배치를 마칠 무렵 대회를 알리고,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첫 대회의 주제가 너무 어려웠고, 현실적으로 4개월 과정 학생

들에게 벅찼던 게 사실이다. 어려운 과제보다 조금 더 직업을 찾는 데 실질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발굴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찾고, 그들의 노력에 격려가 될 수 있는 대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처음부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취업유치를 위해 기업협찬 같은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 다만 코이카라는 이름을 걸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만큼 이들에게 우리 이름의 타이틀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후배단원들이 끝까지 희망을 갖고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제1회 KOICA Computer Graphics Design Contest 시상식)

| 라즈샤히 포스터 디자인 대회 | 매 수업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편집 분야로 취업한 사람은 20% 정도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 수강생들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졸업 후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라즈샤히 지역의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대회를 개최하였다.

라즈샤히 시와 함께 대회를 진행하여 컴퓨터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독려하고 자연스레 TTC의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코스 홍보와 더불어 라즈샤히 지역의 디자인산업발전에도 촉매가 되게 하는 목적이었다.

2009년 12월부터 준비하면서 라즈샤히디자인대회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가지며 공익광고의 필요성과 효과, 그

리고 라즈샤히 디자인대회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며 라즈샤히 TTC와 KOICA, 시청의 협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시장은 흔쾌히 동의하였고, 대회시상금으로 라즈샤히 기업의 스폰서를 요청했는데 시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1등- 시장 상장과 10,000TK, 2등- 시장 상장과 7,000TK, 3등- 시장 상장과 5,000TK, 4등- 시장 상장과 선물)

대회는 직접 TTC에서 3시간 안에 포스터를 만들어 내는 시험형식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 4월 3일. 37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했다.

이날 나온 작품들은 라즈샤히 시청 앞에 액자로 제작하여 설치, 전시하였다. 많은 라즈샤히 시민들이 보면서 기관프로그램 홍보와 “Green Rajshahi, Clean Rajshahi"의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회 제비용을 제공한 KOICA와 장소와 인력을 제공한 TTC, 시상과 홍보를 제공한 시청의 공동주최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제1회 Rajshahi Poster Design Contest)

| 라즈샤히 어린이 컴퓨터 체험교실 |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코스를 수료한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주말 어린이컴퓨터체험교실을 개설하였다. 기관장과 충분한 합의하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동의를 얻었고, 코이카 현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지역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했었다. 이 아이들에게 방글라데시 컴퓨터산업의 주축이 될 비전을 제시함으로 라즈샤히 TTC가 '2021 Digital Bangladesh'라는 비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0명의 어린이들은 Lab-1 교실에 모여 자원봉사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켜고, 직접 마우스를 다루며 체험하게 된다. 지루해질 무렵이면 비디오도 보여주고, 복습게임을 맞추면 사탕선물도 받으면서 시골 아이들에게 이날만큼은 컴퓨터 세계로 소풍 나온 셈이 된다.
현재까지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참석하였다. 7월은 국외휴가 일정 때문에, 8-9월은 라마단 금식기간으로써 정부기관의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어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좋은 운동이 앞으로 후임이 오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컴퓨터디자인 교사를 제외한 다른 기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라서 아쉬움이 크다. 특히 포스터를 통해 지원학교는 기관의 Training Section으로 연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전화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제도였고, 기관으로 문의가 오는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오면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공짜로 컴퓨터를 가르쳐 줄테니 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라즈샤히 어린이 컴퓨터체험교실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

| 한국어 교육과 HTML 특강수업 | 코이카를 지원하기 전에 한국어 강사과정을 통해 외국인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기관 교사들과 학생들의 요청을 그냥 무시하지 못했다. 수업 시간이 조정되어 여유가 생겼을 때나 코스를 마감하고 시간이 빌 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웹디자인에 필요한 언어 HTML을 가르치면서 웹디자인 개요를 설명하는 특강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 시골지역에도 EPS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과 웹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컴퓨터디자인코스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가르쳤지만, 직업훈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더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왕 봉사를 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든 안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다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한다.

3.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 Rajshahi Technical Training Center | 총 23개 트레이드의 11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라즈샤히 직업훈련원은 기관장을 비롯하여, 55명의 교사와 42명의 오피서가 근무하는 다카를 제외한 최대 규모의 직업훈련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4년에 지어진 건물과, 1967년부터 진행되었던 교육환경에서 보듯이 모든 것이 노후하였고, 교사들 역시 나이가 많아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10여 년 전 JICA의 지원으로 몇 개 분과에서 제너레이터 등을 갖추고 있긴 하나 이 역시 기름을 넣을 돈을 지원받지 못해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2007년 KOICA에서 파견된 2명의 단원이 컴퓨터실을 보강해주었고, BMET의 지원으로 9-10학년을 위한 컴퓨터실이 완공되어 컴퓨터베이식 교실까지 잘 갖추어졌으나 여전히 전기 문제, 교사들의 불성실로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선임도 그랬고, 나 역시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 보다 이들의 의식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내가 먼저 열심히 출근하고, 성실히 가르치며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선임 단원이 설치했던 IPS 덕에 정전이 되더라도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학생들 역시 크게 만족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수업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다.

| 컴퓨터 유지보수 문제 | 3년째 아침저녁으로 가동하고 있어 사실상 컴퓨터는 많이 노후하였다. 코워커이며 컴퓨터디자인 In-charge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과 Rezaul Karim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지만 전력상의 문제로 메인보드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현장사업을 통해 한차례 대거 수리보수를 하였으나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
2009년 연말에 바뀐 기관장은 스페셜 코스의 소모품비와 적립금에 대해 기관의 다른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며 지출을 미루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이런 대응은 단원을 지치게 만든다. 물론 학생들의 교육비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KOICA가 지원해주기만을 바라는 기관의 안일한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Course Fee 문제 | 정규과정은 교사들의 일반 근무시간에 진행하는 것이기에 특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후특별수업은 감가상각비 명목의 적립금과 교사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금액이 커진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수당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컴퓨터 베이식코스나 오토캐드 수업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것과 기관장과 오피서가 그 돈의 50% 가량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단원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교사들은 단원에게 기관장과 헤드오피스에 요청해달라고 졸랐다.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다. 4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바뀌면서 코스피 인상을 고려한 나는 헤드에 이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라며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돌아온 공문은 어이없었다.

변경 전 (4개월 과정)		변경 후 (6개월 과정)	
1) Admission fee (for Government fund)	12	a) Admission fee (for Government fund)	12
2) Tuition fee (for Government fund)	48	b) Tuition fee (for Government fund)	72
3) Security deposit (Refundable)	100	c) Security deposit (Refundable)	100
4) Raw materials	400	d) Raw materials	450
5) Depreciation cost of machine	600	e) Examination fee	100
6) Examination fee	75	f) Staff/Teacher honorarium	1,350
7) Staff/Teacher honorarium	900	g) Identity card	30
8) Identity card	30		
Total	2,165	Total	2,114

4개월 과정의 금액에서 인상을 요청했던 교사수당은 오르지도 않았고 감가상각비용이 제외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헤드의 입장이겠지만, 전기와 습도 등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컴퓨터실에서는 그동안 이 비용으로 컴퓨터와 부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현재까지 1st~6th Batch 수강료를 통해 적립

되었던 금액으로 컴퓨터 1대와 각종 부품을 구입하고 20,000Taka 가량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선의 노화로 컴퓨터실의 A/C 한 대의 모터가 고장을 일으켰다. 모터를 구입하고 가스를 채워 넣는 데 드는 비용이 적어도 18,000Taka이다. 이렇듯 사후 관리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을 더 해주지 못할망정 수강료를 줄여서 기관에게 부담을 지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의 문제는 계속 잦아질 것인데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컴퓨터는 창고로 들어갈 것이고, 결국 타 분과처럼 적은 수의 컴퓨터 앞에 2-3명 앉아 수업하게 될 것이다.

본인을 비롯해 컴퓨터디자인 분과의 단원 몇이 이 일로 헤드를 찾아갔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헤드오피스로 와야할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기관들은 기관장과 교사들이 나눠가지는 폐단이 있었다며 없앴다고 한다. 본인은 기관에 부탁하여 적립된 돈으로 구입했던 비품들의 영수증을 복사하여 첨부자료를 내밀었으나 각 기관에 제공된 Raw materials로 감당하라는 내용만 전달하였다.

이 일을 기관에 알렸더니 그 비용으로는 9-10학년을 위한 수업진행비로 쓰기에도 모자라다며 기관장은 컴퓨터디자인과 같은 외부학생들을 위한 수업에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단원 한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이러한 헤드와 기관의 반응은 KOICA를 의식하여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여겨지며, 각 지역 직업훈련원의 교육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기에 사무소 측에서도 헤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 후임단원의 필요성 |

1. 컴퓨터 수리, 보수 능력 - IPS가 있고, UPS를 모두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컴퓨터에 무리가 많은 상태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밖에 내보내도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계속 부품만 새로 갈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전문능력이 있는 단원이 오면 좋겠다.
2.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 당연히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유경험자라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웹디자인 유경험자 - 노후한 아날로그식 교육기관인 TTC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술학교의 능력을 상실한 일반 고등학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KOICA 단원들 덕분에 새롭게 컴퓨터그래픽스디자인 분과라는 것이 생긴 것처럼 웹디자인 분과를 개설하여 방글라 IT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방글라 전 지역에 인터넷 라인이 다 구비되지 않은 점에서도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라즈샤히 TTC의 경우 컴퓨터그래픽디자인 교실이 두 개 준비되어있고, 비록 실력은 미비하나 현지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 후임단원은 웹디자인 과정을 창설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미 외부 교육기관에서는 각자 모뎀을 가져오도록 하여 비싼 교육비로 웹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동식 모뎀을 구비하여 현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4. 어렵게 열어놓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 컴퓨터 디자인 대회 개최에 힘써 줄 후임이 필요하다.

4. 현지업무 종결 결과

아쉬움은 남지만 2년간 잘 버틴 것 같아서 나 스스로를 격려한다.

아직도 컴퓨터그래픽디자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BMET와 기관장을 어떻게 이해시킬지,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이 일에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주는 교사들에게 고맙다. 적은 수입에도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이 2년의 시간동안 자원봉사로 이 땅에서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오면서 벌써 3년째 이어왔다.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이 사라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이왕이면 시작부터 나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거침없이 교제하면서 잘 지내왔을텐데 하는 생각도 든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코워커와 교사도 물론 실망스럽고 다툴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지금까지 내 눈치 봐가며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즈샤히 직업훈련원 사람들은 그나마 배려심이 있고 교육의 도시에 사는 만큼 신사적이었다.

현장사업을 진행하면서 라즈샤히 시장을 비롯해서 라즈샤히 DG와 교육감 등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지역사회에 KOICA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릴 수는 기회였다고 본다. 앞으로 그들과 연계된 어떠한 행사가 있든 없든 지역유지들과의 만남은 한국을 홍보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어린이컴퓨터체험교실을 하면서 나를 알아보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한국을 알리고 TTC를 알리는 일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 금방 전해지기 때문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의 시도가 언젠가 이 땅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

5. 향후 필요한 지원 체계 및 협력관계

1. 컴퓨터실 사용과 비용부담의 문제 - 컴퓨터디자인분과에 컴퓨터실을 지원하였다면 시간을 조정하여 다른 분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적 사고이다.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컴퓨터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즈샤히 TTC에는 컴퓨터 동에 3개의 분과가 있다.
   1층 왼쪽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분과의 2개 룸은 오전 오후 컴퓨터디자인코스가 진행 중이다.
   1층 오른쪽에는 오토캐드 룸이 1개 있는데 9개의 컴퓨터로 20~40명의 학생들을 수업해야하는 상황이다. 건축과 학생들만 이용하던 룸에 토목과, 기계과, 목공과 학생들도 오토캐드 수업이 필요하다 하여 신규단원이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1개 룸에서 4개학과가 이틀씩 돌아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층 컴퓨터베이식 룸 1개는 오전에는 9~10학년의 컴퓨터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스페셜코스가 진행되어 사실상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다.

관리 비용 역시 각자의 수강생들을 통해 들어온 수입으로 집행되고 있어 다른 분과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가 부담하느냐는 말을 듣는 것이다. 토목과, 기계과, 목공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무실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연습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 동의 In-charge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터라 괜히 신규단원만 보면 컴퓨터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기관을 설득하여 비용지출 시스템을 바꾸던지, 사용시간표를 조정하던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로 손해 보지 않으면서 각자의 방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In-charge들의 고집을 꺾기 힘들 것이다.

2.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 지원 - 의상과로 온 신규단원이나 앞으로 후임이 들어와서 웹디자인 수업을 개설하는 문제 역시 정부 수료증을 기대하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새로운 수업을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BMET를 설득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수료증이 발급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초반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큰데 그들이 공문을 만들고, 기관장과 헤드를 설득함에 있어 개인의 노력에 준한 사무소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영-방 번역과 통역 등에 대해 사무소의 현지인 직원이 일정 부분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3. 연수생 선발 단원 추천제 검토 - 매년마다 한국에 연수생을 파견하여 한국의 선진산업과 문화를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선정의 폭을 넓혀서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헤드의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시골지역 일반 교사들에

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단원추천제를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 4년 동안 선임 단원 때부터 인정받았던 교사라면 현재 단원이나 후임단원이나 그에 대한 추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한국인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한국적사고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해왔다면 한국을 다녀왔을 때 그 효과는 훨씬 커지리라 믿는다. 10여 년 전 JICA는 일본 연수를 많이 보내줬는데 KOICA는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신들 한사람 보내는 비용보다 우리 같은 사람을 파견시켜 봉사하게 하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무마시키기는 했지만,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연수를 받고 왔다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 그저 무시할만한 의견은 아닌 듯하다.

Ⅱ. 일반사항

1. 2년간의 현지생활 평가

| 방글라데시도 살만하다 | 처음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최악의 것을 기대했던 나머지 국제공항의 모습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이다. 게다가 다카 도심으로 연결된 에어포트로드도 넓었고, 유숙소가 위치했던 지역의 빌라촌은 내가 상상하던 방글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라즈샤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OJT를 통해 겪은 시골모습은 조용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던 것이다. 교육의 도시 라즈샤히라서 그런가, 그나마 매너 좋은 교사들 덕에 외국인으로써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적당한 가격에,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집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리된 집의 모습을 갖추며 살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현지인들과 친밀해지는 방법으로 소풍을 선택하였다. 일명 '번개모임'은 수업 후에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는 것이다. 사진도 찍고 간식도 사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통해 방글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나의 친절한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지성인이며, 젊은이들의 표본이었다. 그들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가족들 역시 깡촌 시골사람들과는 사뭇 달랐다. 대접할 줄 알고, 배려와 매너가 있었다.

출퇴근은 거의 자전거를 이용했다. 가까운 거리라 릭샤를 탈 때 늘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하게 되는 게 귀찮아서였다. 처음에는 외국인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나와 말을 섞어보기 위해 내 옆에 바짝 따라붙는 자전거들 때문에 부딪치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냥 릭샤를 타고 학교에 가면 자전거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왔으며, 지금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도 아예 관심 밖이거나 목례로 인사를 건네는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여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었고, 동네 여자 꼬맹이들도 세발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여자는 항상 조숙하게 릭샤를 타고 다니며 화장이 짙고, 남자가 사다주는 것만 했던 전형적인 이슬람 여성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낀다. 여자에게도 평등한 권리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일에 나의 말과 행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시장에서도 단골집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은 무슨 집 몇 층에 어느 편에 사는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 가까운 사람들이 도둑이니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물론 나도 늘 조심해야하겠지만, 늘 긴장하며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 나는 항상 매호만(소중한 손님)이었고, 나에게 그들은 친구였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는 다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삶의 양식이 비슷하다. 동네도 비슷하고, 집도 비슷하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행동 역시 비슷했다.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제대로 유지 보수되지 않은 문화재들인데 그래도 나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보물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여행을 다녔다. 학생들과 주말을 이용해 갔던 라즈샤히 근교에서부터 휴가를 이용해서 단원들이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래도 볼거리가 많다고 말하고 싶다.

더욱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하고, 과거를 잘 보존하며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도 문명의 세계에서 온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그들은 갈 수 없었지만 나는 갈 수 있었던 곳은 사진을 찍어 전달하면서 과거를 찾고, 방글라데시의 가치를 알아가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문명과 동떨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1억 6천만 인구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가 되는 뿌리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세계인들에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라 여겨진다.

2. 봉사활동을 마치는 소감

나에게 방글라데시는 아주 낯선 땅이었다. 코이카를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방글라데시가 어디에 속한 나라인지 찾아봤을 정도였다. 관심 밖에 있던 땅이었는데 어느덧 우리나라 일 마냥 안타깝게 여겨

지게 되었다.

현지훈련을 받으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전기사정도 안 좋고, 국제적인 경제 불황 속에 외국인 투자자마저 줄고 있고, 천연자원이라고 하나 있던 천연가스는 곧 고갈될 것이다. 현지인들 역시 정치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 말한다.

나는 이 땅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언젠가 당신들도 미래를 바꿀 만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사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시간과 지식들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했다.

나를 통해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급향상되는 등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 비록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물을 주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를 기대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들이 당장 필요한 의식의 변화 역시 가능한 날이 오리라 믿는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제2호(최종보고서) (2009.08.19~2010.08.18)

파 견 국	베 트 남	성 명	배 우 기
파 견 일	2009.08.19	활동기관	빈팅면 인민위원회
파견분야	농업토목	작성일자	2010.07.17

1. 1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현지업무 종결 결과 및 성과

본 단원은 1년 임기의 팀제 봉사단 개념의 UKOV 대학교 봉사단이다. 본 단원의 파견 형식은 개인이 아닌 대학 교수님과의 연계를 최대한 이용해 파견 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 사업을 구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 사업 추진 배경

타잉화성에는 총 496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이 농업협동조합은 면 소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면 소재 지역에 기반을 둔 이유로 각각의 농업협동조합은 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조합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조합의 경제규모는 작고, 농업기반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성 내의 많은 농업협동조합 중에서 빈팅면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가장 열악한 곳이며,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역에 비해 큰 호수나 강이 없는 빈팅면은 60%가 넘는 천수답 비율을 가진 베트남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열악한 수자원 보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적은 수자원이더라도 다양한 농업기반시설이 있다면 이를 농업용수로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해결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산업인 농업에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 타잉화성에서는 빈팅면의 농업수자원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저수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 특히 관개수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300ha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의 물을 실제로는 160ha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농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빈팅면의 경우는 관개수리시설 등의 농업기반시설 없이는 현 상황보다 더 높은 농업생산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빈팅면은 약 55 km의 관개수로가 있으며, 이 중 약 5 km 정도가 콘크리트 관개수로로 건설된 상태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존의 콘크리트 수로는 많은 훼손이 이루어져 보수 및 신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흙수로의 경우는 모양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물 손실이 많다.



▲ 그림 1 : 빈팅면 농업용수로

농업기반시설의 취약하게 되면,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해 및 각종 재해 등에 의해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농업생산성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지역민들과 조합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즉, 경제적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빈팅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인 농민들이 돈을 각각 걷어, 1년에 벼농사가 시작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흙수로 및 양수장시설의 복구 작업을 하므로써 경제적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위와 같은 빈팅면의 농업수자원부족, 효율적인 관개시스템 부족에 따른 농업생산성저하를 줄이고, 해당지역에서 요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콘크리트 관개수로 신설

1) 관개수로 신설지역 선정 과정

임지 부임 전 OJT를 통해 기관 방문과 선임단원의 정보를 접하고, 빈팅면의 농업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현지적응훈련 기간부터 본 단원들은 빈팅면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① 지도 교수를 통한 계획 수립

본 단원들은 KOICA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대학생 봉사파견단(UKOV)이다. 본 파견 형식은 다른 단원들보다 파견 기간은 1년으로 다소 짧지만, 담당 지도 교수님(*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손재권)을 통해 전공 관련 실무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적용, 객관적인 Feedback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

다. 우리는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베트남 현지적응훈련 기간부터 교수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왔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OJT기간에 얻은 정보를 교수님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님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업기반시설과 기반시설 신설을 위한 지역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

본 단원들의 임기가 1년임을 고려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실현 가능한 현장지원사업을 제안하셨고, 제안한 사업은 바로 콘크리트 관개수로 신설이었다.

② 기관 관계자들을 통한 계획 수립

본 단원들은 임지 부임 초기부터 관개수로 신설 현장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다. 빈팅면의 농업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9월부터~11월까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사업진행이 적합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현장지원사업지로 적합한 곳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수님과 상의 하였고, 그 후 5개 지역을 선정, 최종적으로 기관 요구치가 가장 높고, 짧은 임기 내에서 실현 가능한 구역 2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었다.



▲그림 2 사업지 선정 작업

2) 현장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과정

관개수로 신설을 위해 본 단원들은 KOICA 현장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용, 09년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하였다.

① 사업비 선정

현장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비가 필요 하였다. 관개수로 신설지역 선정이 끝난 후 우리는 바로 수원기관에 총 공사비에 대한 견적을 부탁하였고, 기관은 성내의 XAY DUNG NHA NUOC을 통해 사업 예정지에 대한 견적서를 제공 하였다. 이를 통해 시방서 기준에 의한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량과 사업비가 객관적으로 산출이 가능했다.

② 베트남 건축 현장 조사

성내의 XAY DUNG NHA NUOC에서 제공한 시방서 기준은 2006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개도국 특히 베트남의 경우 물가 변동과 그의 폭이 크고, 지역별로 임금 및 자재 시세 차이가 크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산출을 위해선 현지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내의 토목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지역 내의 임금 상황과, 자재 시세, 그리고 베트남 현장 시공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주력 했다.

3) 구체적 사업내용

① 400m (B) 구간 신설

- 사업 실시 전



▲그림 3 : 빈팅면 북부 농경지대 관개체계 및 콘크리트 관개수로 필요구간

앞에서 간략히 설명을 한 400m B 구간이 있는 그림이다. (그림. 3)은 빈팅면의 북부지역의 관개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주로 농업용 저수지와 양수장 1번에 의해서 공급되는 용수를 이용하여 경작활동을 하고 있다. 계획 초기 당시 5개의 후보 지역 중 북부 지역에서 콘크리트 수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로경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 B구간이다.

본 단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B구간의 경우, 사업 진행 전에는 흙수로를 이용하여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으

며, 그나마 있는 흙 수로 또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논과 밭에 물을 대는 농부들이 직접 물줄기를 끌어 오거나 물을 퍼 날라야 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끌어온 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B구간 오른쪽에 위치한 저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농업용수를 저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저수지로부터 충분한 용수를 저류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개수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농업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림 4 : 400m 사업 실시 전

- 사업 실시 후

400m B 구간의 경우 2월1일자로 첫 공사가 시작 되어 4월 29일에 마무리 되었다. 공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1월에 시멘트 회사와 공사에 사용 될 시멘트 구매 계약이 이루어 졌고, KOICA 사무소로부터 현장지원사업 1차 착수금 송금과 함께 바로 지불이 되어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었다. 신축 되어진 관개수로의 길이는 400m, 총 공사비는 VND 110,470,000 이었다. 본 공사비는 400m 수로 건설에만 사용된 금액으로, 이 금액에 시멘트 비용과 시멘트 선적 비용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

400m의 경우 680m 구간과 다르게 공사 진행이 순조로운 구간이었다. 첫째로 짧은 길이로 인해 짧은 공기를 필요했고, 400m 구간은 농로를 포함하고 있어 차량 및 중장비 진입이 용이했다. 그리고 수로 신설 지역이 직선 구역이었기 때문에, 수로 건설 과정이 680m에 비하여 수월 하였다.

본 단원들은 현장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구간별로 한명씩 전담하여 안전관리, 자재관리, 인력관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날마다 확인 하였다. 본 단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관리 감독관을 배치하여, 당일에 할당된 공사 진행량 및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었다. 그리 인해 공사 중 비가 오는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공사기한을 넘기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림 5 : 400m 사업 실시 후

② 680m (C) 구간 신설

- 사업 실시 전



▲그림 6 : 빈팅면 남부 농경지대 관개체계 및 콘크리트 관개수로 필요구간

앞에서 간략히 설명을 한 680m C 구간이 있는 그림이다. (그림. 6)은 빈팅면의 남부지역의 관개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부지역의 경우 주로 양수장 2번과 3번에 의해서 공급되는 용수를 이용하여 경작활동을 하고 있다. 계획 초기 당시 5개의 후보 지역 중 남부 지역에서 콘크리트 수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로경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C, D구간이었다. 빈팅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연꽃 호소에는 1번과 2번의 양수장이 있으며, 빈팅면의 서쪽에 위치한 연꽃 호소에는 3번 양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2번 양수장은 상리(Lang Sanh)와 동리(Lang Dong)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3번 양수

장은 도와이리(Lang Doai), 중리(Lang Trung)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었다.

본 단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C구간의 경우 2번 양수장과 연결되며, 2번 양수장에서 시작된 관개수로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기존에 건설된 콘크리트 수로가 C 구간 이전까지 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중간에 수로가 끊어져 있었고, 이 같은 이유로 동리의 경우 흙수로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곳은 기관 관계자들이 관개수로 신설 요구 지역 중 1순위 지역으로 기관의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하기 위해 C구간을 선정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7 : 끊어진 콘크리트 수로



▲그림 8 : 사업 전 흙수로 모습

- 사업 실시 후

680m C 구간의 경우 01월20일자로 첫 공사가 시작 되어 4월 30일에 마무리 되었다. 공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1월에 400m 구간과 본 구간에 사용 될 시멘트 구매 계약이 이루어 졌고, KOICA 사무소로부터 현장지원사업 1차 착수금 송금과 함께 바로 지불이 되어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었다. 신축되어진 관개수로의 길이는 680m, 총 공사비는 VND

248,070,000 이었다. 본 공사비는 680m 수로 건설에만 사용된 금액으로, 이 금액역시 400m와 같은 상황으로, 시멘트 비용과 시멘트 선적 비용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

680m의 경우 큰 문제없이 진행된 400m 구간과 다르게 공사 초기 수로 건설 지역의 지반이 무척 약하여 지반 강화를 위한 바위 구매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계획서 상으로 책정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하였다. 400m 구간과 다르게 680m 구간은 곡선 수로가 많았으며, 수로 건설 예상 지역의 추가 굴착과 바위 매설로 인해 공기가 3일 정도 늘어났으나, 기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공사 감독으로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림 9 : 끊어진 수로를 이은 모습



▲그림 10 : 사업 후 완공된 수로

문제점

1) 현장지원사업 애로 사항 및 해결

① 사업 진행시기

관개수리 사업은 사업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농작물생육 시기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 되어 농작물이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해 농작물 생산에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1년에 두 번의 논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농기가 무척 짧으며, 우기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단원들이 파견되어 임지 생활을 시작한 것은 9월 중순. 베트남의 휴농기가 11월부터 1월까지 3달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 빠른 사업 승인을 통해 휴농기 기간동안 많은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년 초에 있는 베트남 최대 명절 TET(설)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 진행시기를 선정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 같은 전공 분야 및 비슷한 임지에서의 현장지원사업을 계획하는 단원의 경우 사업 시작 시기를 11월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② 자재 관리 문제

사업을 진행한 수로의 경우 모두 논을 끼고 있는 지역이며, 공사 지역까지의 자재 운반 도로가 좁고, 포장이 되지 않은 농로이었기 때문에 경운기를 통한 자재 운반이 이루어 졌다. 이런 가운데 자재의 선적, 운반, 적재를 반복 하는 과정 중에 자재 손실이 있었으나, 기관 관계자를 통한 빠른 조치로 빠르게 시정 될 수 있었다.

③ 인력 관리 문제

토목 공사에서 사업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이다. 사업 시기와 장소의 이유(좁은 농로) 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장비가 아닌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그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비중은 더 커지게 되었다. 커지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근 기록부를 만들어 기관 관계자들이 이를 관리하고, 본 단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기록부를 확인하였다.

④ 자재비 상승

베트남 명절을 기점으로 예상했던 자재비 상승이 있었으나, 책정한 예비비를 통해 큰 공사비 지출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장 점

본 단원이 1년간 활동한 빈팅면 인민위원회의 경우 한국의 면사무소 개념으로 작은 규모의 국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구조 아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보여주는 곳이다.

임지에서 현장지원사업을 준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현장지원사업 후보지 선정이었다. 전공과 공사 특성상 많은 양의 지역 데이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했다. 이를 위해서 기관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를 이용해 단원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으며, 단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현장지원사업에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다. 특히, 현장지원사업을 진행 하면서 관리 감독 부분에서 기관 간부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무척이나 고마운 부분이었다.

2) 단 점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국가기관의 상하 구분이 명확하고, 하위기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현장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많았다. 상위 기관에 대한 자료 및 지원 요구 시, 긴 시간과 수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 하거나 미루고 들어 주지 않는 일이 많았다. 하위 기관의 서러움 아닌 서러움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3) 향후 필요한 지원 체계 및 협력관계

베트남 안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은 중북부 지역의 타잉화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도모를 위해 꾸준한 외부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빈팅면 인민위원회를 위해 올해 관개수로와 함께 한경대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시범농장 프로젝트 또한 진행 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단원 파견과 함께, 현재까지 지원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홍보, 발전시킬 수 있게 사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① 본 지역은 베트남의 단원 파견 지역 중 손에 꼽히는 열악한 주위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시골의 작은 면 단위의 지역인 탓에 타 지역보다 잦은 정전과 단수, 식재료 구입의 어려움, 교통수단의 어려움 등이 있다.
무엇보다 이곳에 파견 되는 단원의 경우 이런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단원이 임지에 파견이 되면 농업협동조합 소속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기관의 하위 부서임을 인식하고 기관장 및 기관 간부들과 마찰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③ 지역민들과의 관계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단원이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현지인이다. 이들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단원 활동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될지, 행복함과 보람의 시간이 될지가 정해진다고 본다. 특히 시골의 인심을 믿고 사람들의 호의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4. 파견지역 연구

1) 지역 이름 : 타잉화성 빈록현 빈팅면
2) 인구 : 9,600 명 (약 2000 가구)
3) 가구당 1년 평균 소득 : $180 수준
   ①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베트남의 GDP 수준인 $800 정도.
   ② 빈팅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간 소득이 $1500,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700, 게스트하우스 직원 $400불 수준
4) 소득 주요 자원 : 벼 및 옥수수, 콩, 고추 등의 작물재배
5) 지역 기관명 : 타잉화성 빈록현 빈팅면 인민위원회
6) 주요 시설 실태:
   ① 은행: 빈록현에 AGRIBANK가 1개소 있으며, 면에는 없음.
   ② 학교: 빈팅면에는 초등학교와 최근 신설된 중학교가 있으며, 빈록현에 중고등학교가 있음. 초등학교의 규모는 전교생이 700여명 정도로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80년대 농촌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됨.
   ③ 버스터미널:
      ㉠ 빈팅면: 2009년에 생긴 버스로, 낌떤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출발하여 타잉화성 중심 시내까지 가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은 25분~30분. 요금은 시내까지 20000동, 기관까지는 7000동
      ㉡ 빈록현: 하루 5회에 걸쳐 하노이에 가는 버스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음. 요금은 하노이까지 70000동. 주거 지역 중심에서 탑승 가능.
   ④ 기타: 빈팅면에는 우체국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기타 다른 편의시설이 없으며, 빈록현에는 우체국, 군사시설, 게스트하우스, 절 등이 있음.

7) 지역 생필품 가격표

표 1.

품목	가격(US Dollar)	기준
쌀	0.7	1kg 기준
기름	0.7	1L 기준
설탕	0.3	500g 기준
교통 요금	0.4	버스
생수(500ml)	0.4	
담배	1	A pack of cigarettes
한 끼 식사비용	1.5	1인 기준 껌(com)
슬리퍼	1.8	한 짝
한 달 주거비용	200	한 달 기준 (주거 장소가 많지 않음. 최초 거주자가 다소 많은 가격을 제시하여 한국인의 경우 $200로 거의 고정되어 있음)

8) 농업 환경

① 빈팅면의 경지현황

㉠ 총경지면적: 708 ha

ⓐ 논: 560 ha

ⓑ 옥수수: 60 ha

ⓒ 콩: 50 ha

ⓓ 고추: 33 ha

② 농업용수 공급현황

㉠ 저수지: 160 ha

㉡ 양수장: 548 ha

- 10개의 양수펌프가 있음.

5. 기 타

타잉화 지역안의 면 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농업기반시설 지원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활동기간 동안 여러 곳의 면 소재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본 단원들의 임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시설, 환경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오랜 시간 제자리인 지역이 태반이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까지 농업의 주요 역할인 농작물 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농업환경 전반적으로 투자 여력을 약화 시킨다. 협동조합의 어려움은 곧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 면 소재 기관 관계자들이나 현지인들은 아직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익 창출과 소득 증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하여 제공 할 수 있다면 추후 본 지역과 인근 지역의 많은 면 소재 기관에서 농업기반시설 신설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타잉화성에 있는 500여개의 농업협동조합은 더욱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와 발전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본 단원들이 계획하고 마무리 한 관개수로 신설 공사가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인민위원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나, 문제는 이를 다른 기관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성내의 농업국 의지와 적극성에 달렸다는 것이다. 또한 마케팅 활동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 지원 없이는 현재 각 인민위원회의 낙후된 시설이나 제한된 자본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임단원이 파견되어, 지속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현장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본 단원들이 마무리 한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더 구체적인 수치를 뽑아 낼 수 있고, 이를 마케팅과 연관하여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모두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제 6 호 (18개월째)

파 견 국	스리랑카	성 명	송 재 욱
파 견 일	2008. 06. 01	활동기관	Kegalle Technical College
파견분야	컴퓨터	작성일자	2009. 12. 30

1. 주요 활동

1) 담당업무 및 활동

가. 주요업무 : 컴퓨터 강의(컴퓨터 기초&활용, MS-OFFICE, AutoCad, 네트워크) / 컴퓨터실 관리 및 정비 / 서류 작업 및 정리

나. 컴퓨터실 관리 및 정비 : 기관 내의 컴퓨터와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컴퓨터실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을 비롯해서, 고장난 하드웨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일도 포함된다. 아래의 사진은 본 단원이 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컴퓨터실의 모습이다. 이곳에는 전부 24대 정도의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





다. 서류 작업 및 정리 : 수업 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 직원들에게 간단히 컴퓨터 활용법(문서 작업과 같은)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특히, MS-Word와 Power-point를 활용하여 영어로 된 문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 기타

- 커리큘럼(교과 과정) : 크게 8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해서 첨부하겠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토캐드(AutoCad)를 가르친다.

Module Numbers and Modules	
M-01	Maintain Files & Folders (Computer Basic)
M-02	Perform Word Processing (MS-Word)
M-03	Prepare Spreadsheets (Excel)
M-04	Prepare Presentations (Power-point)
M-05	Maintain Databases (Access)
M-06	Create Electronic Files
M-07	Apply IT for Communication (Internet)
M-08	Perform General Maintenance (Operating System)

- 수업 시간표 : 본 단원이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 교양 수업의 1주일간의 수업 시간표이다. 첫 1년차 수업시간표이며, 올해는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MON	TUE	WED	THU	FRI
8:30 ~ 9:30	Electron I/ Electronic I	Q.S. (Auto-Cad)	Electron II/ Electronic II	N.C.A.T II Class	
9:30 ~ 10:30	Electron I/ Electronic I	Q.S. (Auto-Cad)	Electron II/ Electronic II	N.C.A.T II Class	
10:30 ~ 11:30		Refrigerator/ Air-conditioner	N.C.A.T I Class		
11:30 ~ 12:30		Refrigerator/ Air-conditioner	N.C.A.T I Class		
12:30 ~ 1:00	INTERVAL				
1:00 ~ 2:00	Secretarial Practice	Staff Class (Computer)	Q.S. (Auto-Cad)	N.C.E Class	Secretarial Practice
2:00 ~ 3:00	Secretarial Practice	Staff Class (Computer)		N.C.E Class	
3:00 ~ 4:00	Plumbing/ Mason	Filter II/ Motor II		Wood/ Welding	Filter I/ Motor I
4:00 ~ 5:00	Plumbing/ Mason	Filter II/ Motor II		Wood/ Welding	Filter I/ Motor I

2) 지난 활동기간의 봉사활동 내용 평가

가. 수업 : 지난 기간은 여러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으로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통 1년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 수업도 이에 맞춰서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컴퓨터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지 않은 스리랑카의 실정에 비해서, 컴퓨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은 높았기에 수업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지만,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노력했기에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교양 수업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으로서도 컴퓨터 과목을 확대해서 Coworker와 함께 정규 컴퓨터 전공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적절한 평가를 거쳐서 상부 기관인 [DTET]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교양과 전공 분야 모두 좀 더 체계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 활동지원물품 : 활동지원물품으로써 우선 고장이 나거나 오래되어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컴퓨터 용품을 구입하여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좀 더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정비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가로 네트워크 장비도 구입하며, 부족하나마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하지만 아직 추가적인 하드웨어의 구입과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실에 책장과 컴퓨터 관련 서적을 구입&배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보조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도서 대출 및 반납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다. 기타 : 봉사활동은 수혜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학생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상호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질 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동화되기 위해서 직원회의, 입학식, 졸업식, 졸업파티, 수학여행,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 공식 축제를 비롯한 기관의 대소사(행사)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가능한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향후 봉사활동 계획

가. 수업 :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되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컴퓨터 수업의 커리큘럼에서 빠져있는 인터넷 활용과 네트워크 이론과 실습하는 부분을 확실히 커리큘럼에 넣을 생각이다. 또한 Drawing, Graphic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수업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봉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나. Project : 소규모 프로젝트로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인터넷)과 컴퓨터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실의 낙후된 장비를 수리하고 교체할 예정이며, 기관 내의 모든 컴퓨터를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 수업내용기록 :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일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발표 자료(PPT), 예제로 활용하는 보조 자료, 커리큘럼 및 기타 문서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정리하고 있다. 앞으로 파견될 컴퓨터 분야 단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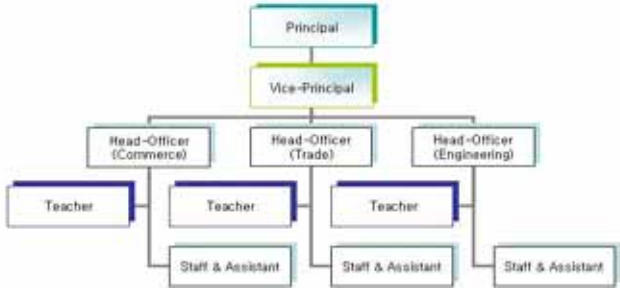
라. 기타 : 현지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열의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 문화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현재 기관 내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분야 단원의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2. 복무기관 반응(Kegalle Technical College)

1) 복무 기관 소개

가. 소속기관개요 : 스리랑카에 있는 40여개의 [Technical College] 중의 하나로서 [Kegalle]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Engineering/ Trade/Commerce]의 3가지 [Section]으로 나뉘어져서 6개월, 1년, 2년 과정의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총인원은 [Academic Staff(Teacher)]와 [Non-Academic Staff]를 합쳐 대략 80명 정도이며, 1년 총예산은 대략 '200,000(USD)' 정도이다.

나. 조직 :



다. KOV에 대한 소속기관의 이해도 : 기존에 많은 선배단원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KOV와 KOICA 봉사단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많은 호의와 배려를 받고 있다.

라. Coworker - Ruwan Indrasena :



오른쪽은 OJT 훈련기간 동안에 Ruwan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Ruwan 으로서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맡고 있다.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

마. 케골 테크니컬 컬리지의 모습



2) 복무 기관과의 관계

가. 복무 기관과의 관계 : 기관장과 Coworker를 비롯해서 기관 내의 대부분의 직원들,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담당 업무 처리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복무 기관의 단원들에 대한 평가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몇 년 전부터 [KOICA]와 관계를 맺으며, 많은 단원이 근무를 했으며 대부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본인 역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기관 직원



▲Coworker와 가장 친한 친구



▲ 기관 사무실 모습



▲ 컴퓨터실 조교



▲Commerce Section Head Officer



▲ 기관차량 운전기사



▲ 기관 직원



▲ 비서







▲ 그 외

3. 주요인사 접촉 활동

- Kegalle Technical College : 기관장, 부기관장, Head Officer 등
- 한국 대사관 : 대사 최기출, 참사관 신재현
- KOTRA : 소장 김양성
- KOICA : 소장 송민현, 부소장 남영숙, 관리요원 박현진, 진용수
- 태권도 협회 : 사범 이기수
- UNV, JICA를 비롯한 다른 해외봉사단체 주요인사

4. 주재국의 일반정세

1) 스리랑카 내전 종식 : LTTE가 5월 17일 패전을 시인하고, 5월 19일에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종선

을 선언함에 따라서, 사실상 26년간의 길었던 스리랑카 내전이 종료되었다.(18일에는 반군 최고지도자인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이 도주하던 중에 정부군의 공격에 사망하였다.) 이 날 스리랑카 행정수도인 콜롬보의 거리에는 승리를 자축하는 인파로 북적였으며, 이는 본 단원이 근무하고 있는 케골 도심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전의 종식으로 인해서 스리랑카는 큰 고비를 하나 넘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26년간의 내전은 10만 명의 사상자(UN 공식집계)와 민간인 학살, 소년병, 인권 유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 스리랑카 내전 주요일지

타밀반군
힌두교분리주의 세력

1948년	실론, 영국으로부터 독립
1956년	싱할리족 정부, 민족주의 운동 전개 자프나 반도 타밀 소수민족 반발
1972년	실론, 스리랑카로 국호 변경 타밀 엘람 호랑이(LTTE) 전신인 '신(新)타밀 호랑이' 결성
1983년	LTTE, 독립국 건설 모색하면서 내전 발발
1990년	LTTE, 북부의 광활한 지역 장악 평화협상 결렬
1993년	리나상에 프레마다사 대통령, LTTE에 의해 암살
1995년	스리랑카군, 자프나 반도 재장악
1999년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 노르웨이에 평화협상 중재 요청
2001년	라닐 위크레메싱헤 총리, LTTE와 휴전 합의 (2002년 2월 공식 발효)
2002년	노르웨이 중재로 체결된 휴전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양측 분쟁 격화
2006년	양측 2002년 휴전 갱신, 10월 제네바 협상 결렬
2009년 1월2일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 정부군이 LTTE 수도인 북부 킬리노치치를 장악했다고 밝힘
5월17일	LTTE, 패전 시인
19일	마힌다 라자팍세 대통령, 종전 선언

< 출처 : 서울신문 >

2) 내전의 원인 : 내전의 뿌리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있다. 19세기 유럽 선교사들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타밀족 지역에 진출하자, 타밀족은 이에 맞서 학교와 사원을 만들고 타밀어 문학을 육성하며 민족 정체성을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영국은 실론섬의 다수민족인 싱할라족과 소수민족인 타밀족에게 동등한 지분을 줬다. 다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심는 전형적인 식민지 지배 전략이다. 독립 후 다수파인 싱할라족은 소수파를 배제한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갈등의 씨앗에 싹을 틔웠다. 싱할라족은 이것도 모자라 타밀인들이 주로 사는 동북지역에 싱할라족을 이주시키는 식민정책까지 추진했다. 타밀어 영화・잡지・서적 등이 금지됐고 싱할라어만 쓰도록 강제했다. 인도계 타밀인들에게는 시민권도 주지 않았다.

3) LTTE : 소수파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가는 이런 정책은 타밀 민족주의를 자극했고, 견디다 못한 젊은이들은 총을 들었다. 1976년 독립적인 타밀족의 나라 '타밀엘람' 건설을 목표로 내건 타밀호랑이가 등장했다. 엘람은 실론섬의 타밀 이름이다. 83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섰던 타밀호랑이는 한때 실론섬의 [1/3]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테러에 의존하고 비타협으로 일관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초래해 자멸의 길을 걸었다.

4) 스리랑카의 과제 '타밀족 껴안기' : 외견상 전쟁은 끝났지만 타밀반군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해외의 타밀 교포들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게릴라전과 테러전이 다시 시작될 위험성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내전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 타밀족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민족 간의 근원적인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실론섬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5) 대선 : 2011년 11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라자팍세 현 대통령은 LTTE를 축출하고 26년 간 이어져 온 내전을 종식한 성과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조기 대선을 치르기로 했다.(헌법상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스리랑카 대통령은 최소 4년 재임 후 조기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LTTE 격퇴를 진두지휘했던 사라스 폰세카 전 합참의장이 최근 쿠데타설 속에 사임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를 결정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강력한 범야권 대선후보로 나선 사라스 폰세카 전 합참의장이 '반군지도자 사살령'에 대해 폭로하면서, 대선의 결과에 따라 세계가 우려했던 스리랑카 내전 막바지의 '대학살'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 기타 특기사항

1) 의사소통

가. 의사소통 : 모국어인 싱할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영어와 타밀어도 공용어로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적은 비율의 현지인만이 영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현지인과 친분을 쌓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어의 습득이 필요하다.

나. 현지인과의 의사소통 정도 : 스리랑카에서 생활한지 1년이 넘으면서 현지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아직은 영어의 사용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가능한 싱할라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수업을 할 때도 싱할라어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인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 현지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기회도 많이 만들고 있다.

2) 현지주민과의 친숙도

가. 현지주민과의 친숙도 : 홈스테이 기간 동안에 Coworker의 집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Coworker의 가족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또한 기관에 꾸준히 근

무하면서 기관 내의 대부분의 Staff들과 알게 되었으며, 기관 대소사 및 직원들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는 스리랑카 현지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상당히 깊어졌다.

나. 한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 :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또한, 한국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열의 도 높은 편이다.



▲절친한 현지인 친구



▲학교 직원 결혼식



▲단체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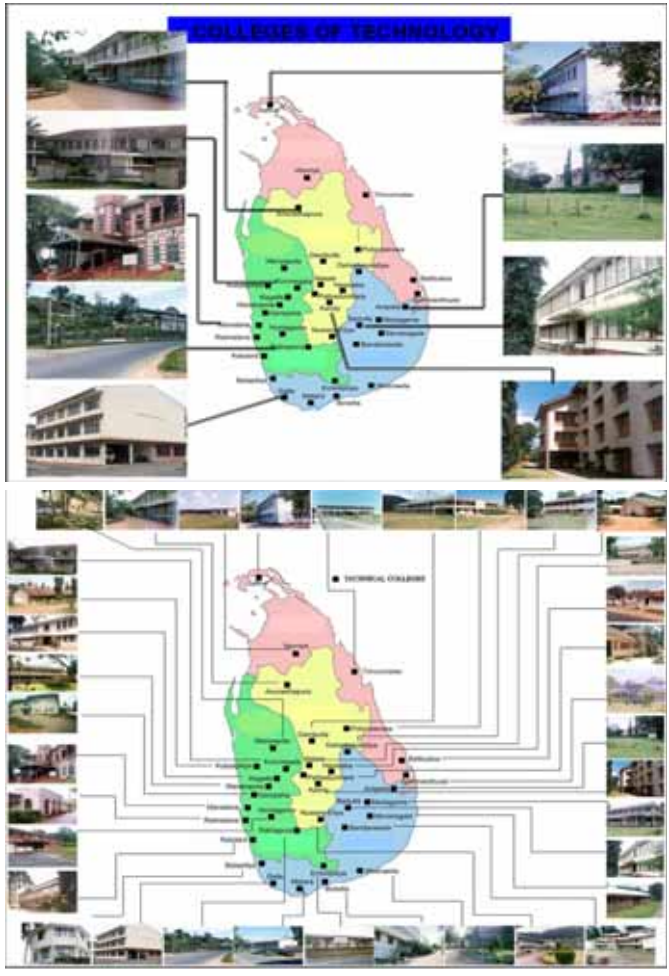
3) Department of Technical Education & Training

: 본 단원이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컬 컬리지(Technical College)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적고자 한다. 테크니컬 컬리지는 스리랑카 공식 교육 기관으로서 [DTET : Department of Technical Education & Training]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략 40여개가 스리랑카 전 지역에 퍼져있다. 그 가운데 각 지방을 대표하여 테크니컬 컬리지가 승격된 8개의 [College Of Technology]가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참고 하길 바란다.

(Ministry of Vocational and Technical Training: http://www.techedu.gov.lk/index.php)

▷ Kegalle Technical College ◁	
Established in : 1964	Address : Technical College, Kachcheri Road, Kegalle.
Province : Sabaragamuwa	
District : Kegalle	
Zone No : 03	Tel: 035-2222441
Located at : Kachcheri Road, Kegalle	Fax: 035-2222441

▷ 스리랑카 전지역의 TECHNICAL COLLEGE ◁



4) 주요 행사

가. 부탄의 교육인사 초청(2009.5.26) : 스리랑카 정부에서 부탄의 주요 교육인사를 초청하여 테크니컬 컬리지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본 단원은 이날 컴퓨터 분야의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하였다. KOICA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고로 부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나. 전체 기관장 간담회(2009.11.20) : 콜롬보 Cinnamon Lakeside Hotel / Kings Court에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봉사단원 활동사례를 발표하였다. 전체 봉사단원과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였다.







다. 기관 직원 은퇴식(2009.12.29) : 2009년도가 끝나가면서 정년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기관 직원들에 대한 은퇴식과 점심 파티가 있었다. 축하드리는 의미로서 작지만 돈을 보태어 선물을 마련해드렸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예의범절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서만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인도네시아	성 명	박 신 혜
파 견 일	2008. 12. 22	활동기관	SMKN 10 BANDUNG
파견분야	컴퓨터	작성일자	2010.11.19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지역	반둥
파견 기간	2008년 12월 22일 ~ 2010년 12월 22일
대상	SMKN 10 Bandung (예술고등학교) 1. Seni Karawitan (전통음악학과) 2. Seni Tari (전통춤학과) 3. Seni Teater (연극학과) 4. Seni Musik (실용음악 학과) 5. Seni Broadcasting (방송학과) *2010년 신설 학생 - 784명 선생님・직원 - 108명
업무 활동	1. IT교육환경 선진화 사업 (현장 사업, 물품지원 사업) 2. 교육 (컴퓨터 정규수업, 선생님・직원 교육, 한국어 수업) 3. 정보센터 관리・운영
사업 결과	1차 활동물품 지원 사업 (2009년 2월 ~ 4월) - 프로젝터기 ($883) 2차 활동물품 지원 사업 (2010년 4월 ~ 6월) - 컴퓨터 4대 ($1,115) 현장사업 (2010년 1월 ~ 4월) - 컴퓨터 42대 ($15,744) 총 사업비용 ($17,744) 총 4개의 정보센터를 구축

	Lab 1 컴퓨터 정규수업을 위한 정보센터 담당 관리자 : Agus Sobirin	
	Lab 2 컴퓨터 정규수업을 위한 정보센터 담당 관리자 : Januar Efendi	
	SAS (Self Access System) 학생들을 위한 자유 정보센터 담당 관리자 : 박신혜 → Resol	
	Ruang Informasi 선생님과 직원을 위한 자유 정보센터 담당 관리자 : 박신혜 → Resol	
활동지원 물품처리		컴퓨터 46대, 프로젝터기(SANYO PLC-XW60), 기타물품 (책, 프로그램 CD 등) 기증
문제점 및 대책	단원의 귀국이후 코이카 지원 사업결과로 만들어진 자유 정보센터와 컴퓨터 교육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운영자가 선출되어야함. 기관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Resol에게 위임하기로 함.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기관장	Mrs. Wiwi Siti Zawjyah (직함 - 교장) 2010년 1월 유네스코 회의 참석 차 한국 방문. 그 외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업무 상 해외 출장 경험이 많음. 일본 학교와의 자매결연 체결, 미국봉사단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유치 등 글로벌 마인드로 학교발전에 힘쓰심. 상황 판단력이 빠름.	

코-워커	Mrs. Enung Suparyati (직함 - 교감, 영어교사) 영어구사 능력이 수준급. 영어를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 항상 단원을 배려하여 단원의 이야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 단원의 의견제시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협력체계를 갖춰주심.	
장점	- 단원 능력과 상황에 맞게 업무를 부담. - 외부행사가 잦아 코이카 홍보기회가 많음. - 단원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 - 새로운 제안 시 호응도가 높고, 최상의 대안을 함께 모색함. - 상황 마다 적합한 담당자를 붙여 함께 의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전문 네트워크 관리자가 있어 추후 시설 유지·보수 등 자립 가능.	
단점	예술학교의 특성상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공연이 잦아 그에 따른 준비와 참가로 규칙적인 교육이 힘듦.	
관계	예술학교라는 활동적인 특성과 순다족의 특유의 쾌활함과 긍정적인 사고로 기관사람 모두가 단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 외국인에 대한 배려,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음 .	
향후지원 체계 및 협력관계	컴퓨터분야의 지원은 충분함. 향후 기관의 자립으로 가능. 2011년 음악교육분야의 코이카 단원이 파견될 예정임. 새로운 코이카 단원에 대한 사무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이곳 인도네시아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같은 대중문화로 인해 한류의 영향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이고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코리아홀릭' 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열광적인 모습들 때문에 자칫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우월주의가 생길 수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장학생 선출을 위해 아이들에게 에세이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평소 생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의 속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한국문화처럼 알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 더 깊게는 저작권문제까지 걱정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이카의 새로운 슬로건인 World Friends Korea는 일반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개도국에 친근한 친구로 다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문화의 전달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상호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자신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단원에 대한 시선이 더욱 호의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함께 생활함에 있어 이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이들 문화에 빠져 함께 동참하고 현지인 보다 더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모습에 자신들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World Friends Korea라는 이름이 걸맞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생각은 접어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단원 자신에게도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도 훌륭한 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과의 생활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내 바른 행동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되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 나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한국의 잣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행동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단원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Kangsreng 순다전통춤



▲Kacapi 순다전통악기



▲순다 전통의상



▲순다 음식 배우기

4. 파견지역 연구

- 반둥개요

자바의 파리! 인도네시아 제 3의 도시 반둥을 일컫는 말이다. 반둥은 자바섬 내의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아 자카르타의 인구밀도를 넘어선다. 해발 700m 고원에 위치하여 평균 22~25도의 시원한 기후로 생활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수도인 자카르타와는 육로로 2시간 30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이 발달되어 있어 다른 도시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담리, 택시, 앙꼿, 오젝 등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어 반둥 내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 교통체증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병원, 쇼핑센터, 공공 기관 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30여개의 대학을 보유함으로서 교육의 도시로 손색이 없다. 반둥사람들(순다족)은 예의바르고 온후하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고장이자 미인이 많은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1954년 4월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반둥회의로 인해 반식민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인니 독립운동의 주체와 민족주의자들을 대거 배출한 자긍심을 지닌 역사를 지녔다. 인니가 자랑하는 반둥공대(ITB)와 항공기 제조 공단을 보유한 첨단의 도시이다. 지학박물관, 동물원, 갤러리 등 볼거리가 많이 있다.

사업은 섬유사업이 발달되어 있다. 공장과 창고 등에서 나온 옷들이 아울렛으로 흘러 들어가 아울렛에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다. 이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주말이면 자카르타 등 인근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또 이에 따른 여파로 외식 사업도 발달되어 있다. 특히 고산지대에 있는 카페촌에서 서늘한 기후를 즐긴다. 섬유사업의 발달로 쇼핑과 외식 사업 등 관광사업도 함께 발전했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한인회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식당, 한국슈퍼가 있고, 최근 롯데마트가 개점했다.



▲ 반둥회의 기념관



▲ 지학 박물관



▲ 반둥 동물원



▲ Factory Outlet



▲ 교통체증



▲ 반둥 역



▲ 한국 식당



▲ Dago 카페

- 한인사회

80년대부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이 반둥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반둥이 서늘한 기후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적당한 습도가 섬유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착은 그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섬유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도 상당수이며, 봉재, 비철 금속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일구고 있다. 교육의 도시인지라 유학생과 선교사도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다. 반둥 한인회는 1992년 4월 출범. 교민들 상호간 친목을 쌓으면서 가능한 부분에서 상부상조하고 단결을 통한 관계 증진으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조국에도 이바지 한다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반둥한글학교

반둥에는 한국학교가 없다. 한국자녀들은 보통 3군데의 외국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성장과정에서 익혀야 할 우리의 말과 글이나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체득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의 특성상 절대 부족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1991년 10월 한 교회의 부설로 토요 한글학교가 생겼고, 이를 1997년 8월부터 한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12시 까지 한글학교가 운영 되고 있다. 한글학교에서는 한글교육 뿐만이 아니라, 태권도, 한국동요, 미술, 한문, 중국어 등 각 분야에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학교를 위한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체육대회, 체험학습,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 본 단원도 현재 한글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한글학교에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KOICA 단원들의 봉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단원생활에 있어서 한국교민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단원도 1년간은 한국교민과의 접촉을 피해 생활하였다. 너무 한인사회에 빠져 사는 것은 나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교민사회에 봉사하면서 교민과의 유대를 쌓는 것도 코이카의 이미지 향상과 교민들의 코이카 활동의 협조를 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지에서 단원활동을 직접적으로 보는 한국인들은 교민이고 이들을 통한 지원과 시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5. 기 타

- SHINE 장학금 (BEASISWA SHINE)

2010년 제 1회 Shine 장학금 전달식				
				
목 적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꿈을 꿀 여유도 없다. 라는 이들의 편견을 깨고, 학생들이 모든 여건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만 생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와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함. 아울러, 마음껏 꿈을 꾸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기 위함 이다.			
용 도	학생들의 꿈을 위한 장학금 이어야하고, 장학금은 꿈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 정	매년 1회씩 선출 (르바란 연휴 이후) - 일정한 기간 장학금 공고 - 지원서, 에세이, 장학금 사용계획서 제출 * 에세이 내용 자신의 성장배경 등 자기소개와 꿈을 꾸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 - 에세이 평가 및 선출 (평가위원 - 박신혜, 교사 1명) - 합격자 발표 - 장학금 전달 - 5주간의 장학금 사용 - 장학금 사용 결과보고서, 영수증 원본 제출			
요청사항	필요한 조치사항은 모두 갖춰 놓고 귀국할 예정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추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코이카 사무소의 협조를 요청함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태 국	**성 명**	이 수 진
파 견 일	2008. 03. 14	**활동기관**	스리수랏 직업개발센터
파견분야	사회복지	**작성일자**	2010. 02. 14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 Social Activities

(1) 프로그램 - 종이접기, 미술요법,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요법

(2) 진행시간 - 주 5회 (소요시간 - 1시간)

(3) 대 상 자 - 기관 내 정신질환자, 임산부, 적응단계 대상자

(4) 내 용 - 풍선요법 미술요법등의 활동요법 : 각종 활동을 통해 여러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동시 소근육 훈련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며 기관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

- 레크레이션 등을 비롯한 활동 요법 등의 단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동기 부여

(5) 결과 및 성과 - 임지 초반 단원의 활동요법에 대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활동요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시간표도 형성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담당자도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6) 문제점

① 대상자들이 입소후 1~2개월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이 직업훈련으로 가게 되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없는 소수의 정신질환자, 임산부 대상자들만 남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추후에는 이들의 관심도도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②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지정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여 자신의 담당 시간이 되어서도 대상자들을 방치해 두고는 "나는 잘 모른다, 니가 생각을 좀 해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해 이에 책임감이 필요하다.

(7) 대책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원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정보들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기관의 몫이라고 본다.

(8) 관련사진



▲미술요법 중



▲풍선 만들기 중



▲레크레이션중

2) Life Skills Education Training

(1) 기 간 - 연 중

(2) 내 용 -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 중에서 행동수정이나 일상생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의 문제파악 및 행동수정

- 적응 기간의 초기 입소 대상자의 불안감 감소 및 말벗 서비스

(3) 결과 및 성과 - 임지 초반에는 서투른 태국어로 인해 하고싶은 말의 의미전달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상자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때로는 직원도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과의 관계형성도 원만하여 간혹 직원들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어, 이에대한 보람을 느낀다,

(4) 문제점 및 대책

대상자들과의 관계형성이 잘되어있다고는 하나 봉사단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대상자들과 직원들과의 관계형성의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본다

3) 지역사회 출장 및 교육, 행사 지원, 대상자 관련 출장 지원

(1) 일 시 : 연 중

(2) 장 소 : 수랏타니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장,지역 내 의료기관

(3) 내 용 - 기관 교육 시 행사장 지원 및 사진촬영

- 직원 업무 보조
- 대상자 관리 및 인솔 보조
- 교육 강사 지원
- 기관 내 정신질환자, 임산부,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출장 지원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대상자 들의 본국 송환을 위한 출장지원

(4) 결과 및 성과 - 초반 단원의 업무는 주로 직원들을 도와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일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단원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부분들에 대해 제의하기도 하는 등 초반에 비해 활동부분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다.

(5) 문제점

대부분의 교육 내용의 경우는 전문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 교육부분에 대한 제언보다는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제언밖에 할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6) 관련사진



▲지역 학교 교육 중



▲기관 정기 캠프 중



▲지역 정신병원 출장지원

4) 한국어 교육

(1) 일 시 : 연 중

(2) 대상자 : 기관내 대상자

(3) 내 용 : 기관 내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주 3회 한국어 수업 진행

(4) 결과 및 성과 - 태국내 한국 드라마 및 한국가요 등의 관심이 높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많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5) 문제점

① 대상자들이 입소후 2달정도 적응 기간에 주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후 직업 훈련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 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② 기관 입소 대상자들은 가난한 환경 혹은 각종 사회적 학대 등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많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대상자들의 경우도 태국어는 물론이요 자국의 말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 많다
태국 대상자들의 경우도 50%만이 태국어를 쓰고 읽을줄 아는 경우라 자국어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국어 수업도 가능하리라 본다.

(7) 대책

- 한국어 수업에 대한 욕심 보다는 이들이 알고자 하는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한국의 문화 등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다.

6) 현장지원 사업 진행

(1) 일 시 : 2009년 3월 ~ 2009년 8월

(2) 내 용 : 기관 내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여가활용 공간 조성 사업

(3) 세부사항

- 프로그램 및 휴게실을 위한 활동요법 프로그램실 개보수
- 유아 대상자를 위한 안전 담장 설치
- 여가활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소규모 운동장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

(4) 결과 및 성과

- 프로그램실 확장 및 보수공사로 인해 이전에 비해 많은 인원들의 수용이 가능
-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공간 조성
- 기존의 사용하지 않던 공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짐
- 오후시간 대상자 및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 가능해짐

(5) 문제점

-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가끔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쌓이고 엉망이 모습이 자주 보인다

(6) 관련사진



▲현장지원사업 전 공터



▲현장지원사업 후 소규모 운동장



▲현장지원 사업 후 프로그램 실 앞



▲현장지원사업 전 휴게실 겸 프로그램 실



▲현장지원사업 후 프로그램실 (1)



▲현장지원 사업 후 프로그램 실 (2)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활동기관의 장점 및 단점

① 태국의 사회복지 체계는 약자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면 이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사회 복지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잘 되어서 대상자들이 필요한 곳으로 연계하고 도움을 받는 등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또한 태국내 각종 민간 단체들 및 개인등에게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기관역시 기관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복지 마인드 혹은 인간에 대한 존업성 등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간혹 이런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태도들을 통해 사회 및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대상자들이 또한번 상처를 받는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2) 향후 필요한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태국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등을 충분히 기관 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직원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대상자를 위한 양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질적인 서비스의 향상도 중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추후 한국의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이 타국의 사회복지 체계에 대해 배우고 또한 자신들의 네트워킹 구축에 대한 자료 및 도움을 주는등의 협력자로서의 관계유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3) 단원파견 호응도

기관에서 봉사단원의 파견에 대한 호응도는 높은 편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봉사단원을 신청했던 기관장이 변경되어 현 기관장이 코이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것도 문제일수 있지만, 업무가 확실하지 않은 단원의 상황에 비해 단원 파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후임 단원의 파견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함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1) 활동국가에 대한 이해 및 수용

파견 전 내가 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나라"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기에 초반에는 음식도, 이곳의 문화도 나에게는 "더럽고 냄새나는 나라"의 문화일 뿐이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지낼수록 좋아지는 나라"가 되었다. 타인으로부터 들은 개인적인 견해, 주관적 선입관으로 활동 초반에 적극적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2년의 생활이 불만의 연속이 될 것이고, 근본적인 봉사정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봉사에 대한 개념 정립

태국이 특수한 상황일수 있지만, 대부분의 단원들의 경우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생각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법이다. 2년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봉사활동을 하는 단원들도 있을테고, 혹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거지"라고 생각할수 있는 활동을 하는

단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과 비교 하지 말자, 내가 이곳에서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들과 잘 있는것"이다. 이들의 문화에서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것도 봉사활동이다.

4. 파견지역 연구

1) 지역명 : 수랏타니 (surattani)

- 선한 사람들의 도시 "city of the good people"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스비차야 왕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2) 위 치 : 태국 남부 14개 주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방콕에서부터 644km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춤펀, 남쪽으로는 끄라비와 나컨씨 탐마랏, 팡아, 라농을 접하고, 태국에서 3번째로 큰 섬인 사무이 섬이 수랏타니의 지역에 속한다.

- 17개의 암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이 섬 주변에 1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러이꺼(100개 섬)"의 도시라고 자랑하기도 한다.

3) 주요 수입원 : 삼림업 - 고목나무, 팜오일나무, 야자수
수산업 - 바다와 강이 인접하여 수산자원 풍부

4) 관광지

① Phara Boromthat Chaiya(프라보롬탓 차이야)
: 1,200년전 스비차야 왕국 시 절 지어진 탑



② Suan Mokkha Phalaram(수

원 목 팔라람) : 흐르는 물의 수도원이라는 뜻의 수안목카 팔라람 또는 왓 탕남라이(Suan Kokkha Phalaram or Wat Thang Nam Lai)는 불교신자들이 참선을 하기 위해 가는 공원 안의 수도원이다.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집(Entertainment Houses for the Soul)"으로 알려진 설법당에는 도덕적 교훈을 나타내는 그림과 시화가 있다.

③ Ratchaprapha Dam (랏차 프라파 크안): 태국에서 제일 큰 인공 댐으로 깎아놓은 듯한 바위들이 인상적이다. 배가 운행하여 호수 안을 여행할수 있는데, 마치 바다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④ Khao Sok National Park (카오속 국립공원) : 수랏타니의 국립공원으로 161,00에이커이며 각종 삼림과 진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다.

⑤ Ko Samui (꼬사무이)

⑥ Ko Phangan(꼬 팡안) 및 Ko Tao (꼬 따오)

5. 기 타

없 음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2010년 04월 28일)

파 견 국	파키스탄	성 명	권 은 영
파 견 일	2008. 06. 30	활동기관	sunrise school
파견분야	사회복지	작성일자	2010. 04. 29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2년 동안 2기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수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Jhelum에서 Rohtas Special Education Center For VHC에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활동 하였고, 현재는 수도 G7에 있는 poor patient welfare center sunrise school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 기관명 : Rohtas Special Education Center For VHC

Rohtas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파견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선임단원이 컴퓨터실을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도 귀국을 한 기관이였기에 컴퓨터실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그림 1 : 학교 전경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되었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위생교육과 장애아동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장애아동들에게 맞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선과제였고,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선택했던 방법이 당근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출석하는 학생과 과제를 끝내는 학생에게 스티커를 제공을 했고, 40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학생에게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에 대한 선물을 주었다. 학생들의 학습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개별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학생 개인 파일을 만들어서 학생의 학습 진도와 시험결과 등을 함께 기록해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동양의 조그마한 여자가 와서 가르치는 것에 탐탁스럽지 않아서 수업을 들어오지 않던 7.8학년의 남학생들이 시간이 지난 후 담임선생님께 부탁해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해서 수업을 개설한 경우가 있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손가락 운동 교구를 만들어서 수업시간에 병행하였는데 지적장애아동들의 경우 짧은 수업시간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장애아동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다. 물품지원을 받아서 하나씩 교구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선생님들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교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제작을 하게 되었다. 제작을 하는 가운데 현지여성들이 잘하는 재봉질의 경우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덕분에 선생님들과 쉽게 교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접근을 해서인지 선생님들의 반응역시 적극적이었다.

대부분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여서 학생들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비누로 손을 씻기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올 때나.. 혹은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에게 손을 씻도록 하였다. 제대로 된 유생교육을 계획했었는데, 진행하기 전에 기관을 변경하는 일이 생겨서 진행하지 못하고 떠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었다. 2년이란 시간이 허락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서둘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준비했던 위생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림 2 : 지적장애아동 학습



▲그림 3 : 컴퓨터 수업

(2) 기관명 : poor patient welfare center sunrise school



▲그림 4 : G7 기관 전경

파키스탄의 안전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 전 기관과는 다르게 NGO이고, 파키스탄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NGO 인데 free medical clinic와

vocation(cutting sewing and tailoring) 그리고 sun rise nursery K.G school 로 이루어져 있다.

medical clinic의 경우 의사가 있어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보건소 보다는 조금 더 영역이 작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을 Rs.20에 지급을 하거나 더 큰 병원에 갈 것을 권한다.

vocation의 재봉질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 연령대는 다양하다. 실제로 재봉질을 배워서 취업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결혼하기 전에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고,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 달에 Rs. 50-100의 수업료를 학생들은 지불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깐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아서 수업진행이 되지 않아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vocation center의 경우 바자회를 운영하는데, 모아진 중고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지역 사람들에게 팔고 그 비용을 center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medical clinic, school, vocation의 재정을 비롯한 담당하고 있는 마담이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입학비와 기타 수입들에 대해서 장부에 적도록 되어있고, 마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장부를 확인한다.



▲ 그림 5 : medical clinic



▲ 그림 6 : vocation center 바자회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 딸려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구제작을 하고 있다. 본 기관의 경우 계절별로 환경미화를 조금씩 바꾸는데 선생님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를 이용해서 새롭게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환경미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체육활동의 경우 처음에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얼마 안남은 시간이여서 선생님들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의 반응과 호응도가 높아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색깔을 익힐 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서 학교에 주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니깐 선생님들이 그 교구를 돌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색깔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NGO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습 욕구는 뛰어나다.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이사회의 역할을 하는 마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센터에 컴퓨터 교실이 생겼는데 선생님들이 알아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마친 후 일정한 시간동안 컴퓨터 수업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다.



▲그림 7 : 수업활동



▲그림 8 : 선생님들 교육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기관명 : Rohtas Special Education Center For VHC

1) 장점

i) 비장애아동들과 장애아동들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다.
비장애아동들과 장애아동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어서 장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이 몸을 숙여서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으면 다른 아동이 그 아이의 신발을 신겨주는 등.. 아이들 서로가 도와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ii) 가족적인 분위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이다. 작은 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인 듯한데 그래서 협조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이다.

iii) 시각장애인학교
젤름에 있는 유일한 시각장애인 학교이다. 고로,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2) 단점

i) 교육체계의 문제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학교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curriculum은 이런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아동들이 방치 되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비장애아동들이 방치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경우 한반에 20명 가까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이 각기 다른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맞는 교육이란 더욱더 기대할 수가 없다.

ii) 시설 문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제장애가 있는 학생이 위층에 있는 자기 교실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건물을 렌트한 거여서 공사비용이 있다고 해도 공사가 가능하지 않다.

iii) 교사간의 극심한 수준 차

선생님들의 교육 수준과 지식의 수준 차이가 심하다. 정부에게 인정하는 교사와 학교에서 고용하는 교사가 있는데, 이 둘의 급여차이와 교육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난다. 학교에서 고용하는 교사의 경우 8학년까지 나오면 고용이 되기도 하는데 본 기관의 경우 8학년을 마친 학생이 바로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고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처음 보는 현지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iv) 선생님들의 직업의식 부족

기관이 있는 동안 교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는데, 교장의 교체가 학교에 주는 영향은 엄청났다. 새로운 교장의 등장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일을 주었고, 긍정적으로 학교가 변해가는 듯이 보였는데, 교장이 자리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교장이 없으면 조퇴와 결근을 하고, 교장이 있으면 수업을 하는 문제 등..

3) 대책 및 향후 필요한 지원체계 및 협력관계

i)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파키스탄 장애인 학교는 정기적으로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보수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에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지만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드물어서 교육을 받고 와서의 피드백작용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ii) 물리치료 또는 특수교육 단원이 필요하다.

기관의 경우 Jhelum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학교인데다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교장의 경우 그런 이유에서 점자프린트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면 컴퓨터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본 단원의 경우 컴퓨터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분명한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훈련 및 학습을 교육시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단원파견호응도

지방학교의 경우 기관에 외국인 봉사자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본 기관의 경우 학교 행사의 경우에는 꼭 참석해 주기를 원했고, 다른 기관과 함께 하는 회의에 참석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도 했다.

(2) 기관명 : poor patient welfare center sunrise school

1) 장점

i)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을 교육한다.

파키스탄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NGO답게 마담들이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아이들의 위생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 것,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등..

ii)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다.

학교선생님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하면 아이들에게 적용한다.

2) 단점

i) 정수시설 필요

학생들의 경우 마실 물을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집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 화장실에 있는 수돗물을 마신다. 함께 활동하는 단원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데, 본 기관의 경우 정수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 문제보다 이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기에 정수시설에 대한 계획을 접은 적이 있다.

3) 단원파견 호응도

예전에 선배 단원이 있던 기관인데 그 때 물품지원을 해 주었던 물건 활용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배우는 것에 적극적인 편이여서 새로운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단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그림 9 : 이사회의 선생님교회



▲그림 10 : 교구활용 수업 모습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1) 변하는 건 나

파견 전 생각했던 코이카의 모습이 그리고 현지의 모습이 어쩌면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상황가운데서도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 버리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늘 같았고, 결국 변하는 건 이 상황에 반응하는 내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미소와 눈물이다.

나에게 파키스탄은 행복을 따라온 길이였다. 그랬던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순간 순간 내가 행복해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국에서 다른 얼굴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상황만이 주는

행복은 분명히 있었다.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 하지만,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난 행복했다. 그들 때문에 나는 울고... 그들 때문에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3) 눈높이를 낮추면 속도를 맞출 수 있다.

현지인들에게도 눈높이가 필요하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는 왜 이들은 움직이지 않지? 일을 하지 않지!?'라는 생각이었다. 이것만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지인들의 모습에 나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러기를 수차례 하다가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이들 나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림 11 : 젤름 학생들과 함께



▲그림 12 : 수도 학생들과 함께

다만 나는 100으로 달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들은 10으로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10으로 달리던 사람에게 갑자기 100으로 달리라고 하는 실수를 나는 하고 있었다. 내가 해야 했던 것은 나는 100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이들이.. 15로.. 20으로.. 달릴 수 있도록 점차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4. 파견지역 연구

지역 명 : Jhelum

1) 위치 및 교통편

펀잡주의 GT Road의 수도와 라호르 중간지점에 Jhelum river을 끼고 있다. 수도에서 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젤름은 군사 도시답게 상당히 넓은 부분의 군사지역(켄트지역)이 있다. 켄트지역은 젤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물론, 켄트지역의 출입은 우리에게 자유롭지는 않다.

☆ 젤름과 수도를 연결하는 교통편

▌버스 이용 시▐

ⅰ) 승하차 위치 : * 젤름 → 수도 : 캔트버스스탑 또는 지하다촉에서 승・하차
* 수도 → 젤름 : 패자바드에서 승・하차

ⅱ) 요 금 : * 젤름 → 수도 : Rs 100 ~ Rs 120
* 수도 → 젤름 : 보통 Rs. 120를 달라고 한다.
(Rs. 100 자리를 만나기는 힘들다.)

ⅲ) 장 점 :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ⅳ) 소 요 시 간 : 2시간 30분 ~ 4시간
중간에 사람을 내려주고 태워야 해서 멈추는 횟수가 많다.
라호르에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젤름에서 탔을 때 승차후 10분후 30분정도 휴게소에 들리는 경우도 있음.

☆ 버스를 이용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벤 이용 시▐

ⅰ) 승하차위치 : 버스와 같음.

ⅱ) 요 금 : 90~100Rs.
앞자리를 달라고 해서 타면 그나마 편하고 아니면 뒷자리에 앉으면 끊임없이 사람이 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 여성단원의 경우 혼자서 움직일 때 앞자리 2자석을 사서 운전사 쪽으로 짐을 놓고 편안히 목적지 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다.

ⅲ) 장　　점 : 앞자리에 앉았을 경우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버스보다 빨리 갈 확률이 높다.

ⅳ) 소 요 시 간 : 2시간 30분~ 3시간.
사람이 다 타면 출발을 하고 움직이는 중간에도 내리고 타고를 반복해서 실제 소요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

ⅴ) 주 위 사 항 : 벤이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고장 시에는 다른 차로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가만히 현지인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별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절대 개별행동 금물!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한다.
젤름으로 가는 GT Road중간에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하는 경우에 강도떼(?)가 습격하기도 해서 경찰들이 있는 거라고 한다

▌택시 이용 시▐

ⅰ) 승하차위치 : 자유롭다

ⅱ) 요　　금 : 수도→젤름 ~ 1300Rs.
젤름→수도 ~ 1500Rs.
(젤름에는 택시가 없어서 수도에서 불러야 한다)

ⅲ) 소 요 시 간 : 2시간~ 2시간 15분

ⅳ) 장　　점 : 빠르고 편하다.

▌젤름에서 칭치 이용하기▐

① 스페셜

ⅰ) 특 징 : 다른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ⅱ) 가 격 : 보통 스페셜의 경우 Rs.80에서 시작을 한다. 거리에 따라서 더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흥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림 13 : 젤름의 주 교통수단 칭치

② 대중 칭치

ⅰ) 특 징 :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이 타고 내릴 때 마다 멈춘다.

ⅱ) 가 격 : 한 구간마다 Rs.10씩이다. 구간마다 칭치를 갈아타야한다.

2) 인접환경

i) 망글라 댐 : 수도에서 젤름으로 가는 길에 디나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디나를 지나 젤름으로 오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면 망글라댐에 갈 수 있다. 댐근처에 유원지처럼 되어있다고 한다.

ii) 로타스 포트 : 망글라 댐으로 가는 곳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오면 로타스포트 표지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8km정도 들어가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티스포트를 만날 수 있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iii) 소금광산 : 젤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소금광산으로 학교 소풍으로 많이 온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으로 유명하다.

iv) 살름기르 : 젤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젤름 시내보다 물건이 싸고 수제품을 많이 파는 곳이다.

v) 젤름 강 : 파키스탄에는 5개의 큰 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젤름 강이다.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림 14 : Rohtas port



▲그림 15 : Jhelum River

3) 편의시설

i) 시장(바자르)



▲그림 16 : 시장모습

우리나라 재래시장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 시장을 가면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한번은 야채를 사러갔는데 야채가게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어떤 사람 멱살을 잡고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우리를 계속 따라와서 야채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한거라고 한다.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위험한 사람도 많은 곳이다.

* 여성단원의 경우 성추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장소이다.

ii) 레스토랑

수도에서는 쉽게 음식점을 만날 수 있지만 Jhelum의 경우 수도에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작은 음식점들이 있기는 한데 외국인 여자끼리 가기에 적당한 식당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

파키스탄 사람들의 경우 KFC를 패스트푸드점이라기보다는 레스토랑에 가깝게 생각을 하는데 Jhelum에는 GT Road 캔트지역 도로변에 한 곳이 있다.

GT Road를 따라서 Jhelum river를 건너면 툴립호텔이 있다. 두 곳 모두 칭치를 이용해서 다녀야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잠깐의 일탈을 원한다면 추천한다.



▲그림 17 : KFC



▲그림 18 : hotel

4) 생활시설

수도의 경우 가구를 갖추고 있는 집을 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가구와 함께 집을 구하는 일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가구뿐이 아니라 안전과 치안을 함께 살펴봐야 하고, 수도처럼 원룸과 같은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주인집과 위아래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i) 전 기 : 전기의 경우 현재 파키스탄전역에 걸친 문제이지만, 이 역시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처음 갔을 때 한 시간에 한 번씩 나가던 전기가 최근 접한 소식으로는 30분 들어왔다가 몇 시간 나가고 원래도 수도에 비해 불규칙 했던 전기가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ii) 수 도 :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집집마다 물탱크에 지하수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데 수질은 말할 것 없이 지저분 한다.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 색깔도 초록색인데다가 필터를 통과한 물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한다. 집을 구할 때 물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탈모와 피부병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iii) 가 스 : 가스관이 설치된 곳도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가스관이 설치된 집들도 겨울이 시작되면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이동식 가스통을 사용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집의 경우 우리네 화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한다. 작년의 경우 3월까지 겨울이라고 말하는데 10월 중순부터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

5. 기 타

1) 다른 단원과 함께

수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른 단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내 일뿐이 아니라 다른 단원들과 무엇인가를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롭지만 재미있는 경험이다.

i) 말하기 대회

느물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른 단원 행사에 도움을 요청 받아서 참석하였다. 다른 단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한국어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림 19 : 말하기 대회

ii) 단원들과 함께한 나눔.

짐을 정리하면서 나온 물건들을 모아서 단원들과 함께 가난한 지역에 나누어주러 간



▲그림 20 : 단원들과 함께

적이 있었다. 타국의 경우에는 단원끼리 모여서 다른 지역에 가서 2박3일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오기도 하고, 놀이터에 페인트를 칠해 준다거나 기타 단원들끼리 활동하고 있는 기관 말고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었는데. 파키스탄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와 치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단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는 코이카다.

자원해서 지원을 했고, 몸은 조금 힘들고 고되지만, 마음에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이카라는 생각을 했다.

따뜻한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이들과 따뜻한 미소를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iii) 대사관과의 협력

파키스탄의 경우 대사관 행사가 있을 때 단원들이 참석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코이카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국경의 날 행사, 패션쇼, 대사님 코이카 호스텔 방문 등... 언제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일 인거 같다.



▲그림 21 : 대사님 호스텔 방문

iv) 파키스탄 투자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

좋은 기회로 파키스탄 투자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림 22 : 투자위원장과의 만남

있었는데,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함에 대해서 깨닫는 좋은 시간이였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2) 코이카 모임

본 단원이 활동하면서 2번의 현지평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단원들의 발표로 단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활동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활동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자신의 활동만 보게 되는데.. 현지평가회라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거나 평가회를 준비하는 동안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정기적인 평가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7월 28일)

파 견 국	파키스탄	성 명	박 유 림
파 견 일	2008. 08. 25.	활동기관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
파견분야	한국어교육	작성일자	2010. 7. 28.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2년간 OEC(Overseas Employment Cooperation)와 NUML(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 한국어학과에서 활동을 하였다. 먼저 2008년 10월말부터 2009년 6월말까지 OEC에서 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통과하여 한국의 기업과 계약을 하고 출국을 앞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9일(후에 7일로 바뀜) 동안 진행되는 한국어 review 강의에 참여하여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말부터 현재까지 NUML 한국어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1) OEC

OEC에서 약 8개월 동안 근무하며 한국어 review 강의에 참여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학생 인원이 50~60명이나 되는데다가(보통 한 class 당 10~15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봄.) 한국어 실력도 제각각이고 모두 학문이 아닌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이었기에 공부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또 수업시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그림 1 : OEC 학생들과 함께



▲그림 2 :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처음에는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음/모음 교육부터 다시 시작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부족해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도 못하고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흥미를 잃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발음이나 문법 같은 요소들은 최대한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화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중에는 학생 수가 20명 정도로 줄고 적을 때는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질문하고 말하기 연습을 시키기에 좋았다.

9일마다 학생들이 바뀌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과 원하는 것들이 달라 강의 계획도 소용없이 매 period마다 수업 내용이 달라졌지만, 그로인해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어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더 배우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좀 가르칠만하면 학생들이 바뀌고 또 좀 학생들과 정들만하면 바뀌고 해서 진짜 내 학생이 없는 것 같아 허무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단기간에 접할 수 있었던 점은 좋았던 것 같다.



▲그림 3 : 수업 마지막 날 파티 중

2) NUML 한국어학과

2009년 6월 29일 현지인 강사 메흐무나가 맡고 있던 여름 특강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NUML 한국어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9년도 2학기에는 초급반을, 2010년도 1학기에는 중급반을 맡아서 가르쳤는데 OEC와는 달리 정해진 교재에 따라 자음/모음 교육부터 발음, 쓰기 연습, 기본문법, 말하기/듣기 교육, 시험문제 출제까지 체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같이 근무한 진혜경, 노은오 선배 단원으로부터 실질적인 교수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올해 3월 10일 개최한 '제 4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본인이 총 책임을 맡아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진행하였다. 행사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것부터 스텝들에게 일 분배하는 것, 초대장, 팜플릿 만드는 작업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고 리더로서의 역할도 쉽지 않았지만 지난 대회 때의 자료들도 남아 있었고 학과의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기관의 선배 단원들에게 도움을 받아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사실 이 행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족하고 놓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림 4 : 2009년도 2학기 초급반 학생들



▲그림 5 : 수업 중

현재는 방학 특강 기간으로 학과장인 아티프와 현지인 강사인 애흐뜨샴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일주일간 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하고 말하기 연습 위주의 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그림 6 : 말하기 대회 행사 포스터



▲그림 7 : 말하기 대회 후 단체 사진



▲그림 8 : 한국 영화 감상 중1



▲그림 9 : 한국 영화 감상 중2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Overseas Employment Cooperation

OEC는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와 협력하여 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통과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과 연결시켜주어 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OEC에서는 두 개의 한국어 강의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EPS-KLT를 대비한 강의로 4~5주간 실시되며, 다른 하나는 EPS-KLT에 합격하여 한국의 기업과 계약을 하고 출국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교육, 문화교육 등 한국에서의 근로생활을 돕기 위한 여러 강의 및 한국어 review 강의로 9일(후에 7일로 바뀜)간 실시된다.

8개월 정도 OEC에서 근무하면서 EPS-KLT 대비반 수업도 참관해 보고 한국어 review 강의는 실제로 맡아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두 강의 모두 체계성이나 필요성 부분으로 문제가 있었다. 먼저 EPS-KLT 대비반은 일단 기간이 너무 짧았다. 아무래도 시험을 대비한 강의다 보니 발음이나 회화적인 면을 배제하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한국에 가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발음 교육과 회화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PS-KLT가 파키스탄에서 2008년 6월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언제 다시 시행될 지도 모르는 EPS-KLT를 위해 무작정 한 달 동안 이 수업을 듣고, 한 달 후 수업이 끝나면 계속 시험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며 공부를 하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하고.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EPS-KLT가 언제 다시 시행될 지도 모르는 일이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발음 교육과 회화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의 성격을 시험 대비반이라기 보다 한국어 초급반으로 바꾸고, 기간을 최소 두 달로 늘려서 발음 교육과 회화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실용적인 수업이 될 것이고, 설사 EPS-KLT가 계속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취업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어 review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출국 전 전에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더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OEC 체계로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본래 예상한 것만큼의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EPS-KLT에 합격한 학생들은 무작위로 선발 되어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에는 운이 좋아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안 되어 뽑힌 학생들(즉, 배운 한국어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험에 합격한 지 1년 혹은 2년이 지난 후에서야 뽑힌 학생들(즉, 배운 한국어의 대부분을 잊어버린 학생들)이 한데 섞여 review 수업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수준이 크게 차이나 강사들도 수업 내용이나 진도를 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고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학생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근로자를 무작위로 선발하는 것을 없애고 EPS-KLT 성적과 그 외 자격증이나 경력 등 능력을 토대로 한국의 기업과 계약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서로 경쟁하게 되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순번이 정해진 뒤에도 뽑히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일 없이 계획을 세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생들의 수준이 맞추어져 한국어 review 강의도 진행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작위 선발 방식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OEC의 선발 체계를 바꿀 수 없다면 한국어 review 강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반을 2~3개로 나누고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린다면 학생과 강사 모두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EC에는 현재 현지인 한국어 강사가 3명이 있는데, 3명 모두 한국에서 5~10년 정도 생활한 경험이 있고 그 중 2명은 NUML 한국어학과를 졸업했다. 강사 3명의 수업을 몇 시간 참관했었는데, 오류도 많고 아직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종종 학생들에게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잘못 가르치면 당연히 학생들은 더 잘못 배우게 되고 후에 그 학생들의 학생들 또한 잘못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OEC에는 무엇보다 한국어 강사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OEC 측에서는 KOICA 단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주기를 더 바라고 본인 또한 학생들을 가르쳤었지만, 우선 현지인 강사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멀리 봤을 때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OEC에는 강사들의 교육을 위한 후임 단원 파견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사들의 한국어 능력 증진과 수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 Department of Korean

NUML 한국어학과는 지난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파견된 장경미 선배 단원은 물론 지난 2008년 4월에 파견된 노은오, 진혜경 선배 단원들이 노력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덕분에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환경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장경미 단원의 현장 사업으로 설립된 '한국어 학습 자료실'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도서관 및 한국 문화 교육의 공간은 물론 선생님들의 연구 공간으로 사용되어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 학습 자료실'에는 600권



▲그림 10 : 한국어 학습 자료실



▲그림 11 : 도서 자료

이상의 한국어 교육 관련 도서와 CD, DVD, 다양한 교구들, 컴퓨터, 프린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09년도 2학기에는 학과 개설 이후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한국어학과 전용 강의실도 확보하게 되어 이제 한국어학과에는 특별히 부족한 점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어 학과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이 파키스탄에서 2008년 6월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현지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파키스탄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현지인들 거의가 학문 목적보다는 취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 한국어 시험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잃은 것이다. 지난 학기까지는 계속 두 class씩 개강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초급반 하나만 개설될 예정이다. 한국어학과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재 NUML 이슬라마바드 캠퍼스 한국어학과에는 교사들이 본인과 학과장을 포함하여 셋 밖에 되지 않는다. 본인도 8월이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원어민 강사가 아예

없을뿐더러 강사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이번 방학 특강 기간 동안 학과장인 아티프와 현지인 강사인 애흐뜨샴의 수업을 5시간씩 정도 참관했는데, 사실 너무 놀랐다. 물론 OEC 강사들에 비해서는 실력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기본 문법, 심지어 한글을 가르치면서도 오류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수업 순서나 방식 또한 어수선하고 설명하면서 예문을 들 때에도 적절치 못한 예를 드는 경우가 있었다. 애흐뜨샴은 경험도 별로 없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학과장 아티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되었다. 한국어는 잘 구사하지만 한국어를 교수하는데 있어서는 기술과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2008년 8월 본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후임 단원이 파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후임 단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대로 된 강사도 없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학과가 존속될지도 의문이다. 파키스탄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더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임 단원 파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1)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라!

기본적으로 모두가 KOICA 봉사단이라는 신분으로 파견되는 것이지만 각자 KOICA에 지원한 이유와 목적, KOICA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것,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를 것이다. 정말 순수하게 단순히 봉사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경력을 쌓고 외국어를 배우거나, 평소 해외의 여러 문화에 관심이 있어 견문을 넓히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면 해외 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며 생활하다 보면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일단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무조건 그들을 바꾸고 이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줄 것이다. 그러면 불편함과 거부감들이 나중에는 편안함과 반가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3) 모르면 일단 부딪쳐라!

어떤 이는 새로운 것을 접하면 겁부터 내고, 어떤 이는 새로운 것을 접하면 용기를 낸다. 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저절로 날 것이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새로운 것이 보이면 일단 용기내어 다가가라. 이 새로운 것들이 나중에는 그리운 것이 되어 마음속 깊이 자리할 것이다.

4)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모든 자유를 행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KOICA는 하나의 조직이며 단원들은 KOICA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써 KOICA의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또 단원들은 파견된 나라·지역의 해외사무소로부터 관리된다. 다 큰 성인들이고 어련히 잘 알아서 할텐데 뭘 그리 간섭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한다는 것'의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된 이상 규정을 어긴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러울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한 명의 잘못으로 다른 단원들이 오해를 받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파견지역 연구

1) 주변 환경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는 일단 계획도시로써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길 찾기도 쉬운 편이고, 각 Sector 마다 중심에 마르커즈가 위치해 있고 마르커즈에는 여러 상점과 식당들이 모여 있어 쇼핑을 하기에도 좋다. 또 F9 Sector는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곳곳에 숲과 나무들이 많이 있으며 지방과 달리 릭샤가 다니지 않아 공기가 좋은 편이다. 또한 지방에 비해 치안 상태도 좋아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이다.

2) 교통

이슬라마바드는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도로망 정비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하기에도 좋은 편이다. 본인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는 매번 택시비를 흥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버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할 위험이 있어 여자 단원들은 웬만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택시기사들이 외국인에게는 돈을 더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때는 요금을 미리 알아본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3) 현지인들의 특성

한국인들이 '빨리 빨리 사람'이라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천천히 천천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것이지만 사실 책임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무슨 일이든 시간 내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늘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나 가스 시설에 문제가 생겨 수리공을 요청하면 제시간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한, 두 시간이면 충분할 것들이 이틀, 삼일씩 걸리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 약속에 대한 관념 자체가 한국인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약속 시간에 30분, 1시간 정도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일 할 때는 천천히 천천히 하던 것이 휴가나 쉬는 시간 같은 것은 정확히 지키는 것을 보면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러한 파키스탄 사람들의 특성에 반해 늘 따지고, 재촉하기보다는 일을 계획하거나 약속을 정할 때 여유를 두는 것이 현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여성의 지위와 활동

파키스탄은 이슬람국가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연상케 한다. 일부다처제이며 남존여비적인 특성이 강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 활동은 물론 심지어 외출까지도 제약을 받는다. 대부분의 지방이 이러한 상황인데 비해, 이슬라마바드는 많이 개방적이고 여성들의 외출과 옷차림도 많이 자유스러운 편이며, 여성들의 교육이나 사회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6월 1일)

파 견 국	필 리 핀	성 명	박 영 실
파견기수	30기	활동기관	TESDA(Pili)
파견분야	한국어교육	작성일자	2010. 05. 31

I. 업무사항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가. 주요 활동 추진현황

▸ [2009년 12월]

- 11월9일 ~ 12월 11일 : 한국어 강좌 진행(여섯 번째 배치)
  - 수강인원 : 24명
- 12월 14일 : 여섯 번째 한국어 강좌 수료식(수료인원 : 22명)
- 수업내용 및 시험관련 피드백
- 12월 23일 : 마욘화산 폭발에 따른 긴급대피령이 발표되어 마닐라로 대피함.
- 12월 23일 ~ : 마닐라 유숙소에서 생활

▸[2010년 1월]

- 12월 23일 ~ 1월 10일 : 마욘화산 폭발에 따른 긴급대피령이 발표되어 마닐라로 대피함.

- 2010년 한국어 강좌 스케쥴 협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한국어강좌 (1강좌/ 100시간)			→ 1	9	→ 3	4	→ 5	6	27	→ 29			100 명

▸[2010년 2월]

- 2010년 첫 번째 한국어 강좌 오픈일 관련 협의

▪ 2010.3.8(월) 개강하기로 협의됨.
학생모집을 위해 수업료는 무료로 운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본 기관(TESDA)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함.
(같은 LSI내 영어강좌는 3천페소(약 75,000원)의 수업료를 적용한다함)

- 2/23(화) 퀘존지역에 위치한 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강의 요청을 의뢰함에 수락

・일시/장소 : 2010.03.01(월) 10am - 12nn / TESDA(Pili)
・강의내용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대상 : 대학교 학생 및 관계자 총45명



-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자료 및 한국음식 체험프로그램 준비
- 수업교재 개발 및 강의 계획서 작성
- 6개월 임기연장 신청서 작성 및 송부
- 2/15(월) 본 단원 인근 지역인 Daet 및 Iriga에서 활동 중인 신규단원(37기) 지역적응훈련의 일환으로 Naga시내 안내.

▸[2010년 3월]

- 2010.3.8 - 2010.4.14(5주)
  : 2010년 1st Batch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수업 진행
  ・수강인원 : 21명
  ・수업시간 : 매일 8am - 12nn(4hrs)
- 수업관련 교재연구 및 교구개발
- 수업 피드백
- 6th EPS-KLT 응시관련 내용이 POEA사이트에 공시됨. 이에 KLT Review과정 개설과 관련하여 기관 및 학생들과 협의한 후 기존 본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자안내 실시함.
  ㄱ. 시험응시 접수 : 4/5,6,7일(3일간)
  ㄴ. 시험일 : 2010년 5월 2일
  ㄷ. 합격점 : 80점 이상(200점 만점)
- KLT Review과정 개설 : 2010.4.5 ~ 2010.5.1
  (TESDA내 한국어 정규강좌 이후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시간정도씩 진행 예정)
- KLT Review과정 개설을 위한 수업자료 준비

▸[2010년 4월]

- 2010.3.8 - 2010.4.14(5주)
  : 2010년 1st Batch 한국어 강좌 진행 및 수료
  ・수료인원 : 19명
  ・수업시간 : 매일 8am - 12nn(4hrs)
- 수업관련 교재연구 및 교구개발
- 수업(시험 및 과제물) 피드백
- 6th EPS-KLT 응시자를 위한 KLT Review과정 개설
  ・수강인원 : 12명(비응시자 포함)
  ・강좌진행 기간 : 4/16~23
    * KLT응시자 3명 중 2명 합격(5/18 POEA 합격자 발표)
      그 외 만약 KLT응시를 하였다면 틀림없이 합격하였을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등으로 응시조차 하지 못하였음.
- KLT Review과정 개설을 위한 수업자료 준비
  ・Listening and Reading
- 활동물품 신청과 관련하여 기관과 협의 및 가격조사
- 활동물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10.04.30 정기 건강검진 실시

▸[2010년 5월]

- 2010.5.12 - 2010.5.28(13일)
  : 2010년 2nd Batch 한국어 강좌 진행 및 수료
  ・수료인원 : 22명
  ・수업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매일 8시간씩 100시간과정)
  ・수혜대상 :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초단기 한국어 강좌를 개강함.



- 수업관련 교재연구 및 교구개발
- 수업(시험 및 과제물) 피드백
- 2010.5.5~2010.5.7(2박3일간) 현지평가회 참석
  ・장소 : 라구나

▸향후계획

- 2010년 한국어 강좌 이수자를 2Batch 배출하였고 이 중 EPS-KLT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이 소수 있었음.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이들을 위해 임기 종료 전에 한국어 정규과정은 물론 KLT리뷰과정을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임.

나. 현지업무 종결 결과

본 단원은 연간 400시간의 강의를 100명의 한국어 강좌 이수자 배출을 목표로 그간 열심히 활동해왔다. 2008년 6월 말경 본 임지에 부임되어 8월부터 본격적인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였고 임기 연장한 현재까지 꾸준히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수업은 2008년 2회 / 2009년 4회 / 2010년 5월까지 2회 실시하여 총 8회(100시간/1회) 실시하였으며 그 이수생 또한 약 150명이 넘는다.

현재 2010년 제 3회 한국어 강좌 개설을 앞두고 있으며 임기 최종 종료 시점인 2010년 11월까지 2회 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 2년만에 재개된 EPS-KLT가 실시되었고 비록 기 한국어 강좌 이수한 학생 중 단 3명만의 응시생이 있었지만 그 중 2명이 합격하는 등 점차 한국어 강좌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며 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본 단원이 활동을 종료한 후 후임 단원이 더 이상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본 단원은 생각했다. 이처럼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종료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마침 EPS-KLT가 2년만에 2010년 5월에 재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 한국어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을 소집하여 이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6개월 더 임기연장을 신청하였고 현재까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본 단원의 임기 연장 결정을 듣고 기관장은 매우 감사하다는 의사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도 같이 기뻐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응원해 주었다.

다. 2년간 봉사활동 총평가 (효과, 문제점 등)

부임 초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및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 당초 계획했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음. 많은 고뇌와 외로움의 시간을 보낸 끝에 앞으로 이곳에서 '나눔'이라는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단원이 취해야만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을 즉각 실천에 옮겨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명확히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활동을 하는 내내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려 하는 모습과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국어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그들의 정성어린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 효과 :

  첫째, 성실하고 국가 봉사 사업에 맞게 잘 훈련된 단원 파견 자체가 국가 이미지는 물론 한국인의 국제적 이미지 또한 고취시킴. 한국인이라고는 선교활동을 하시는 몇몇 분을 제외한 전혀 왕래가 없던 곳에 본 단원이 파견되어 활동기간 내내 성실히 활동하는 모습과 항상 웃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활동하다보니 이 작은 시골지역 혹은 최소한 당 기관에서만이라도 한국인의 이미지가 친절하고 관대함으로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함. 이 지역에 유일한 한국 봉사자로 활동할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이나 최근 코이카 단원들이 본 지역에 파견되면서 몇몇 봉사자들이 불성실한 활동을 하면서 해당 기관과의 마찰이 자꾸 불거지는 행태를 보니 올바른 봉사마인드를 가진 단원의 파견이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느낄 수 있었음.

  두 번째, 한국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현지인들로 하여금 남다른 '한국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음. 파견 초 한국어강좌 오픈을 앞두고 적절한 홍보활동이 동반되지 않아 학생모집이 안되어 오픈일이 자꾸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했었음. 그러나 지금은 계획적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강좌'가 본 기관에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진 듯 함.

  그러나 자의에 의한 등록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기관의 배려로

다른 기술 교육을 이수중인 훈련생들이 매 클래스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비록 타의 반 자의 반으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수업에 참여하면 이들의 제2의 국적은 한국인 것 마냥 늘상 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됨.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늘상 본 단원에게 안부를 묻는다. 좋은 소식을 접하면 같이 좋아해주고 나쁜 소식을 접하면 위로도 해주며 서로 정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스포츠를 보다 한국이 나오면 같이 응원까지 하며 비록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현지인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작게는 개인의 가계, 나아가서는 필리핀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음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필리핀 노동자 해외(한국) 파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년 1회 그 선발기준의 하나로 EPS-KLT(Epployee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Test)가 행해지고 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구사능력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한국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 5월 2일 2년만에 KLT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본 단원도 기존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KLT대비반을 구성하였고 3명 응시자 중 2명이 합격을 하였음. 응시를 희망하는 한국어 이수학생들은 많았지만 접수 비용 및 접수를 위한 수도 방문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해 응시를 포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들의 이러한 도전은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구전을 통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전파되어 100%자의에 의한 한국어 강좌 수강 희망자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무료로 한국인이 가르치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은 필리핀내 본 단원이 활동 중인 기관뿐이다. 본 단원이 활동 중인 기관(TESDA)는 필리핀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코이카 봉사단원 또한 각 지역에 배포되었지만 현재는 필리핀 내 장학금 사업이 중단되면서 2천페소 혹은 3천페소(75,000원 상당)에 상당하는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수업이 중단된 상태임.

이렇듯 적극적인 기관의 배려와 도움으로 인하여 본 단원은 활동을 6개월 더 연장을 하였고 현재 다소 무리한 수업 스케쥴로 감기에 걸리는 등 체력이 저하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연장한 임기만큼 더 활발히 활동하여 조금이나마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문제점 :

지속적인 코이카 단원 파견이 필요 2008년 13명의 한국 봉사자가 한국어 교육분야로 필리핀 전역에 파견되었고, 어떠한 도시는 이미 한국인 유학생 및 이민자가 많이 있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전파함에 있어 꽃을 피우기 위한 작업에 즉각 몰두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본 단원이 파견된 곳처럼 어떠한 곳은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조차 몰랐다가 단원 파견과 동시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라는 씨앗을 파종부터 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어느 지역이든 2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의 활동으로 모든 사업과 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투자 비용과 해당 단원의 노력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분야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현지인 강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한국 연수 기회 부여 등)를 운영하여 장기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파견 초 의사소통 및 문화의 상이성을 인식하지 못해 기관과의 마찰이 있었다. 몇 개월간 고뇌의 시간을 갖고 정신수양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던 상황은 잊을 수 없다. 그 때를 돌이켜보면 중도귀국을 생각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매사 노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니 그 관계는 더욱 더 좋아진 듯 하다. 마치 친구관계에서 "싸우고 나니 더 친해졌다."라고 말하는 이처럼.....

우선 당기관의 co-worker들은 한 분 한 분 모두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와도 같은 친근함이 활동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씬 풍긴다. 이렇게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관장의 성품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 지도자의 성품이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된 듯 하다. 당 기관의 기관장은 평소 업무 시 격식을 갖춰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늘 친근하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등 친구와 같은 이미지이다. 파견 초 당기관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co-worker하고만 일을 추진해야만 하는 줄 알고 자주 마찰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기관장과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수업준비와 관련해서는 각 담당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업무협조를 구하다 보니 업무진행이 원만하고 매끄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부터 당 기관을 포함한 모든 TESDA에서는 장학금 사업을 실시하여 훈련생들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 한국어교육 또한 예외가 아녔고 2008년 2회, 2009년 4회에 걸쳐 한국어 수업을 실시 총 약 100명 이상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기관에서도 강사료가 별도

로 지출되지 않으니 봉사단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형편이었다. 그러다 2009년 11월 경 그동안 실시해 온 장학금 사업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를 선포(사실상 중단)하며 훈련생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른 기술훈련이야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취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학비를 부담하고서라도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국어와 영어강좌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이에 모든 TESDA에서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어 강좌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본 단원이 활동중인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도움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무료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현재 전국에 있는 TESDA 중 당 기관에서만 무료로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한국 봉사자인 본 단원이 도움을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에서 본 단원, 한국인 봉사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아무런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등의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소 제공에 따른 전기세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관에 항상 감사하며 매사 더 열심히 활동하려 애쓰고 있다.



▲ 기관전경(정면)



▲ 기관 트레이너



▲ 기관장, 필리시장, 단원



▲ 한국어강좌 강의실



▲ 한국어강좌 강의실



▲ 한국어강좌 강의실

가. 향후 필요한 지원 체계 및 협력관계

앞서 보고했듯 본 기관의 기관장은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며 업무 추진력 또한 우수하다. 현재 당 기관에는 한국어 강좌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 냉장고 및 에어콘 수리, 전기분야, 용접, 정육인 양성, e-tesda, 영어 등 많은 분야에서 훈련생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당 기관의 지도자는 물론 그 직원들이 진취적 마인드로 항상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노후한 장비 및 열악한 시스템은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 본 기관은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실제로 이곳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후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 취업의 기회를 잡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은 본 단원이 파견되어 앞서 언급한 한국취업을 희망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EPS-KLT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기에 한국어 교육분야 후임 단원 파견 및 그 외 한국의 선진기술(용접분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단원을 한 명 더 파견한다면 이는 기관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필리핀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용접분야 강사는 본 기관의 수퍼바이저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5년동안 일한 경험이 있고 항상 본 단원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은 친절한 기관 동료중의 한 명이다.

필리핀 전 국민이 TESDA에서 양질의 기술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이곳의 훈련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곳에 코이카의 선진기술을 보유한 인적, 물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훈련생들의 자립과 필리핀 국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본 단원 파견이래 신규단원이 파견되었다. 한 단원의 경우 필리핀 파견 전에 2년동안 타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현지적응함에 있어 본 단원의 도움이 필요없을 정도로 탁월한 현지 적응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이외 단원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9/2 ~ 9/4 ojt 기간 동안 감기 등 단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관에서 준비한 거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9/22 부임후에도 현지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임지 신규단원의 현지 부적응 사례를 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관장 및 코워커와의 만남을 자꾸 회피하는 듯 보였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서로 오해가 쌓여 급기야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듯

보였다. 그 이후 기관의 코워커와 함께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차례 몇 집을 방문해봤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적당한 집을 찾지 못했다 한다. 당시 그 신규단원은 해당 단원의 코워커는 자기에게 집을 추천해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등의 몇가지 기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으나 본 단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관도 기관나름대로 몇 개의 집을 추천하였으나 추천한 집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추천자 입장에서도 흥이 나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생각한다. 본 단원의 경우도 그렇고 같은 동기의 신규단원도 그렇고 모두 기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알맞은 주거를 찾기 위해 본인 스스로 열심히 발품을 팔게 마련인데 이 단원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밥을 떠먹여주기를 바라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이렇듯 선배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았을 때 신규단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지적응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한다. 또한, 모두가 완벽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현지에 파견되는 것은 아닌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꾸 만남을 피하려하는 소극적인 자세 또한 현지적응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타 기관 및 타 동기 단원들의 기관과의 비교 또한 크나 큰 장애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동기의 기관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자신의 기관은 자신을 홀대한다며 자꾸 불만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봉사자 자신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해 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외 사무소 및 본부에서 당 기관에 후임단원 파견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파견되게 된다면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도구 및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길 권하고 싶다. 본 단원의 경우 파견 전 한국문화원 및 한국주재 필리핀 문화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그 자료들이 한국어교실 환경정비시에 많이 유용했고 또한 학습자 및 한국어 교실 방문자들에게 흥미유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다. 개인 봉사자뿐만 아니라 KOICA측에서도 한국어 교육분야에 한복(남녀 한쌍의 한복) 등을 제공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물자료들을 제공해주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전파함에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어 교육자료에 관해서도 웹상에서의 리서치를 통해 다양한 레벨로 준비하길 권하고 싶다. 책으로 가져와도 좋지만 무게의 제한이 있으므로 파일로 가져와 한국어 강좌 수료한 학생들이 셀프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서 혹은 한국어 강좌 이수 기념으로서 제공해도 효과 만점이라 생각한다.

4. 파견지역 연구

나는 이 곳 Bicol지역을 사랑한다. 나는 이 곳 Bicol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곳 Bicol지역에서 2년간의 한국인 봉사자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아직도 '봉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또한 '봉사'에 대한 거창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때론 이 점이 한국인 봉사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게만 느껴졌고 자격미달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나눔'이 무엇인지는 안다. 내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픈게 물질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행복하게 사는 법!! 이것보다 더 갚진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을까? 본 단원이 한국에 있을 때 늘 '일'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의 존재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니 당연 맘이 편한 상대는 아녔을 터, 그 스트레스는 위에 부담을 주었고 그래서 그런지 나의 표정은 늘상 찡그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늘상 달고 살았던 위의 통증도 없고 입안에 먼지가 들어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상 웃고 떠들며 돌아다닌다. 지난 5월 현지평가때 오랜만에 만난 동기가 걱정어린 목소리로 묻는다. "언니 입가와 눈가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난 그 말을 듣고도 속상하지 않다. 그것은 많이 웃어서 생긴 것이니까!! 2년동안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통해 잃은 건 뭐고 얻은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 경력 부재, 자기계발 누락, 경제적인 면 등등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잃은 것들이라고 해야하나?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은 파견 초에는 그들을 많이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지만(사실 지금도) 오히려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만 그득하다. 그러면 '경력부재'? 이 또한 물론 한국어교사로서 나의 직업을 택하진 않을거지만 어찌되었든 나의 장래희망과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니 이 또한 내 경력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리라 믿는다. 그러면 '자기계발 누락'? 이는 절대 아니다 비록 유창한 회화는 할 수 없지만 영어와 현지어가 남지 않았는가...

난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난 이곳에서 정말 따뜻한 배려를 늘상 느꼈다. 난 이곳에서 어떻게하면 행복해지는 지를 느꼈다. 파견 초 이곳의 생활은 단순하고 뭔가 축 늘어지는 분위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복잡함을 싫어한다.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또한 축 늘어지는게 아니라 느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것이다. 요즘 나는 나도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들처럼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급해하지 않고 느림의 여유를 재경험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II. 기타사항 : 봉사활동을 마치는 소감

아직 봉사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임기동안 목표했던 바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년간의 동행, 그 아름다운 도전

2010년 귀국단원 우수 최종보고서

아프리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Ⅱ



KOICA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르 완 다	성 명	최 선 영
파 견 일	2008. 11. 21	활동기관	ESSA Ruhengeri
파견분야	과학교육	작성일자	2010. 09. 15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1. 활동 보고

1) 활동 종합 보고

- 기 간: 2009년 1월(기관파견 월)~2010년 9월(현재)
- 주요 활동

기관 활동	학생 대상 수업	실험 수업
		특별 활동
	실험실 운영 및 관리	실험실 정비
		시약 및 기자재 확보
		시약 및 기자재 관리
		실험실 사용 지침 마련
		실험실 운영
	교사 교육	실험실 관리 지침서
		실험실 관리 교육 (1차)
		실험실 관리 교육 (2차)
		실험 수업 진행 워크샵 (예정)
	학생 교재 구입	활동 지원 물품
기관 외 활동	구충제 보급 사업	인근 3개 학교 학생 대상
	주택 개량 사업	인근 시골 마을 주택 6채

2) 각 활동별 세부 보고

① 학생 대상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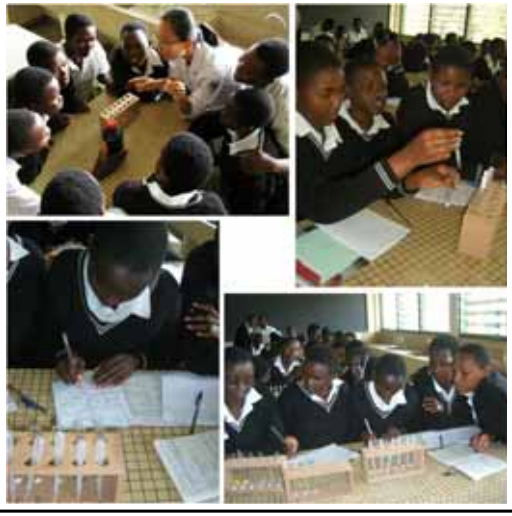
- 실험 수업

		4학년	5학년	6학년	
2009	시수	20주 (40시간)	22주 (44시간)	22주 (110시간)	194시간
	기간	9주차~36주차	9주차~36주차	9주차~36주차	
2010[1)]	시수	17주 (68시간)	17주 (34시간)	17주 (51시간) 수업보조	153시간
	기간	1주차~22주차	1주차~22주차	1주차~22주차	

실험 수업 내용		
4학년	5학년	6학년
실험실 안전 수칙 측정기구 사용법 액체 가열법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과 화합물 요오드의 상태 변화 원소의 불꽃 반응 요오드화납의 앙금생성반응 마그네슘의 연소반응 앙금생성반응	실험실 안전 수칙 전류와 이온의 이동 금속 원소의 반응성 크기 산 염기 반응 산 염기 중화반응 중화반응과 전류의 세기 펠링 반응 은거울 반응 페놀류의 성질 비누화 반응	실험실 안전 수칙 전기분해 몰농도의 제조법 산 염기 중화 적정 완충용액의 제조 농도와 반응 속도 온도와 반응 속도 촉매와 반응 속도 정성분석

수업 진행 과정	
1단계	관련 이론 설명
2단계	실험 과정 설명
3단계	조별 토론: 실험 과정 설계
4단계	조별 실험
5단계	조별 토론: 실험 결과 정리 및 결론 도출
6단계	기구 세척 및 실험대 정리
7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8단계	보고서 피드백

1) 2010년 3학기 부터는 현지인 교사가 전학년 실험 수업을 진행함

관련 사진	

- 특별 활동

물로켓 날리기 대회		
일 시	2010년 3월 12일	
대 상	4, 5학년	
준비물	빈 증류수 병(1L짜리 PET병), 병의 속마개, 자전거 펌프, 고무관, 주사바늘, 물	
과 정	1단계	원리 설명 (공기의 압축성)
	2단계	조별 토의: 물의 양, 발사 각도 등
	3단계	조별 물로켓 제작
	4단계	발사 대회
	5단계	시상
관련 사진		

현장 학습		
1차	일시	2009년 5월 28일
	대상	6학년
	장소	Gisenyi지역, Bralirwa
		Bralirwa는 르완다 최대의 산업시설로, 각종 탄산음료(콜라 등)와 맥주를 생산하는 산업단지이다. 6학년 학생들의 Distillation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문적 접근으로서의 화학에서 벗어나, 학문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자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
	관련 사진	
2차	일시	2010년 5월 20일
	대상	6학년
	장소	Gisenyi지역, Bralirwa
	관련 사진	
3차	일시	2010년 9월 말 예정
	대상	5학년
	장소	Kigali지역, Sulfo
		Sulfo는 르완다 내 비누 생산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공장이다. Saponification을 배우고 있는 5학년 학생들에게 실제 비누 제조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화학의 광범위한 적용 분야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 현장 학습의 주 목적이다.

② 실험실 운영 및 관리

- 실험실 정비

1차	기 간	2009년 1월 13일 ~ 2월 27일
	정비 목적	활동 기관인 ESSA Ruhengeri는 현재의 과학중고등학교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간호보건전문학교로 개교되었다(1987년). 2004년 이후에는 실험실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2006년에 과학중고등학교로 그 학교의 성격이 바뀌었다. 2006년 재개교를 하면서 기관장을 제외한 전 교직원이 교체되었고, 이에 따라 실험실도 완전 폐쇄된 상태였다. 약 4년간 폐쇄되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실험실을 재개방하기 위해서 아래의 업무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업무 내용	- 기존 설비 점검 - 기구장의 재배치 - 사용 가능한 기구 분류 - 기구 세척 및 청소
2차	기 간	2009년 10월 29일 ~ 11월 23일
	정비 목적	2009년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National exam을 위해 RNEC[2]로부터 시약과 기자재가 입수되어, 이들을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물리, 생물, 화학의 실험 실습 시험으로 인해,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를 세척해야 했다.
	업무 내용	- 새로 입수된 시약과 기자재 파악 - 기구 세척 - 기자재 분류
기타	기 간	매 학기 개학 전 일주일 정도
	정비 목적	실험 수업 진행 준비
	업무 내용	- 실험실 청소 - 기구 세척
관련 사진	  〈 National Exam 직후 실험실 모습 〉	

2) Rwanda National Examinations Council

- 시약 및 기자재 확보

입수 날짜	수량	입수 경로	입수 과정
1차 (2009.02.19)	시약 95종, 기자재 23종	기관 및 학부모회 (구입)	· (2009.01.12)기관에 물품 구입 요청 · (2009.01.19)학부모 회의 · (2009.01.29)물품 구매 목록 작성 · (2009.02.02)물품 주문 · (2009.02.19)물품 입수
2차 (2009.06.18)	시약 13종, 기자재 18종	코이카 활동지원물품 (구입)	· (2009.03.25)화학교사 회의/물품 추가 구매 목록 작성 · (2009.04.15)활동지원물품 신청 · (2009.06.02)물품 주문 · (2009.06.18)물품 입수
3차 (2009.10.23)	시약 29종, 기자재 37종	RNEC [3] (입수)	· (2009.09.18-19)National Exam 세미나 참석 · (2009.09.29)District 교육부에 물품 보유 목록 제출 · (2009.10.23)물품 입수
4차 (2010.05.10)	기자재 51종	MINEDUC [4] (입수)	· (2010.04.21)화학교사 회의/ O-level[5]의 실험 수업 진행 결정 · (2010.05.10)물품 입수

3) Rwanda National Examinations Council
4) Ministry of Education
5) Ordinary level. Secondary school의 1,2,3학년(중1,2,3)

- 시약 및 기자재 관리 (라벨링, 리스트업)

<table>
<tr><td rowspan="3">분류
및
정리</td><td>시약
분류</td><td>화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법 사용

<table><tr><td>대분류</td><td>소분류</td></tr><tr><td>무기물</td><td>산, 염기, 탄산염, 황산염, 질산염, 염화물, 황화물, 인산염, 염소산염, 산화물, 기타</td></tr><tr><td>유기물</td><td>알코올, 알데히드, 카르복시산, 방향족, 당류, 유지, 효소, 기타</td></tr><tr><td>훝원소물질</td><td>금속, 비금속</td></tr><tr><td>특수시약</td><td>지시약, 기타</td></tr><tr><td>기타</td><td>대용량 시약, 건냉암소보관 시약</td></tr></table></td></tr>
<tr><td>기구
분류</td><td>용도에 따른 분류

<table><tr><td>분류</td><td>해당 기구</td></tr><tr><td>가열 기구</td><td>알코올램프, 분젠버너, 삼발이, 쇠그물 등</td></tr><tr><td>유리 기구</td><td>비커, 각종 플라스크 류, 시험관 등</td></tr><tr><td>측정 기구</td><td>메스실린더, 피펫, 뷰렛 등</td></tr><tr><td>기타</td><td></td></tr></table></td></tr>
<tr><td>관련
사진</td><td></td></tr>
<tr><td>목록
작성</td><td colspan="2">분류에 따른 목록표(시약 및 기자재 리스트) 작성</td></tr>
</table>

- 실험실 운영 (과목 별 실험실 사용 시간표)

과목 별 실험실 사용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	4학년 B반 (화학)	2학년 D반 (화학)	3학년 B반 (물리)	3학년 A반 (물리)	5학년 (화학)
2		3학년 D반 (화학)	3학년 C반 (생물)	2학년 A반 (화학)	
3			4학년 A반 (화학)	3학년 C반 (물리)	5학년 (생물)
4				2학년 B반 (화학)	
5	3학년 B반 (생물)	2학년 C반 (화학)		3학년 A반 (화학)	6학년 (생물)
6	3학년 A반 (생물)		6학년 (화학)	3학년 C반 (화학)	
7	4학년 A반 (생물)			3학년 B반 (화학)	
8	4학년 B반 (생물)				

③ 교사 교육

- 실험실 관리 지침서 제작

제작 기간	2009년 10월 ~ 2010년 6월
제작 배경	교사들의 실험실 관리에 대한 지식 고양을 위해 지침서를 제작
지침서 내용	1. 실험실 안전 수칙 2. 중등교육 과정의 실험들 (34가지) 3. 시약 제조법 4. 실험실에서 흔히 쓰이는 산, 염기의 농도 5.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시약의 물리적 정보 6. 취급 시 주의를 요하는 시약 7. 시약 별 보관 방법 8. 지시약과 그 변색 범위 9. 무기물의 용해도표

- 1차 실험실 관리 교육

교육 목적	기관 내 과학 교사들의 기초적인 실험실 관리 교육	
참여 인원	5명	
일 시	1회차	2010년 2월 12일
	2회차	2010년 3월 19일
	3회차	2010년 6월 4일
교육 내용	1회차	실험실 안전 관리
	2회차	폐수 및 폐기물 처리
	3회차	시약과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관련 사진	 〈 교사 교육 후. 과학 교사들 〉	

- 2차 실험실 관리 교육

교육 목적	지역 내 과학 교사들의 실험실 관리 능력 고양	
참여 인원	17명 (인근 5개 학교 과학교사 참석)	
	ESSA Ruhengeri(8명), GS Cyabagarura(4명), GS Cyuve(1명), GS Kabaya(1명), GS Musanze I(3명)	
일 시	1회차	2010년 8월 25일
	2회차	2010년 9월 1일
	3회차	2010년 9월 8일
교육 내용	1회차	시약 및 기구의 분류와 보관법 / 시약 제조법
	2회차	실험실 안전 수칙 / 사고 예방과 응급 처치법 / 취급 시 주의를 요하는 시약
	3회차	기구의 기본 조작법 / 실험 수업 설계 / 모의 실험
관련 사진		

- 실험 수업 진행 세미나 (9월 말 ~ 10월 초 예정)

④ 학생 교재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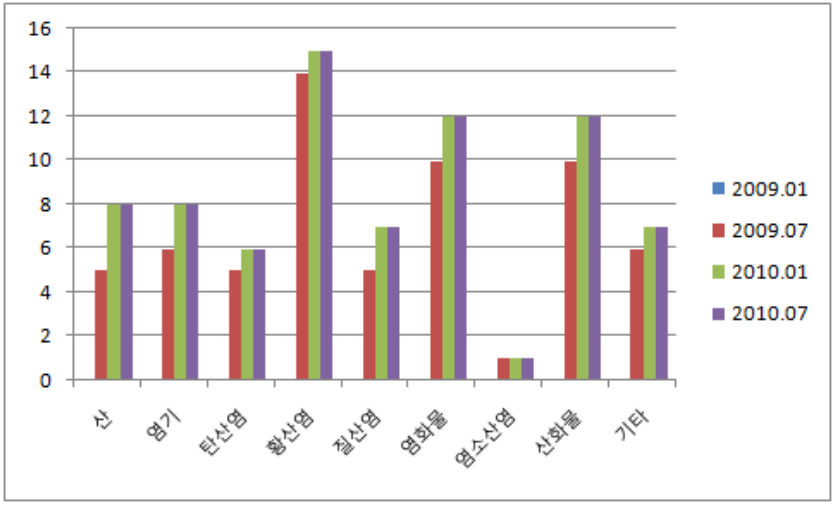
<table>
<tr><td>일 시</td><td>2010년 4월 16일</td></tr>
<tr><td>구입 목적</td><td>2010년 초 교육부에서 O-Level의 학생들을 위한 각 과목의 교재를 배포한 반면, A-Level[6] 학생들의 교재는 없는 상황이었다. 교재 없이 노트 필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론을 응용한 실험 수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코이카 활동지원물품으로 화학 교재를 현지 구매하여 학교 내 도서관에 비치하였다.</td></tr>
<tr><td>구입 경로</td><td>코이카 활동지원물품</td></tr>
<tr><td>구입 내역</td><td>
<table>
<tr><th>도서명</th><th>수량</th><th>비고</th></tr>
<tr><td>MK Secondary chemistry 4</td><td>40</td><td>4, 5학년 교재로 사용</td></tr>
<tr><td>Certificate chemistry 4</td><td>40</td><td>6학년 교재로 사용</td></tr>
</table>
</td></tr>
<tr><td>관련 사진</td><td>
실험 시작 전, 6학년 학생들이 교재를 보며 관련 이론을 익히고 있다.</td></tr>
</table>

6) Advance level. Secondary school의 4,5,6학년(고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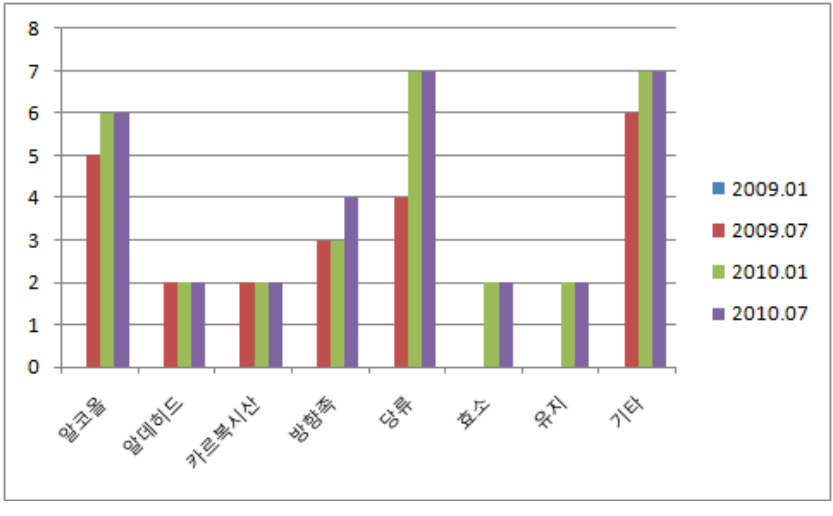
1-2. 활동 결과 및 성과보고

1) 기자재 및 시약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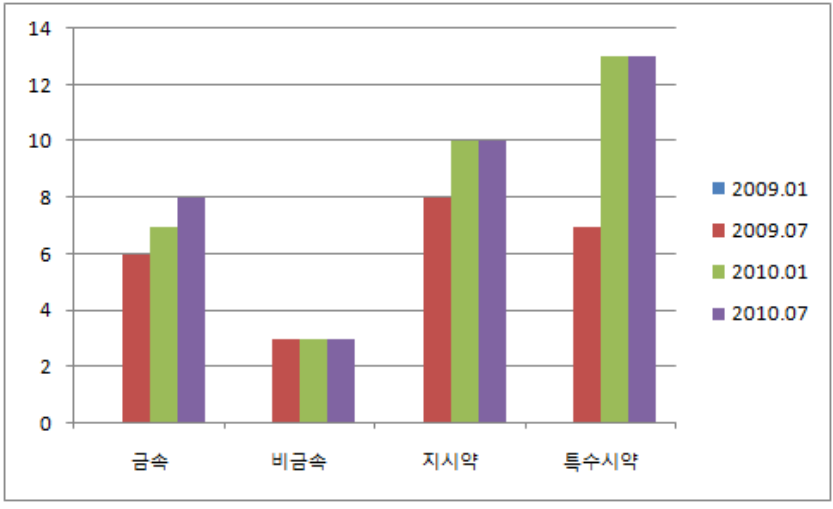
- 시약: 무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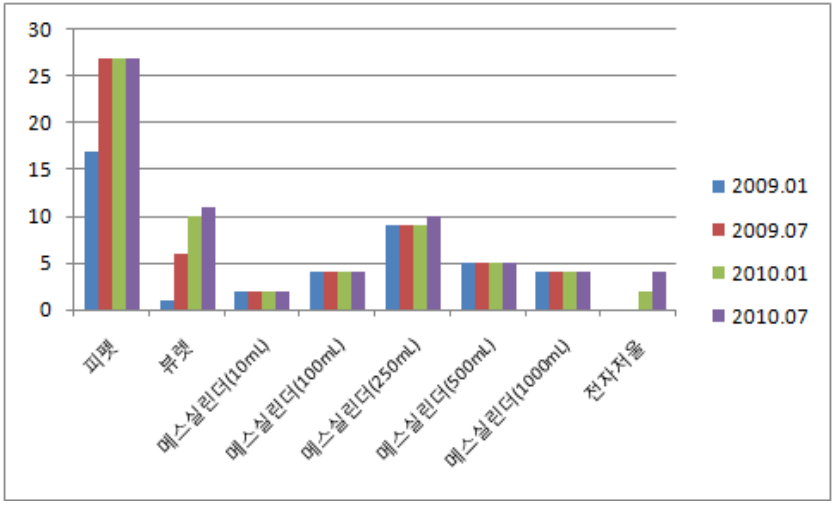
- 시약: 유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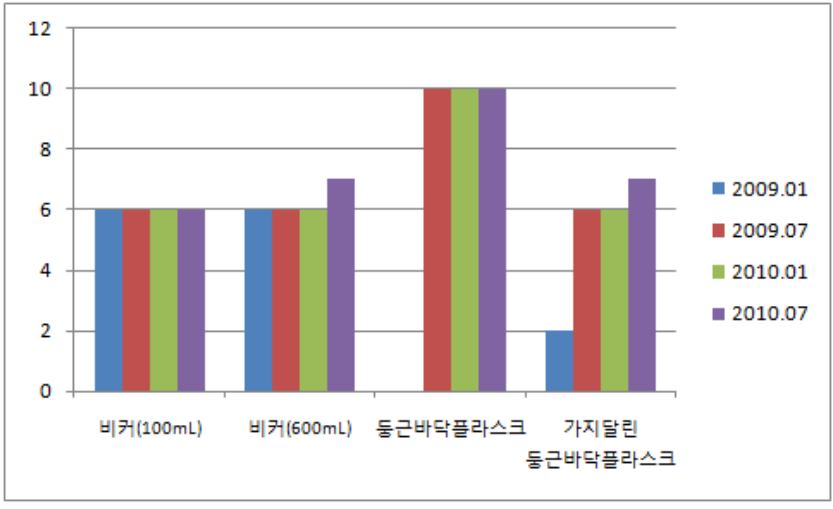
- 시약: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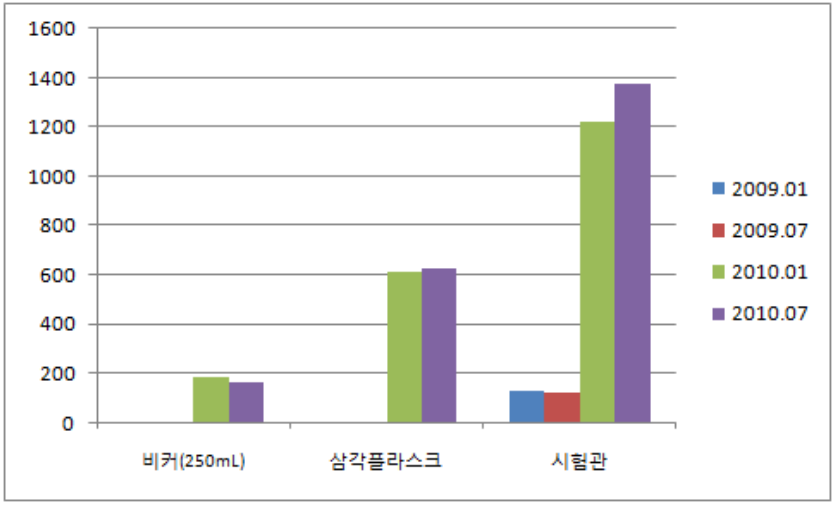


- 주요 기자재: 측정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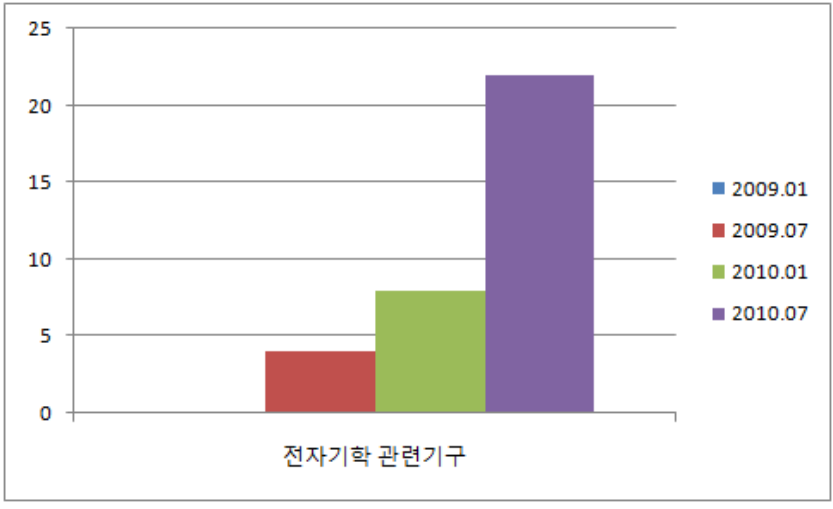


- 주요 기자재: 유리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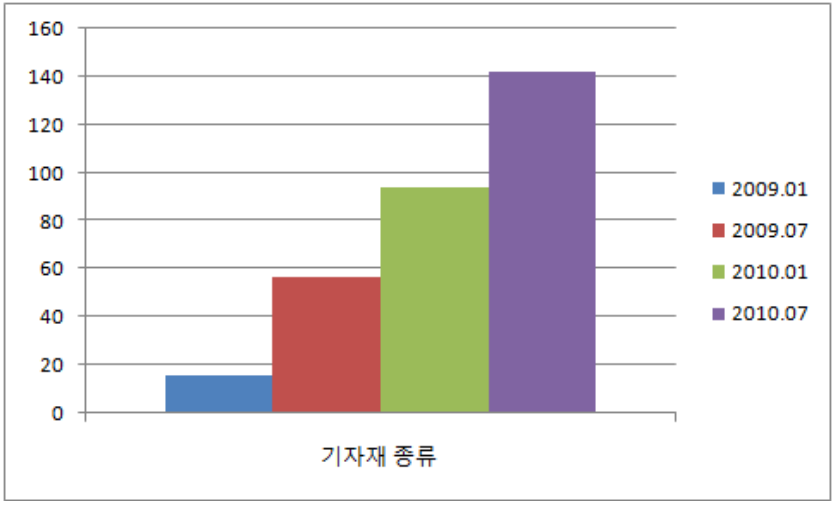

12
10
8
6
4
2
0
비커(100mL)
비커(600mL)
둥근바닥플라스크
가지달린 둥근바닥플라스크
2009.01
2009.07
2010.01
2010.07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비커(250mL)
삼각플라스크
시험관
2009.01
2009.07
2010.01
20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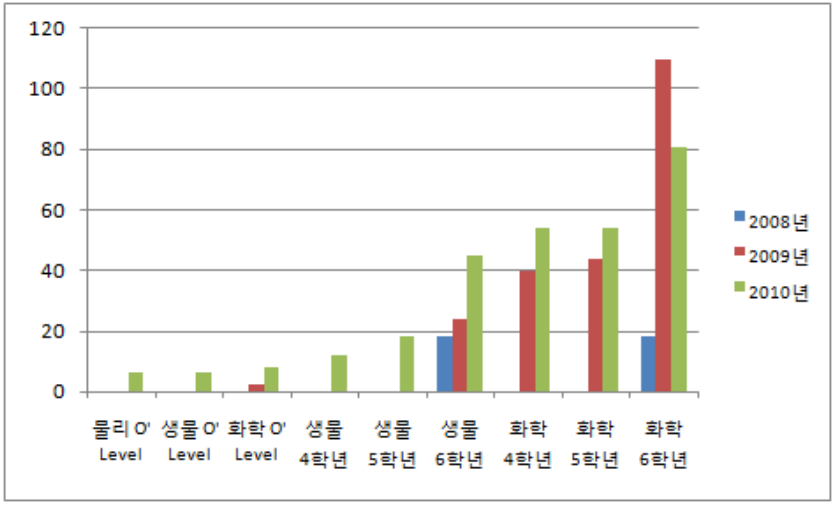
- 주요 기자재: 전자기학 관련 기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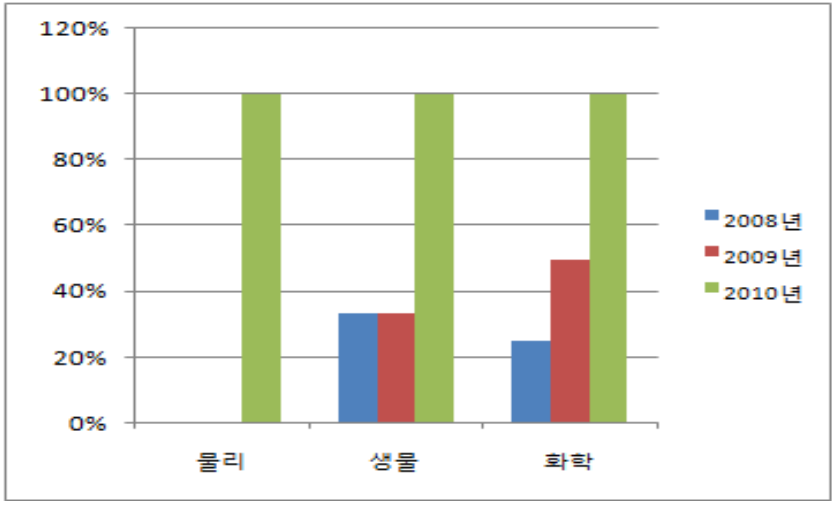
- 총 기자재 종류의 수 변화



2) 실험 수업 시수 변화



3) 실험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 비율 변화



1-3. 문제점

1) 르완다 교육, 이상과 현실의 괴리

: National exam[7]의 실습 시험 비중 증가, 그러나 현실은...

① 2009년 처음 실시된 실습 시험

: 2009년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National exam에서 시험 마지막 3일은 물리, 생물, 화학의 실습 시험일이었다. 90여개의 학교가 고사장으로 선정되어 전국 190여개의 secondary school에서 온 약 만 이천여명의 S6 학생들이 화학 실습시험을 치루게 되었다. 응시자는 주어진 3개의 문항 중 2개를 선택하여 개별 실험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상세히 기록하여 답안으로 제출하는 형식이었다.

올해 National exam은 이론과 실습 시험의 비중이 각 50%씩이며, 작년 실습 시험이 30%였던 것에 비교하면, 점점 실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② 실험실습실조차 없는 대부분의 학교, 그들의 선택

: 사실 르완다의 대부분 학교는 실험실습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산제 지역 내에서도 실험실습실을 갖춘 학교는 11개 학교 중 단 세 곳 뿐이다. 지역 곳곳에 있는 작은 사립학교들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지역 내 실험실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약 15% 정도일 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national exam을 앞둔 S6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타 학교(실험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실험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며, 물론 비싼 사용료를 학교측에 지불하고 있다. 그나마 실험 연습을 한

7) 한국의 수능과 유사한 시험으로, P6(초등학교 6학년)의 Secondary O' level 진학, S3(중학교 3학년)의 Secondary A' level 진학, S6(고등학교 3학년)의 대학 진학이 이 시험의 성적으로 좌우된다.

번이라도 해보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부분은 시험관이나 비이커, 점적기 등은 만져본 경험도 없이 홀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③ 교육에도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 르완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실험 기자재를 각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가장 먼저, 2009년 national exam의 고사장으로 선정된 학교에 national exam에 사용될 기자재 및 시약을 넉넉히 배포하였다. 쓰고 남은 기자재는 자연스레 학교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national exam의 고사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공립학교여야 하고 둘째, 응시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실 및 책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미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대규모의 공립학교들은 national exam을 위한 시약과 기자재를 더욱 넉넉하게 받을 수 있고, 작은 사립학교들은 더욱 더 빈곤해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초, MINEDUC에서는 O' level 학생들의 과학 교육을 위한 기자재를 전국의 각 학교에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공평하게 한 카톤씩 지급되었다. 하지만, 내가 방문해본 사립학교들은 모두 그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비이커, 시험관 등의 기자재가 넉넉한 양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지급되어 수업에 사용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 나에게 사립학교의 한 교장이 이야기했다. "비이커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담을 시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르완다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2) 교사 인식 변화의 어려움

① 에탄올, 마셔도 됩니까?

: 한 화학교사가 실험실에 찾아와 '에탄올을 마셔도 되는지' 내게 물어보았다. 황당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되묻는 내게, '에탄올은 식용알코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주말에 돈이 없어서 맥주를 마시지 못했으니 에탄올이라도 마시고 싶다'라는 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놓았다.

실험실용 에탄올에는 음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메탄올을 첨가한다. 이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학교 소유의 소모품인 에탄올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활동 기간 내내 교사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학교의 것이며 학생의 것이다, 교사의 것이 아니다'였다. 누구든지 원하면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이후부터는 크고 작은 기기들이 종종 없어지곤 했다. 모든 과학교사들이 실험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실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었지만, 공유와 사유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실험실을 개방해야 하는지 몇 개월이나 고민했었다.

② 세척, 청소는 왜?

: 실험이 끝나면 사용했던 기구를 세척하고 실험실 정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활동 초반에는 이것 역시 힘든 싸움이었다. 아무리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현지인 교사들이 사용한 후의 실험실은 활동 이전의 폐쇄되었던 실험실을 재현하는 듯 했다. 모든 학생 실험대, 교사 실험대는 시약과 온갖 기구들이 정신없이 흩어져 있고, 세척되지 않은 기구들은 다 사용한 시약 찌꺼기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왜 수업을 끝나고 정리를 하지 않느냐고 과학 교사에게 묻자,

'그것을 왜 나한테 말하느냐, 청소가 필요하면 학생들이나 학교 인부들을 불러 시키면 되지 않냐'며 도리어 내게 화를 내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르완다 현지 가정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손에 물을 묻히는 것은 이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교사들에게 세척과 청소를 가르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여전히 일부 교사들은 실험실 사용 후 전혀 정리를 하지 않는다. 실험실은 많은 기구와 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정리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활동을 종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실험실이 다시 폐쇄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3) 학생들과의 언어 소통의 어려움

① 교육 정책 상, 킨야르완다어와 불어는 No!

: 2008년 부터 점차적으로 르완다에서는 불어 대신 영어를 쓰고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3학년과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은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했다.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의 모든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② 'Do you understand?' vs. 'Vous avez compris?' vs. 'Muri kumva?'

: 문제는, 기본적인 영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도구로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하는 것이었다. 한참 설명을 하고 나서 'Do you understand?'하고 물으면 절반 내지는 1/3 정도의 학생들만 'Yes'라고 대답한다. 킨야르완다어로 'Muri kumva?(이해 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Oya(No)'라고 답한다. 르완다의 교육방침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을 과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다. 다행히도 실험 과목의 경우에는 시범을 보이는 '보여주기'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었지만, 심도 깊은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1-4. 대책

1) 르완다 교육부에 전문가 파견

: 르완다 교육 방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비해 이상이 너무 높다는 것이 큰 문제인 듯하다. 현재 르완다 곳곳의 학교에서 각종 교육 분야로 활동 중인 코이카 단원은 많이 있지만, 정부 기관(교육부)에서 활동하는 단원은 없는 것이 아쉽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현실성 있는 교육 정책을 개발할만한 전문가 단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로, 르완다 현지 교사들은 안타깝게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월급만 제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서도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있다.

2) 꾸준한 교사 교육

: 올해 몇 차례 교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짧은 기간, 많지 않은 내용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사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언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 밖에..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2-1. 장점

1) 旣 설비되어 있던 시설



▲그림 1 : (왼쪽 위) 실험동
▲그림 2 : (오른쪽 위) 실험동 출입문
▲그림 3 : (왼쪽 아래) 화학실험실
▲그림 4 : (오른쪽 아래) 기구보관실

2) 활동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 활동 시작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실험수업을 요청했다. 실험실 정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사실 수업에 쓸 시약 및 기구가 부족해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답하자, 곧바로 학부모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수업을 위한 시약과 기구를 사게 되었다. 2009년 1월 초에 기관에 파견되었고, 같은 달 회의 및 구매 절차를 거쳐 2월에 그 많은 시약과 기자재가 입수된 것을 보면,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관의 모습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인근 학교에도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ESSA Ruhengeri의 적극적인 협조에 놀라, 구입된 시약과 기자재를 구경하러 실험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또한 코이카 단원이 활동하는 인근 학교들 중에서 단원 활동을 가장 잘 배려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이것은 '르완다'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잣대로 세우지 않고, 항상 한국과 르완다의 차이점을 고려하며 이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영향이 크다. 활동하면서 사실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일의 속도 차이'와 '문화 차이'인데, 이 모든 것에서 배려 받으며 편하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ESSA Ruhenger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2-2. 단점

1) 실험실 전담 관리자의 부재

: 기관의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모든 시설과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만한 실험실 전담 관리자가 없다는 것이다. 기관측에서는 '과학교사들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빡빡한 수업 일정에 치여 하루 종일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지 교사들의 실정이다. 인근의 한 학교를 예를 들면, 그 곳에도 코이카 단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 학교에서는 단원의 후임으로 현지인 실험실 관리자를 새로 채용했다. ESSA Ruhengeri의 실험실 규모를 생각한다면, 관리자 없이 제대로 된 실험실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교사의 전문성 부족

: 과학 교사들 중 일부는 secondary school만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금을 벌기 위해 잠시 학교에서 일하는 '임시 교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려 하지도 않는다(곧 대학에 입학할 것이기 때문에, 즉, 곧 학교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 이러한 '임시 교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3-1. 이론 보다는 실험 위주로 준비

: 활동과 관련해서 조언하자면, 르완다는 IT 못지 않게 과학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이론만큼 실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교육 분야 단원의 경우, 실험실을 구축하거나 관리할 일이 생각보다 많고, 정기적으로 실험 수업을 해야할 경우가 많다. 화학 이론 수업(Chemistry)처럼 실험 수업도 'TP'라는 과목의 정규과목으로 정해져 있다. 다행히도 르완다 내에서 이론 수업 진행을 위한 여러 보교재들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면에 실험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미리 한국에서 실험 수업이나 실험실 관리 위주로 자료를 준비해 온다면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2. Volunteer다운 생각과 마음가짐

: 비단 ESSA Ruhengeri 뿐만 아니라, 또한 르완다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으로 파견되든, '나는 volunteer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요즘 종종 일부

단원들을 통해 듣기 민망할 정도로 현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高자세로 빳빳하게 목을 세우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나도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도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단원 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이 곳에 와서 2년 동안 고생만 하다 가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누리던 생활을 이곳에 와서도 똑같이 누리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루헹게리 지역은 작은 도시라서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에는 더 고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열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적응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 '100'으로 말하는 르완다에서의 2년 >

현지적응훈련 기간	100% 열린 마음. 무엇이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 (르완다 사람들의 암내(?)도, 외국인 특별 바가지 가격도, '니하'를 외치며 따라오는 동네 꼬마들도 모두 다 'Ok. Come on.')
기관 파견 초기	눈치 100단. 현실적인 적응을 위해 최대한 르완다 사람들과 같아지려 함. (길에서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 어눌한 킨야르완다로 조잘대며 'Turi kumwe(우리는 하나)'를 남발함)
파견 6개월 후	짜증 100만개. 모든 것이 짜증과 불평으로 쏟아져 나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 하는가. 저 꼬맹이들은 왜 맨날 나를 놀릴까. 왜 르완다인들은 나를 돈으로만 볼까 등등)
파견 1년 후	시속 100km. 국외 휴가 후 정신 차리고, 이제야 르완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함. 시속 100km보다 빠른 광속으로 온갖 일을 만들어 해나감. (이들은 이토록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난 가진게 너무 많다, 내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
파견 1년 6개월 후	한숨 100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보니 어느새 파견 후 1년 6개월... 그보다는 '귀국 6개월 전'이라는 단어가 더 가슴을 후벼 팜. 난 그동안 뭐했나.. 2년 동안 변해있을 한국과, 2년 사이 애엄마가 되어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함.
귀국 카운트다운	박수 100번. 뭐 어찌되었든 2년간 여기서 잘도 버텨준 내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박수 100번, 짝짝짝짝..

4. 파견지역 연구

4-1. 무산제 디스트릭트(Musanze District) 연구

<table>
<tr><td rowspan="2">위치</td><td>
〈 무산제 위치 〉</td><td>르완다 30개 디스트릭트 중 하나로, 르완다 북부(Northern Province)에 위치한다. 비룽가 화산지대를 사이로 콩고, 우간다와 접경해 있다.</td></tr>
<tr><td>
〈 무산제 지도 〉</td><td>평균 해발고도 약 2000m이며, Busogo sector의 경우 해발고도가 2500m에 달한다.

서쪽으로는 Burera, Ruhondo 두 개의 호수가 있다.</td></tr>
<tr><td>기후</td><td>
〈 2010년 1월 우박 오던 날 〉</td><td>적도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해발고도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르완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평균 강우량 1000-1500mm이며, 연평균 기온은 15-18℃이다.(우기 때에는 10℃이하일 때도 있고, 건기 때에는 24℃까지 기온이 올라간다.)</td></tr>
<tr><td>자원</td><td>농산물</td><td colspan="2">르완다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카사바, 바나나, 쌀의 생산은 적은 편이다. 반면에 감자와 콩의 생산량은 르완다 전역을 통틀어 매우 높은 편이다.</td></tr>
</table>

	수출작물	르완다는 커피와 차(tea)가 주요 수출품목이라고 하지만, 무산제 지역에서는 커피와 차 재배가 적은 편이다.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르완다의 또 다른 수출품목인 제충국[8]은 르완다 전체를 통틀어 무산제 지역에서만 재배된다.
	광물자원	무산제 지역은 광물 자원의 생산이 거의 없다.
	에너지	무산제 내의 무쿵과[9]에서 소규모의 수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 65,000,00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르완다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관광	사실 무산제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는 관광산업이다. 화산국립공원(Volcano National Park)에는 희귀종인 산악고릴라(Mountain Gorilla)가 서식하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따라서 호텔, 식당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는 편이다.

4-2. 무호자 섹터(Muhoza sector) 연구

위치	 〈 무호자 시내 전경 〉	무산제 내 15개 섹터 중 하나로, 무산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또한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주요 시설	학교	Primary 11개교, Secondary 5개교
	병원	루헹게리 종합병원(Ruhengeri Hospital) 및 작은 사설 병원들이 여러 개 있음
	은행	ECO Bank, Bank of Kigali, Bank of Rwanda Development, National bank of Rwanda
	터미널	Virunga, Kigali Safari, International, Belvedere, Onatracom 등 5개 운수업체가 있음
	시장	공산품 시장과 농산물 시장이 각각 시내에 위치해 있음

8) 국화과의 식물로, 살충제의 원료로 쓰인다.
9) Mukungwa. Ruhondo 호수 부근에 위치한다.

5. 기관 외 활동 보고

5-1. 구충제 보급 사업

지역	무산제 디스트릭트 내 3개 중고등학교
	ESCM-무산제 과학 중고등학교, ESSA-루헹게리 과학 중고등학교, ESSV-세인트 빈센트 중고등학교
활동 기간	2010년 6월
수혜 학생	3개 학교 총 1600명
	ESCM-800명, ESSA-350명(16세 이하 학생은 디스트릭트 교육부에서 구충제를 지급함), ESSV-450명
활동 계기	여타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인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2차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자, 르완다 내 보건 위생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무산제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코이카 단원 6명이 협력하여, 각자 활동 중인 3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건 위생 교육(손 씻기, 깨끗한 물 마시기 등)과 함께 구충제를 보급함
관련 사진	   

5-2. 바트와족 마을 주택 개량 사업

지역	Akagari ka Rwambogo, Umurenge wa Musanze, Akarere ka Musanze (르왐보고 셀, 무산제 섹터, 무산제 디스트릭트)	
활동 기간	2010년 3월 ~ 현재	
활동 계기	디스트릭트 복지국의 소개로, 디스트릭트 내 빈민층이 가장 많은 무산제 섹터를 소개 받음	
	무산제 섹터長과의 미팅 중,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인 셀(르왐보고)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됨	
지역 소개	르왐보고 셀은 르완다의 소수 민족인 바트와족(피그미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며, 바트와족의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무산제 타운에서 모토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	
주요 활동	주택 개량 사업	6가구 47명(이 중 집 한 채는 고아 6명의 거처)
		양철 지붕 및 흙 구입, 노력 봉사(집 짓기), 재정 모금
	보건 교육	손 씻기, 깨끗한 물 마시기 운동, 구충제 보급
	가족 사진 제작	평생 단 한 장의 사진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 인화해 줌

< 관련 사진 >

기존 가옥 (2010.03.20)	

기초 공사 (2010.05.13)	
기초 공사 (2010.05.27)	
지붕 공사 (2010.06.03 / 2010.06.04)	

흙 구입 (2010.06.10)	
흙벽 바르기 (2010.06.17)	
흙벽 바르기 (2010.07.16)	

건축 마무리 (2010.09.09)	 
마을 사람들 (수혜자)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9월 07일)

파 견 국	모 로 코	성 명	김 소 현
파 견 일	2008. 11. 12	활동기관	Ibn Tofail - ENCGI
파견분야	한국어교육	작성일자	2010.09.07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1. 봉사활동 최종보고서

지난 2년간의 봉사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12일에 모로코에 파견되어 라바트에서 12주간의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뒤 2009년 2월 4일에 활동기관이 있는 케니트라(Kénitra)에 부임했습니다. 부임 직후 소속기관이 새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처 임지에 적응할 틈도 없이 2월 10일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였던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경영대학교 3학년 학생들 4개 반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매주 8시간의 교양 한국어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처음 수업 개설 당시 8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정규과목이 아닌데다, 이미 학생들은 영어와 스페인어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기가 끝났을 때는 80여명 중 30여명의 학생들만이 남았습니다.

첫 학기에는 ENCG 수업 외에도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에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으나, 정규과목도 아니었고, 몇 몇 학생의 요청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설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2달 정도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바빠지면서 흐지부지 수업이 끝나고, 그 뒤로 다시 개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라마단(이슬람력에서 9월. 이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 함)이 끝난 10월에 시작했습니다. 모로코는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3학년 4개 반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교양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며, 첫 학기 때 한국어를 배웠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 반을 개설하며 주 10시간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3학년들은 첫 학기에 만났던 학생들 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첫 학기에 비해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률도 처음보다 안정적이었고, 종강 무렵에도 과반수의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학기는 지난 2월에 시작했으며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기가 달라지면서 ENCG에 개설되었던 한국어 수업은 지난학기 두 학년, 5개 반에서 두 학년 2개 반 30명의 학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출석률은 더 좋아져, 학기 내내 별다른 변동 없이 첫 주에 수강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종강까지 남았습니다.

세 번째 학기에는 ENCG(경영대) 수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문대 1학년 3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한국어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인문대에서는 일주일에 4시간(2시간씩 2반) ENCG와 비슷하게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교양 한국어 수업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외에도 방학 등을 이용해서 부임 초기부터 조금씩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던 '모로코 생활 자료집' 제작을 지난 8월 말에 끝냈습니다. '모로코 생활 자료집'은 총 50쪽 분량으로 임지 부임 초기 집구하기와 거주증 신청하기를 시작으로, 보고서 작성과 국외휴가 준비, 모로코 물가 정보와 추천제품 등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간단한 프랑스어문법을 추가했습니다. KOICA 모로코 사무소에 제출한 모로코 생활 자료집은 9월 초에 인쇄하여 2010년 5차 신규단원들 모로코 현지적응훈련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 생활 자료집과 함께 정리 중이었던 '한국어-프랑스어-데리자(모로코식 아랍어)' 단어장도 80% 정리가 된 상태이며, 임기 만료일인 11월 12일 전까지 정리를 끝내 기존 단원들과 신규단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림 1 : 모로코 생활 자료집

1.2. 현지 업무 종결 결과

한국어 교육 단원으로는 모로코에 처음 파견되었기 때문에 파견 당시 한국어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참고 자료 등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물품 지원을 통해 기초 한국어 교재와 한국 문화 등을 알릴 수 있는 한국 영화 DVD 및 여러 참고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물품들과 2년 동안 직접 만들고 정리했던 강의자료 및 수업 계획서 등은 이번에 새로 온 후임단원에게 그대로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2009년 2월 파견부터 2010년 5월까지 3 학기에 걸쳐 ENCG(경영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교양 한국어 수업을 했으며,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한 학기 동안 별도로 LEA(인문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간의 수업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던 학생들에게는 KOICA 모로코 사무소장님 이름으로 기초 한국어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파견 첫 학기에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조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여 첫 학기 수업을 들었던 40여 명의 학생 중 끝까지 남아 비교적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던 30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학기 초부터 명확하고 엄격한 수료증 수여 기준을 제시 하여 1년 과정의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 80% 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한 20명의 학생들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해 수료증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모로코 단원들을 위한 모로코 생활 자료집을 만들었으며,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단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국어-프랑스어-데리자'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9월 초에 후임단원이 모로코에 파견되었으나, 임지 파견 시점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신규 단원 파견 전까지 새로운 학기를 맡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림 2 : ENCG 3학년 학생들과 종강 기념 촬영



▲그림 3 : ENCG 4학년 학생들과 종강 기념 촬영

1-3. 2년간 봉사활동 성과, 문제점

2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열의와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기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2년이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모로코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몹시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대학교로 파견되었지만,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이고, 그 과목조차 정식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며, 다양한 시각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KOICA 모로코 사무소장님 이름으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우리 속담처럼 2년간의 활동만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에 한국어교육 단원이 파견됨으로서 모로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한국어라는 고유 언어를 알릴 수 있었다는데서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이어 후임 단원이 파견됨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2-1. 단원파견 호응도와 기관의 장단점

본 단원이 파견된 Ibn Tofail -ENCG는 케니트라에 있는 국립 경영대학교입니다. 모로코의 대학들은 한국의 대학과 달리 같은 Ibn Tofail 대학이라 하더라도 단과대의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각 단과대별로 담장과 교문이 따로 있고, 수업 교류도 없습니다.

ENCG는 Ibn Tofail 대학 가운데 가장 늦게 단과대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임지 파견 당시에는 캠퍼스를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파견 첫 학기에는 시청 소유의 건물을 캠퍼스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 건물에는 강의실이 5개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파견 첫 학기에는 강의실이 매주 바뀌고, 강의 시간표도 정규과목 시간표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영향을 받아 들쑥날쑥 변수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강의시간이 바뀌었을 때 학교 측에서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아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견 당시 신축 중이던 경영대학 캠퍼스가 2009년 가을에 일부 완공되어 2009년 가을 학기부터는 새로운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까지도 캠퍼스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관계로 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은 기존 캠퍼스와 새로운 캠퍼스를 오가며 업무를 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사 일정 등을 묻거나,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담당 직원을 만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단 경영대학 뿐만 아니라 모로코 전반에 걸쳐 변수와 휴일이 많고, 학교 또한 학사 일정이 즉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강을 며칠 앞두고서

야 개강 일정을 알 수 있고, 원래 계획에 나와 있던 것 보다 개강이 미뤄지거나, 종강이 당겨지고, 갑자기 수업이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모로코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단원이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고 맞춰가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단원이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코워커를 배정해 주었다면 단원이 임지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 등은 신설된 학교답게 나무랄 것이 없으나, 단원에 대한 배려와 단원 활동에 대한 관심(수업 시간표 배정 등)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림4 : Ibn tofail ENCG 캠퍼스

2-2. 향후 필요한 지원체계 및 협력관계

장기적으로 볼 경우 교양과목으로라도 한국어가 자리 잡기에는 인문대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식 과목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분야는 경영대학보다는 인문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학기(2010년 2월부터 5월)에 단원의 요청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설되었던 LEA(인문대학)에서의 한국어 수업을 사무소와 LEA 간에 업무 체결을 통해 정규과목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개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외국에 나와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한국에 맞춘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식이며, 당연한 일들이 외국에서는 비상식이며,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연초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곳 모로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편람에 대략적인 1년 학사 일정이 나와 있지만,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일이지 틀린 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고 저금을 하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나오지만, 모로코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고 저금을 하면 본인의 통장에서 매달 수수료가 나갑니다. 한국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는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의 상식과 문화에서 보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거리만큼이나 이곳에서의 상식은 한국에서의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원할한 단원생활을 위해 마음에 잘 담아두었으면 하는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원 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가 받는 생활비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투적이고 거창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과 세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 일도 찾아가며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 대부분이 시골로 파견되고, 도시로 파견된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한국인을 알아가고, 한국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 잦은 결근과 과한 여행은 자칫 '한국인 봉사단원은 봉사하러 와서 여행만 다니네...'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열심히 활동하는 다른 단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좋다고 장담할 수 없고, 처음에 안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기에 일부만으로 성급히 전체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그냥 되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인내심과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적응하고, 사람을 사귀어 가며,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4. 파견지역 연구

본 단원이 파견되어 2년 가까이 생활한 이곳 케니트라(kénitra)는 수도인 라바트에서 북쪽 방향(모로코 북쪽으론 스페인이 있으며, 모로코 기차의 북쪽 종점은 땅제(Tanger)에 있으며 기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기차로 라바트와 30분, 카사블랑카와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케니트라에 집을 두고 라바트나 카사블랑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성도시(분당, 일산 등)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또한 북쪽으로는 땅제(Tanger), 페즈(Fez), 남쪽으로는 마라케시(Marrakech)를 지나는 기차가 모두 통과하고, 거리상으로도 북쪽과 남쪽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도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며,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 호기심의 표현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극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메디나(구시가지) 지역은 조금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편이지만, 신시가지 지역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대부분 아파트와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치안 상태도 좋은 편입니다.

케니트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 모로코 사람들에 비해 말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어를 연습하고, 현지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나, 시골 지역 단원들에 비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인근에 강과 바다, 호수와 숲이 있어 새가 많은 편이며 황새 도래지라고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인근 호수에는 거북이도 많이 서식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편이나, 내륙지역이 비해 춥지 않고, 여름에도 모로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지 않아 전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무난한 기후입니다.



▲ 그림5 : 케니트라(kénitra) 기차역과 시내

5. 기 타

특이사항 없음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2월 24일)

파 견 국	세 네 갈	성 명	김 은 희
파 견 일	2008. 04. 25	활동기관	C.F.P.H
파견분야	작물재배	작성일자	2010.02.24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작물재배전공자로서 농업경영관련 원예부에 파견된 처음에는 과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었다. 그러다 산하기관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본 단원의 활동기관은 국립원예기술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세네갈 전역에서 원예전문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앞서 선배단원이 활동했던 곳인 만큼 곳곳에서 현장지원사업의 편린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뿌듯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동양인은 중국인이라는 고정관념은 여전했으며, 힘들게 이루어졌을 현장지원 사업이 분명할 텐데도, 사후관리가 소홀한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처음 얼마간은 기관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아프리카의 농업환경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작물재배 방법이 뭐가 그리 다를까 싶었으나 농업이란 것이 기후와 토양에 의존하는 것인지라 그 차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었다. 자연강우에 의존할 수 없는데다 토양은 모래에 가까운 사토라는 점 때문에 이랑은 높이지 않으며 주요 일과는 살수기나 인력

을 이용한 관수작업이었다. 또한 김매기와 같은 작업에서 우리나라는 호미를 사용하는 반면, 이곳은 일레(hilère)라는 기구를 이용해 서서 제초를 하거나, 아니면 흙이 부드러워 손만으로도 제초작업이 가능하였다. 이렇듯 다른 환경이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작업 자체는 인력에만 의존하던 기계화 이전의 모든 농업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관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지나면서, 학생들의 실습활동시간에 재배되어진 작물들이 판매로 이어져 기관에 재사용됨을 알게 되었다. 국내에서 지원받은 종자를 사용할 기회인 듯 했다. 이곳의 아시아인들을 소비자로 하는 품목을 재배한다면 기관 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첫해는 나 자신 조차도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라는 점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재배를 시작했다. 고추는 예상을 뛰어넘는 작황이 나왔고, 아시아에서 가져온 품종이었기에 아시아인들만을 수요자로 예상했었는데 현지인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 배추는 아쉽게도 수확기 무렵 무름병이 닥쳐 큰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해 도전에 예습의 효과를 가져 오리라 기대했다. 현장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새학기가 시작되어 기관 또한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10월 말 드디어 실습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자재와 농기구류를 구비하고 병해충 민감작물을 위한 하우스설치라는 현장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양파재배지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새 양철 물조리로 물을 주는 학생들이 보인다. 껍질콩을 수확하는 밭에선 색깔도 예쁜 새 수확용 상자에 껍질콩이 담긴다. 생전 처음 보는 꽃씨와 과일씨는 어느새 싹을 틔어 이론수업만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교육효과를 높여준다. 이것 모두가 이번 현장지원사업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고추는 첫 수확을 마치고 1kg에 1000(FCFA)의 고가에 판매되었다. 현지사무소 하반기 한정된 사업비내에서 4개 팀이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이었다. 하우스내 관수시설의 설치와 기관내 취약부분인 과채류 재배전문기술 교육 등을 행할 수 있는 후임단원의 파견을 바란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난한 현실 앞에 가족과 나라를 떠나 먼 곳을 바라보아야 만하는 이들에게 KOICA 단원으로 활동한 2년의 시간이 그들이 나고 자란, 그들의 가족이 있는 이곳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장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실습용 농기구 · 농자재>





(육모용봉두)



(양철 물조리)



(수확용 상자)



(과실종자)

⇒



(발아 후 모습)



(화훼 종자)

⇒



(발아 후 모습)



(하우스 설치 과정)

⇒



(하우스 완성)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국립기관으로서 모든 기관운영이 정부예산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조금만 정부의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외부 원조가 저조해지면 기관운영에 큰 타격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본 단원이 파견된 첫해에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지연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결국 학생들이 휴교라는 강경대응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듯 애교심이나 교육열의가 경제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어서인지, 실습시간을 단지 시간때우기 식이거나, 점수를 얻기 위해 선생님 앞에서만 열심인 척하는 학생들과 본인 업무 외에는 건성으로 대하는 기관 직원들을 볼 때면, 단원의 활동 이유가 퇴색되는 듯해 안타깝기도 하다. 그래도 묵묵히 성실한 학생들이 있고,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고자하는 열의를 가진 학생들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 없다. KOICA의 지속적인 활동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열의를 자극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선배 단원들이 활동했던 기관인 만큼 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관내 직원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제 각기의 업무 외에는 그리 적극적인 관심은 없다. 단원 스스로 할 일을 찾되 기관내 이미 존재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일을 찾도록 하고 기관장님과 상의를 통해 당당한 전문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잘 알려진 한국인의 조급성이 이곳 현지인들과 함께 하다보면 새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현지인들의 느긋함에 발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지인 도움없이 혼자만 조급해 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지혜롭게 강경과 회유를 병행해 지도해야 할 것이다.

4. 파견지역 연구

- 경제 · 사회

수도인 만큼 경제활동인구가 왕성하다. 그러나 증가하는 인구수에 비해 고용창출이 발을 맞추지 못해 실업자도 못지 않게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넘쳐난다. 그에 반면 유럽으로부터 온 외부인들과 상업계를 장악한 레바논계, 중국계 그 외 현지 부유층들을 위한 특수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인걸 보면, 빈부격차의 심각성도 간과할 수 없다. 도로, 전기, 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등도 부유층지역과 저소득층지역의 차이가 극심하다. 그래서인지 정전이나 단수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정치

쿠데타나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주변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 정세가 안정적이지만, 2000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2007년 재당선되어 2012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현직 대통령 압둘라이 와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 3차 도전은 나이도 나이지만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에 부흥하지 못하여 가능성은 없으며, 아들 카림 와드 역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관측이다.

- 문화

현지인들을 위한 고전음악이나 연주회등의 공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세네갈내 프랑스문화원을 주체로 유럽인들과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극장이 존재한다. 현지인들에게 코란을 읽고, 암송하고, 종교지도자들의 코란 설교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과다. 주말이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나이트클럽이 성행하고, 잔칫날에도 음악과 춤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인사를 중시하여 하는 일에서부터 가족, 친척들의

안부에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말까지 바쁜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겐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장점인 듯하다. 남녀모두 멋내기를 좋아해 현란한 프린트의 옷감을 이용해 옷을 해입고, 머리에서부터 발끝 그리고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앙상블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날씨 탓이겠지만 현지식은 기름지고 짠 편이며, 현지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나, 커피는 외국인인 우리들에겐 너무 단편이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다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5. 기 타

파견 전 국내에서 품었던 봉사단원으로서의 열정과 의지가 막상 현지에 파견되어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추스르는 힘을 주고, 하소연이나 투정을 받아준 동기들은 큰 위안이었고,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현지 사무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안부를 물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따뜻하게 마련해주신 식사 등, 이 모든 것들이 2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2월 28일)

파 견 국	에티오피아	성 명	박 유 진
파 견 일	2008. 04. 29	활동기관	나사렛 5번 초등학교
파견분야	미 술	작성일자	2010. 02. 28

1. 업무사항

1-1. 봉사활동 최종보고서

활동명	활동 내용
나자렛 5번 초등학교 미술 정규반 수업	• 대상: 나자렛 5번 초등학교 5, 6학년 • 수업시수↓ • 활동 기간: 2008년 9월~2월 (1학기)↓

	월	화	수	목	금
1교시	5-A (44명)				
2교시				5-C (60명)	
3교시			6-C (71명)	6-B (58명)	
4교시				6-A (59명)	6-D (61명)
5교시		5-B (49명)			5-D (66명)
6교시					6-E (47명)



• 수업내용 ↓

	주제	학습내용
1	북 아트1	문자 디자인 : 내 이름 꾸미기
2	북 아트2	책표지 꾸미기
3	관찰화	말
4	관찰화	개미들의 세상

5	드로잉	포도
6	드로잉	옥수수
7	종이접기1	1) 삼각 접기 2) 아이스크림 접기 3) 문 접기 4) 방석 접기
8	종이접기2	5) 물고기 접기 6) 쌍배 접기 7) 삼각 주머니 접기 8) 사각 주머니 접기
9	구상화	동그라미,세모,네모
10	만들기	색종이 목걸이
11	색칠 공부1	A to Z 사물 색칠놀이
12	색칠 공부2	
13	색칠 공부3	
14	색칠 공부4	
15	회화 기법1	스크래치
16	회화 기법2	실 그림 그리기

나자렛 국립병원 소아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크레이션 및 미술치료









오로미아 교육부 소속 미술교사 양성

• 수료명단

: 1기 수료교사 명단

No	Name of Teacher	D.O.B	Position
1	Genet Tesfaye	08/ 02/ 1962	Art teacher in Adama No.5 School
2	Selam Alemayehu	26/ 04/ 1977	Art teacher in Nafyad School
3	Dagnachew Sinseshi (Male)	26/ 01/ 1977	Art teacher in Nafyad School
4	Jemal Mohammed (Male)	22/ 02/ 1977	Art teacher in Nafyad School
5	Musfiin Minaalu (1기 우수교사, Male)	01 /09/ 1965	Art teacher in Adama Tsehay
6	Azeb W/Amanuel	06/ 04/ 1979	Art teacher in Adama Tsehay
7	Andargachew Medhanit (Male)	12/ 03/ 1969	Art teacher in Medhanialem
8	Woinshet Tsegaye	18/ 10/ 1975	Art teacher in Medhanialem
9	Desta Tsegaye	12/ 03/ 1978	Art teacher in Day Star
10	Tesfahun Demissie (Male)	02/ 10/ 1964	Art teacher in Capuchin K.M School
11	Almaz Seifu	25/ 10/ 1967	Art teacher in Capuchin K.M School
Training Course : Six- Months' Art Education for Teachers (March - September 2009)			
Instructor: Ms. You Jin Park / World Friends Korea			

: 2~4기 수료교사 명단

No	Name of Teacher	D.O.B	Position
1	Selamawit Girma	November 22, 1983	Art teacher in Holy Savior School
2	Tegitu Sishaw	February 8, 1955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3	Yeshewazewd Arega	September 9, 1953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4	Measho Afework	May 14, 1953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5	Tsige Teferi (2기 우수교사)	August 11, 1958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6	Assegedech Simie	April 21, 1954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7	Kassu Bekele	March 19, 1958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8	Aynalem Shefraw	August 7, 1963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9	Asnakech Menkir	November 5, 1948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10	Zebenay Desalegn	September 28, 1949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11	Woinshet Eshetu	October 5, 1971	Art teacher in Vera School
12	Almaz Adane	April 16, 1972	Art teacher in Vera School
13	Helen Tafesse	April 4, 1979	Art teacher in Vera School
14	Tigist Tessema	July 11, 1974	Art teacher in Vera School

15	Zaid Berhe	December 13, 1974	Art teacher in Vera School
16	Yeshi Girma	November 11, 1977	Art teacher in Vera School
17	Eminet Tsegaye	November 21, 1972	Art teacher in Gayas Excel-Academy
18	Wogayehu Walle	June 26, 1977	Art teacher in Gayas Excel-Academy
19	Hilawit Gizaw	June 9, 1975	Art teacher in Gaya Excel-Academy
20	Sintayehu Gashaw	April 3, 1973	Art teacher in KT Adama School
21	Zewditu Shifraw	March 9, 1978	Art teacher in KT Adama School
22	Wosene T/Wold	June 7, 1972	Art teacher in KT Adama School
23	Sisay Bugeshaw	October 29, 1974	Art teacher in St. Marry School
24	Ethiopia Alemu	August 12, 1980	Art teacher in St. Marry School
25	Shewaye Zeleke (3기 우수교사)	May 21, 1947	Art teacher in St. Joseph School
26	Woinshet Abebe	December 10, 1975	Art teacher in St. Joseph School
27	Aster Alemu	December 1, 1963	Art teacher in Malk Headu School
28	Amarech Aweke	December 12, 1969	Art teacher in L.K.D Sime School
29	Almaz Alemu	? (자기 생일 모름)	Art Teacher in S.D.A School
30	Fikir Shifraw (Male)	August 17, 1951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31	Said Ibrahim (Male)	? (자기 생일 모름)	Art Teacher in Adama No.4 School
32	Kelemwa Shibru	September 1, 1974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3	Beyenech Nigussie	June 16, 1975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4	Ayenew Wondemu (Male)	January 23, 1970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5	Zinash Kebede	January 15, 1969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6	Lemlem W/Tensay	August 30, 1970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7	Kebebush Ayele	January 5, 1964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8	Meseret Habtamu	October 29, 1972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39	Genet Teshome	September 5, 1977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0	Meseret Fantu	May 5, 1977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1	Zerfe Beyene	July 18, 1965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2	Tseganesh Addisse	April 2, 1971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3	Alganesh Bogale	November 28, 1977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4	Aselefech Kebekabe	June 16, 1971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5	Ethiopia Tesfaye	January 24, 1973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6	Serkalem Wubshet	March 21, 1973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47	Asnakech Asefa	December 30, 1952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48	Wegayehu Tadesse	December 4, 1972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49	Yalemzewd Addis	June 21, 1962	Art Teacher in Adama No.2 School
50	Amare Mamo (4기 우수교사, male)	November 15, 1942	Art Teacher in Adama No.4 School
51	Kalab Getahun (Male)	February 9, 1981	Art teacher in Biruh Tesfa Organization
52	Neariah Atkilt (Male)	? (자기 생일 모름)	Art teacher in Biruh Tesfa Organization
53	Assefu Mebratu	February 7, 1974	Art Teacher in S.D.A School
54	Selamawit Alemayehu	May 20, 1981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55	Etenesh Abera	November 11, 1963	Art Teacher in Holy Angels School
Training Course : Six- Months' Art Education for Teachers (June - December 2009)			
Instructor: Ms. You Jin Park / World Friends Korea			









나자렛 5번 초등학교 미술 특별반 수업

- 대상: 나자렛 5번 초등학교 1~8학년, 학급당 성적1~5등 안의 학생들
- 활동기간 : 2009년 7월~9월 (우기방학)





현장 지원 사업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현장사업 요약서

1. 사 업 명	ㅇ국문명 :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ㅇ영문명 : Making a pleasant school for children		
2. 사업기간	ㅇ '09.7월 ~ '10.3월 (9개월)	3. 단원명/분야	박유진/ 미술
4. 사업규모	ㅇUS$ 10,000 (KOICA : US$ 8,000 /수원기관 : US$ 2,000)		
5. 개발목적	ㅇ 한국의 선진교육 시스템을 역할모델로 하여 현지사정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효과를 얻는다. ㅇ '미술과'에 초점을 맞춘 나자렛 5번 초등학교의 Hardware 및 Software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에티오피아 국공립 초등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6. 사업목표	ㅇ 학생들에게 밝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제공한다. ㅇ 오로미아 지방교육부 소속 미술교사들에게 한국의 초등 미술교육을 전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사정에 맞는 지도법 계발과 다양한 연구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다.		
7. 주요사업 내용	• 나자렛 5번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 교실 조도 환경 개선사업 - 페인트 공사, 천장 공사 2) 홍보·미화 사업 - 벽화제작 (공공참여미술 벽화, 교육용 시각자료 벽화) • 초등미술 교과 발전을 위한 대안 1) 나자렛(OROMIA) 지방교육부 소속 미술 교사훈련 2) 미술 교과 지도서 제작, 나자렛 전 지역 초등학교에 배부		

8. 수혜자	Adama No.5 School, 일부사업은 Nazareth 전 지역의 초등학교	
9. 투입 내역	수 원 기 관	KOICA
	- 천장 공사 인건비 - 페인트 공사 인건비	- 천장 공사 자재비 - 페인트 공사 자재비

	- 지붕 하자 보수비용 - 교육용 벽화 제작비 - 자재 운반비 - 기타 비용	- 전기 배선 리모델링 비용 - 공공미술 벽화 제작비 - 미술 교사훈련 비용 - 미술 교과 지도서 제작비
	합계 : 2,000 US$	합계 : 8,000 US$
10. 성과	o 학급 내 조도환경을 개선시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와 학습능률을 높인다. o 공공미술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o 한국의 초등 미술교육을 토대로 실력 있는 현지교사를 양성한다. 현지 학생들의 수준과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지도능력을 갖춘다.	
11. 요청 기관	나자렛 5번 초등학교 (Adama No.5 School)	









1-2. 2년간 봉사활동 총 평가(효과, 문제점 등)

활 동 명	효과 및 문제점
나자렛 5번 초등학교 미술 정규반·특별반 비교	본 단원은 오로모 지방 국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자렛 5번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미술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타 교과 선생님들의 시간을 빌려 미술 정규반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부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별활동의 형태로 가르치게 되었다. 학급당 60여명의 현지 학생들(국공립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를 전혀 못하며 오로모 반의 경우 암하릭으로도 의사소통이 불편하다)과 외국인 교사가 소통하기에 40분이라는 수업시간은 너무 부족하다. 게다가 주당 1차시밖에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강(한국은 실습위주인 미술과의 특성상 연차시를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불가능 했다. 또한 학생들의 가정형편상 단원 혼자서 5,6학년 전체의 실습 준비물을 감당하기가 벅찼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습효과와 성취도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수학생들을 뽑아 특별반을 운영하였다.
나자렛 국립병원 소아과 환자 미술치료	- 아다마 병원 소아과 환자들의 미술 전시회 일시 : 2009. 03. 30 (월) 9:00am ~ 5:00pm 장소 : Lecture room in Adama Hospital 프로그램 : Art Gallery - 미술작품 전시 Photo Gallery - 활동사진 전시 Video Gallery - 레크레이션 동영상 상영    

미술교사 양성 프로그램

- 'Teachers Training Program'은 한국의 미술 교육을 토대로 양국간의 교육 컨텐츠를 함께 나누고 현지사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재창조하는 교사연구모임이다.
- 이러한 참여·연구방식은 교과 지도서 편찬을 통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 특기 계발을 이 땅의 공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둘째, 지역과 학교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운영이 이루어진다.
  셋째, 미술과에 초점을 맞춘 특색 있는 학교사업의 사례가 된다.





현장 지원 사업

※ 효 과

1) 실내 조도환경

사업 시행 전 현 실태	사업실시 후 개선사항
- 천장이 없고, 흙벽으로 둘러싸인 교실은 올바른 학습 환경이 아니다. - 어두운 실내는 색채를 다루고 시·지각 능력을 개발하는 미술수업과 맞지 않다.	- 천장을 설치하면 복사열 및 소음 차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밝은 색 페인트로 교실 내벽을 단정하게 꾸미면 청결하고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2) 건물 외벽

사업 시행 전 현 실태	사업실시 후 개선사항
- 콘크리트 흙벽으로 둘러싸인 학교는 낡고 삭막한 인상을 준다.	-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이루어진 벽화를 통해 공공미술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연다.

3) 현지 미술교사와 미술수업

사업 시행 전 현 실태	사업실시 후 개선사항
- 전문성을 갖춘 미술교사가 부족하다. - 교수방법이 단순 획일하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은 교사가 칠판에 그리는 사물을 학생들이 단순히 따라 그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학생들의 가정형편상 색채수업이나 다양한 재료를 다루기 어렵다.	- 미술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현지교사들을 확보하게 된다. -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미술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교육이 실현된다. - 지역사정에 맞는 지속 및 실현 가능한 교과 내용들을 개발한다.

4) 미술 교과지도서

사업 시행 전 현 실태	사업실시 후 개선사항
- 미술 교과서나 관련 지도서가 전무하다. - 미술과목과 시간은 배정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응용 가능한 교본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미술수업이 이루어진다. - 교육 발전에 밑거름을 마련한다.

5) 국공립 초등학교의 비전

기존 에티오피아 국공립 초등학교의 성격 (사업 시행 전 현 실태)
- 에티오피아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한다. - 뒤 이을 중·고등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며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KOICA 현장 사업을 통해 거듭나는 에티오피아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육정책 방향 (사업실시 후 개선사항)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 교수·학습방법 개선 - 교원 연수·연구 체제 혁신 - 수요자 중심의 소질·적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 확대 -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 실천 중심, 예방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 -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 문제점 및 대책

1) 조도 환경 개선사업 검토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
o 첫째,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o 둘째, 달러수급이 불안정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공사도중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o 셋째, 완공시기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
o 첫째, 업체가 선정되면, 총 20개의 학급 중 한 학급을 시범적으로 완공시켜 본다. 전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애로사항에 관한 업체와의 대안을 마련한 뒤, 예산안과 실제비용을 재조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o 둘째, 원자재를 미리 확보한 뒤 시공에 들어간다. 업체를 통해 자재들을 사지 않고, 기관의 유지보수 인력을 동원해 공장에 직접 주문한다. 자재들은 학교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o 셋째, 6월 말부터 9월 중순(약 3개월)까지 계속되는 우기 방학에 맞추어 공사를 착수하면 개강 날짜에 맞추어서 최대한 완공시킬 수 있다.

2) 학교 홍보·미화 사업 검토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
o 첫째, 공공미술 벽화 -전교생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통솔이 불가능하다.
o 둘째, 교육용 시각자료 벽화 -기관예산으로 현재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
o 첫째, 핸드프린팅에 동원되는 인력을 미술특별반 학생들로 제한한다.
o 둘째, 문제없음

3) 미술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검토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
o 현지 교사들의 자발성과 참여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
o 학기 중에는 주말 반을 개설하여 교사들의 평일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o 포트폴리오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술재료는 KOICA가, 장소와 기본 학습기자재들은 나자렛 5번 초등학교가 저비용으로 지원해 주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o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선생님들에 한하여 개별 포트폴리오를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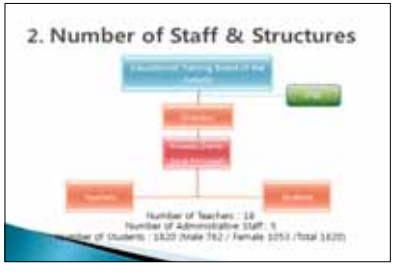
5) 교과 지도서 출판사업 검토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
o 재산 등록 여부 - 일부 교사들이 미술교과 지도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지도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좋은 사립학교로 스카웃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염려가 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
o 사립과 국공립에 상관없이 본 단원이 제작한 미술 교과 지도서를 나자렛 전 지역의 초등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각 학교의 공공재산으로 등록 시킨다.

1-3.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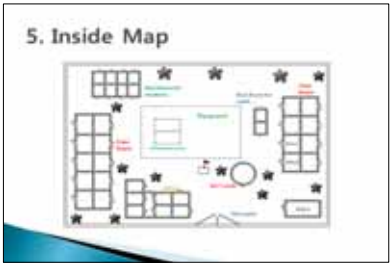


- PTA란?

현장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육성회, 'PTA'(Parents & Teacher's Association)는 나자렛 5번 초등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만든 운영회이다. 이들은 학교의 대·소사에 참여하여 개선사업이나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교육부에 고발할 수 있다. 심지어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 Co-worker와의 협조관계

나자렛에는 초등교육기관을 감독하는 8명의 관리자(Supervisor)들이 있다. 이들은 관할 Kebele(현지 행정구획의 단위, 나자렛은 총 16개의 Kebele로 이루어져있다)안의 국공립 및 지역사립, Missionary와 International 학교들을 통합하고 학교별 고문위원(Adviser)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본 단원이 미술교과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오로미아 지방교육부 소속의 교사들을 훈련하고자 했을 때, 이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Supervisor들이 KOICA와 지역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주었기 때문에 Teachers Training Course가 수준 높은 교사 연구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들은 가능한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들을 연계 시켜 주었고 각 학교에 공문을 미리 보내 방문일정 및 협조를 공식 요청케 했다.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고 기관장과의 면담도 마련해 주어 TTC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 등을 현지어로 자세하게 홍보해 주었다. 그 외에도 선진 한국의 모습과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다.

Name of Supervisor (현재 총 4명과 협작함)	Jurisdiction Kebele
Mr. Kassa	14번지, 04번지의 초등교육기관
Mr. Meseret	09번지, 10번지의 초등교육기관
Mr. Sebsibe	11번지, 12번지의 초등교육기관
Mr. Alemayew	01번지, 02번지의 초등교육기관

1-4. 현지 업무 종결 결과

활동명	종결 결과
나자렛 5번 초등학교 미술 정규반/ 특별반	정규반 : 포기 특별반 : 우기방학(3개월) 특별반 종강
나자렛 국립병원 소아과 환자 미술치료	종료. 미술전시회 개최
미술교사 양성 프로그램	1,2,3,4기 미술 교사(총 66명) 수료. 에티오피아 해외 사무소에서 졸업식 개최. 수료증 및 포트폴리오 수여  

현장 지원 사업

- 나자렛 5번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완료

1) 교실 조도 환경 개선사업 - 페인트 공사, 천장 공사










2) 홍보·미화 사업 - 벽화제작
: 교육용 시각자료 벽화 제작 완료




: 공공참여미술 벽화제작 포기

※ 정문 담벼락에 공공미술 벽화를 그리려 했으나 현지NGO가 학교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정문 담을 허물고 가게들을 짓고 있다. 때문에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학교 담벼락을 일부 허물고 가게 건물을 짓고 있다〉

- 초등미술 교과 발전을 위한 대안
1) 오로미아(OROMIYA) 지방교육부 소속 미술 교사훈련 : 완료
2) 미술 교과 지도서 제작, 나자렛 전 지역 초등학교에 배부 : 진행 중

1-5. 향후 필요한 지원 체계 및 협력관계

기관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교과의 후임단원을 기대한다. 이들을 통하여 열악한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지원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 나자렛 5번 초등학교는 오로모(OROMIA)지역의 국공립 초등학교이다. 학생 구성원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약 2,000명 정도이며 1~4학년은 First Cycle에, 5~8학년은 Second Cycle에 해당한다.

이때 Second Cycle을 운영하려면 오로미아 지방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학교는 실습실(Laboratory)과 도서관(Library), 그리고 교과연구 및 교수법 계발을 위한 교사 연구실(Pedagogical center)을 갖추어야 한다.

나자렛 5번 초등학교는 실습실과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고 교사 연구실은 실습실 안에 편재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초등학교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실습실과 교사 연구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은 최근 본 단원의 현장지원 사업으로 인해 조도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천장을 설치하고 도서관 내벽을 밝게 칠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습실 건물은 안정성에 따른 개보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흙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기후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벽이 많이 낡아있다. 실습실 내부는 창고나 다름이 없이 방치 되어 있는데 천장이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두컴컴하다. 창문이 없어 통풍이 전혀 안되며 관리자(두세 명의 선생님들이 열쇠를 맡아 출입을 관리하는 정도)가 따로 없어 학습 기자재들의 보관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실습실 공간은 Book store(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대여하는 곳)와 Pedagogy center(학습 기자재 보관실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ware house(본 단원이 개인적으로 지원한 체육교과 기자재 및 폐기된 책걸상 보관실)로 나누어져 있다. 정작 사회·과학교과나 컴퓨터, 예체능 과목의 실습에 활용되는 공간은 없는 셈이다.

때문에 기관에서는 후임 단원이 파견되어 현장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와 함께 이를 개선시키고 체험학습이 정상화 되고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실습실 건물, Pedagogy center

2. 일반사항

2-1. 2년간의 현지생활 평가

에티오피아는 타 아프리카지역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이다. 현지인에 대한 인상은 종교적이며 느긋하고 수동적이다. 이에 반해 오로모 지역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남성우월감이 강하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약 100Km정도 떨어진 나자렛은 고도가 높고 적도 가까운 곳에 위치 해 있어 일년 내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쬔다. 리프트 벨리 분지 안에 둘러싸여 있어 덥고 건조한 사막기후를 띤다. 이러한 지형적・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일조량이 심한 한낮에는 장시간의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마을 분위기가 급변하고 단원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이에나도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돌아다닐 경우 플래시나 밝은 조명(하이에나는 빛에 약함)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지난 2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전기와 수도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나자렛은 약 1달간 단수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염병과 청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2. 봉사활동을 마치는 소감

한국 해외봉사단원으로써 훈련을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곳 에티오피아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방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어실력이 늘지 않아 아쉽고, 기관시설이 많이 열악해서 처음엔 충격도 받았다. 현지인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딪힐수록 처음 가졌던 봉사에 대한 열의와 마음이 닫힐 때에는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단원들 간의 화합도 쉽지 않았고, 외로움과 나태함도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한편으로 2년 동안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 다행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았지만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매 순간순간의 노력들을 떠올리면 뿌듯하고 감사하다. 항상 함께 해주었던 동료 단원들, 큰 힘이 되어 주었던 현지의 지인들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단원관리와 활동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해외 사무소와, ODA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한국국제협력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3. 기타사항

없음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7월 01일)

파 견 국	에티오피아	성 명	이 범 석
파 견 일	2008. 06. 05	활동기관	Gondar Tvet College
파견분야	컴퓨터	작성일자	2010. 07. 01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1. 총평

과거 에티오피아의 수도로써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곤다르! 수천년간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이끌어온 암하라족의 정신적 수도이자, 현 암하라주의 대표 도시인 이 곤다르에, 저는 2년간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파견 직종은 컴퓨터로 가기 전에는 내가 갈 기관은 어떤 곳인지, 컴퓨터는 어느 수준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파악이 되지 않아, 이곳에 오기까지 답답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 곤다르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인 Gondar TVET College에 2년간 일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몸소 부딪혀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이제야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떠나야한다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2년을 제 자신을 평가한다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서 10점. 내 능력이 부족해서 10점. 보다 잘 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10점을 감점하여 딱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봉사활동 내용도 다른 단원분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내 스스로도 크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1지망으로 써서왔는데, 막상 가려고 보니, 오히려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좀 더 내 자신을 채우고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후회는 많았지만 뒷날을 기약할 수 있을 정도로 에티오피아에서 열심히 살았다" 정도로 총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1-2. 현지 업무 내용

현지 업무는 크게 수업과 관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수업은 10+2 학년(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2년간 연속으로 10+2학년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제가 파견된 때는 7월이고 이곳의 학기는 9월~다음해 6월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매우 적절한때 파견 되어 온전히 2년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1-2-1. 수업내용

2008년-2009년 수업

기간	대상	수업주제	비고
2008년9월~2009년1월	10+2 학년 (60명)	시스템/하드웨어	이론
2008년9월~2009년1월	10+2 학년 (60명)	네트워크	이론/실습
2008년9월~2009년1월	선생님	컴퓨터 유지 보수 관리	운영체제 설치
2009년2월~2009년6월	10+2 학년 (60명)	홈페이지 제작	실습
2009년2월~2009년6월	10+2 학년 (60명)	프로그래밍	이론/실습

2008-2009학년도의 경우 수업주제가 완벽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곳의 커리큘럼이 2008~2010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였는데 (과거 영국/미국식 학제에서 독일식 학제로 변경) 바뀌는 정점이던 2008-2009학년도 커리큘럼은 일정치 않아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마다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르쳤고 저 역시 처음엔 현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업을 했습니다.

2009년-2010년 수업

기간	대상	수업주제	비고
2009년9월~2010년1월	10+2 학년 (60명)	네트워크	이론/실습
2009년9월~2010년1월	10+2 학년 (60명)	프로그래밍	이론 , 후에 중지
2010년2월~2010년6월	10+2 학년 (60명)	홈페이지 제작	실습
2010년2월~2010년6월	10+2 학년 (60명)	네트워크 심화	이론/실습

2009-2010학년도의 경우 시범적으로 새 커리큘럼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건네받아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다만 커리큘

럼이 너무 방대하여 실제 커리큘럼 내용의 30% 가량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10+2학년 학생들의 전공과목 시간이 16시간이 안되는데 커리큘럼은 한 주에 약 30시간 가량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10-2011학년도에 개선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림 1 : 수업중인 학생들

1-2-2. 수업장비

수업에 필요한 장비는 이미 선임단원이 현장계획사업을 통해 3000만원 상당의 원조를 이곳 컴퓨터실에 했고, 기관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하여 약 40여대의 컴퓨터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독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기관에서 컴퓨터 장비를 2년간 지속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장비에 있어서 불편한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터와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통한 수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프로젝터는 기관에 있던 것을 활용했고, 교재는 코이카에서 지원한 프린터를 이용했습니다.

1-2-3. 수업과정

수업은 하루에 4시간이 기본적이며, 현지선생님과 분담하여 맡았습니다.

수업은 크게 이론/실습으로 나뉘는데, 처음 1시간은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다음 1시간 30분은 실습. 그 다음 30분은 다시 이론, 마지막 1시간은 과제를 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에는 이론 중심으로 할때와 실습 중심으로 할때가 있었는데, 어느 것에 더 시간을 배정하느냐, 현지선생님이 어느것을 맡아 가르치냐의 차이로, 현지선생님이 이론을 맡으면 저는 실습을 맡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론 중심의 커리큘럼 예

	월	화	수	목	금
커리큘럼	OSI 7 Layer 소개			TCP / IP 소개	
이론	OSI 7 Layer는 무엇인가?	프로토콜 (Protocol)	각 Layer 와 네트워크 장비 운용	TCP/IP는 무엇인가?	TCP/IP 활용
실습	-	-	각 Layer와 네트워크 장비 운용 활용	-	Peer to Peer 소개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예

	월	화	수	목	금
커리큘럼	Visual Basic Programming				
이론	비주얼 베이직 문법		비주얼 베이직 컨트롤		
실습	FOR문 활용	IF문 활용	기본 컨트롤 (텍스트 박스, 버튼등)		간단 프로그래밍 (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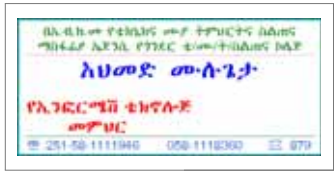
1-2-4. 기관 컴퓨터 관리

수업과 별도로 기관 컴퓨터를 관리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업에 쓰이는 40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하였는데, 현지 선생님들의 컴퓨터 관리 실력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컴퓨터를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2009년 부터는 기관 컴퓨터 관리를 맡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윈도우를 깔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선임 단원과 제가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금은 기관 네트워크망까지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봉사단원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1-2-5. 기관 이름표 제작

2010년부터 각 사무원 및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름과 직책 및 사진이 달려 있는 이름표를 다는 것이 기관 내에 결정되어 현지 100여명의 사무원, 선생님, 학생대표등의 이름표를 제작하였습니다.



▲ 그림2 : 이름표 예

이름표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이곳에 연수를 온 선생님들의 것들도 제작을 하였고, 이것이 전파되어 다른 기관의 이름표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2-6. 도서관 개선 사업

2009년과 2010년에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제가 현장지원사업으로 생각했던것인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로 에티오피아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디어가 기관장과 어느 정도 일치

하였고, 마침 독일 정부에서 약 2000$ 상당의 물품 지원(인적 지원은 없었음)이 이루어져 도서관에 멀티미디어실, 열람실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있던 도서관은 책상과 의자가 불편하고, 도서 수도 많지 않은 덕에 운영은 하되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개선 사업 이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늘 가면 언제나 가득히 앉아 책을 보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 현지 업무 종결 결과

6월 30일을 끝으로 저의 활동은 후임의 인수인계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2년간의 활동에서 제가 했던 부분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저에게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좀 더 다채롭게 활동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관장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하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 스스로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어를 더 잘 익혀서 수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이나, 보다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일을 해야 했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동시에 이 곳 20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좋은 시설의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에티오피아 사무소의 현장지원사업금 감소로 좌절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입니다.

반대로,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가끔씩 연락하거나 찾아와주며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점은 저에게 둘도 없는 자랑거리자 행복입니다. 언제나 제 수업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이었고 좋은 수업이었다며 좋아해 주는 것을 보며 제 봉사활동의 나름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1-4. 현지 업무 성과

2008-2009학년도 학생 진로 현황

진 로	인 원
대학교 진학 시험 준비 (COC EXAM)	남자 8 여자 4
취업	남자 3 여자 11
기타	남자 1 (교회) 남자 1 (대학교 진학) 여자 1 (연예계 진출)
파악 불가 및 휴식	여자 30 남자 2

위 표는 제가 가르친 2008-2009학년도 학생들의 진로 현황입니다. 현지 업무 성과의 하나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대부분의 여자 학생들이 직업전문학교를 졸업을 해도 따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것이 아니라 가사를 도우며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취업이나 대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미비한데, 제가 졸업 후에 만나서 늘 대학교 진학을 권해도, 이곳의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인지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지 학교 개선 효과

	2008년 이전	2010년 현재
학습 도구 및 교재	비주얼 베이직의 경우 1997년 버전 이용. 터보 C 등 1990년 이전 소프트웨어 사용. 오피스 2000등 구 버전 사용. 네트워크 교재는 윈도우98으로 쓰여짐. P2P나 라우터 운용 등의 내용 없음	비주얼 베이직 2008년도 버전 이용 (기관 소프트웨어 구입) 최근에 발표된 프리웨어 중심으로 교육 (아울러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 강화) 네트워크 교재는 윈도우 XP 중심으로 라우터 , 스윗치 , 홈네트워크 구성등이 담긴 교재 제작
현지 선생님 교육	컴퓨터 유지 보수 불가. 네트워크 장비 사용 모름.	자체적으로 컴퓨터 유지 보수 가능. 기관 인트라넷 구축 가능

1-5. 문제점 및 대책

2년간 활동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 중에 해결 할 수 없었던것도 있고, 해결 할 수 있었던것도 있는데, 해결 할 수 있었던것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 해결했습니다.

문제점	대책
커리큘럼 내용이 학생들 취업이나 진학에 비현실적임. 국제적 기술 수준과 너무 동 떨어짐	현지 교육청에서 감독이 나오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바꿀 수 없음. 보충 시간에 따로 교육
70%의 학생들이 영어 소통이 거의 불가.	2009-2010학년도부터 선발 학생 인원이 많아 생기는 문제로, 이전에 60명에서 현재 300명 가량의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영어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음. 교재제작을 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수업 (방과후 학생들 중심으로 토론 수업 - 현지 선생님)
협조가 되지 않는 사무원/선생님 (물품/금품을 요구하거나 활동 방해)	기관장과의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잘 되는 선생님들과의 협력활동으로 이들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했음.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2-1. 장점 및 단점

기관의 장단점을 표로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장점	단점
기관 직원	의사소통이 잘 된다. 친절하며 굉장히 협력적이다.	외국 봉사단원에 대한 거리감이 있어 친해지기 어렵다. 모든 일을 사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협력을 원할 때 구체적인 서류나 이유가 필요하다.
기관 업무량	하루당 수업 시간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관 업무에는 알맞은 사무원이 있어서 수업 이외 업무가 없다.	외국 봉사단원에게 구체적인 일을 주지 않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을때 자괴감이 온다. 수업의 경우 정기적 선생님들 출장으로 갑자기 수업량이 늘어나 부담이 될 때가 있다. (주 40시간 이상)
기관 수업/업무	컴퓨터 자격증 (워드 1급, 정보처리 기능사)이 있으면 업무 및 수업 수준은 높지 않다.	컴퓨터 이외의 업무가 주어질때가 있다.(학생 진학 지도 혹은 타 과목 수업)
기관 위치	주변이 조용한 편. 도시 외곽에 떨어져있다.	시내와 거리가 멀고(20분), 외국인이 주로 사는 사무나버르와 교통편이 불편하다.
기관 설비 및 활용	복사기 , 인터넷 컴퓨터등 수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웬만한 설비는 다 있다.	설비들이 거의 낡았고, 도서의 경우 수업의 활용 할 수 있는 책이 거의 없다. 또한 이들을 활용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어 늘 활용하기가 어렵다.
기타	오랫동안 외국 봉사단원과 일을 했기 때문에 봉사단원의 문화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다. 특히 한국인 봉사단원을 4년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시에 타 국가보다 이해가 높다.	외국 봉사단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때가 가끔 있다.(물품 중심으로) 업무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업무는 업무대로 열심히 해야하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챙겨야 하기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종종 있다. (수업이 10시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9시 50분쯤 와서 주변 카페에 가서 차나 마시며 이야기 하자는 등)

크게, 저희 기관의 장점은 딱 하나. 일하기 좋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정도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의 성격이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 "업무"와 "일"에만 무게를 두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면이 많아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단점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복잡한 절차 같은 것이 거의 없어지는데, 제가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2. 향후 필요한 지원 체계 및 협력 관계

1) 코이카 사무소와 기관과의 좋은 관계.

매년 한 차례씩 에티오피아 사무소 주최하에 각 기관장들을 모아 협력을 당부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단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매년 참석하는데, 이러한 세미나를 높이 평가 하고 있습니다.

2) 소장님 혹은 부소장님 방문.

2008년도에 에티오피아로 오신 송인엽 소장님이 기관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방문은 단원들에게 힘이 되고, 기관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매년 1차례씩 이러한 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3) 한국을 알릴수 있는 물품 지원.

매년 초 코이카에서 나오는 코이카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저는 이곳 선생님들께 주는 편인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코이카 달력에 나오는 한국의 발전상이나 문화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러한 물건을 대량으로 단원들에게 배포하여, 현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2-3. 단원파견 호응도

저희 기관은 오랫동안 외국 봉사단원과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원파견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장은 다른 외국 단체 보다 코이카를 더 우선시 하여 "1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단원 파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무소와의 지속적인 좋은 관계, 기관장의 한국 방문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한국 봉사단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 향후에 이곳에 파견될 한국 봉사단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단원이 파견되면 현장지원사업을 통한 원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파견은 "물적지원"이 아닌 "인적지원"에 하나임을 설득시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단원 파견은 단순히 물적 지원이 뒤따른다 - 그에 따라 파견 기관이 좋아한다 - 라는 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인적지원"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2년간 에티오피아 - 곤다르에 살며 Gondar TVET College에 일하는 동안 느꼈던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곳으로 파견될 후배 단원분들에게 10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1) 에티오피아는 역사가 깊은 나라. 특히 암하라지역은 3000년이 넘게 에티오피아의 중심세력으로 있었던 만큼 특히 곤다르 파견 단원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함.

2) 곤다르는 오랜 중세 에티오피아의 수도였고, 이곳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에티오피아에 대한 긍지가 높음. 남부에 비해 빈민

한 사람들을 보기 힘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자신들과 외국인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함.

3) 에티오피아 학생들은 성향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거의 비슷함. 학생에 대한 제제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항상 있기 마련. 이들을 대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 - 학생에 대한 인내와 믿음 그리고 대화가 중요함.

4) 현지 음식은 한국 음식과 완전히 다르지만, 일부는 한국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음. 곤다르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현지 음식에 재빠르게 적응하여, 현지 음식으로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응력 필요.

5) 현지에 정치문제, 종교문제,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말 것.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발언을 잘못하면 국외추방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지방이 심함.
이러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해야하고 관심은 가지되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안전문제는 단원 스스로가 매일 체크 할 것. 곤다르는 다른 도시에 비해 도둑이 적으나 항상 문단속 하고, 돈은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장소에 둘것 - 특히 건강검진이나 현지 평가회의로 장기간 집을 비울시 유의. 이때 집에 불을 켜고 가는것도 좋음.

7) 에티오피아 단원 거의 대부분이 현지인 가드(경비원)나 쎄라텡냐(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고용시에는 100% 믿지 말 것.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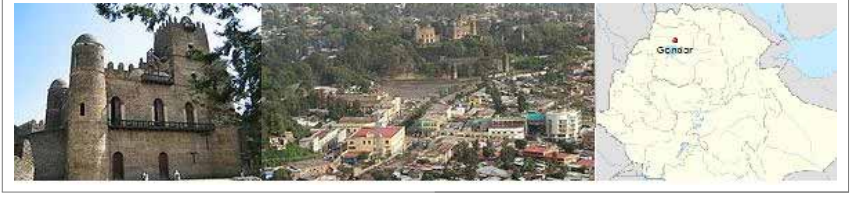
신 이외에 다른 현지인을 무작정 신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들 고용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8) 현지인과 트러블 발생시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가서 해결할 것. 에티오피아는 공권력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곤다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과 경찰서 가는일을 굉장히 꺼려함. 현지인이 큰 잘못이 없어도 일단 외국인편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곤다르 거주시에 피아사에 위치한 북곤다르 경찰서에 안전보호 요청 및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둘 것. 안전보호 요청시에는 사복 경찰이 수시로 안전 상황을 체크함 - 곤다르 단원은 반드시 필요

9) 되도록 많이 기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 대부분의 기관 사람들은 봉사 단원이 어떤일을 하기에 이곳으로 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그 이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봉사자로써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음.

10) 되도록 인내할 것. 어린 아이들이 장난 치는 경우가 많고, 10대 청소년들이 놀리는 경우도 많으나 인내하고 인내할 것. 내 자신이 에티오피아에 한국을 대표해서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것.

4. 파견지역 연구



▲그림3 : 곤다르성 / 곤다르시내 모습(피아사) / 곤다르 위치

곤다르는 에티오피아 암하라주에 위치한 도시로, 중세 에티오피아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2133m에 위치하여, 1년 내내 초가을~가을 날씨를 유지하며, 인간의 위협적인 해충(말라리아 모기, 독거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쪽으로 3~4시간 거리에 에티오피아 명산 "시미엔산"이 있고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청나일강의 수원지인 "따나호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중심지에 약 5만으로(시외 지역 포함시 24만) 올드독스라 불리는 기독교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어왔던 만큼, 기독교 행사시 굉장한 장관을 볼 수 있는데, 크게 9월 ~ 10월 사이에 있는 메스껠과 1월~2월 사이에 있는 뜸까트 행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만큼 곤다르 거주 단원은 꼭 봐야합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하며, 곤다르는 작게 보면 시내 피아사를 중심으로한 작은 도시지만, 크게보면 이곳 저곳 여러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대도시입니다. 과거 수도였던 만큼 도시가 광범위하게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곤다르는 유명 관광지로, 곤다르성과 교회가 있고, 인근에 시미엔산 트레킹이 유명하며, 매년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9월 29일)

파 견 국	탄자니아	성 명	박 소 희
파 견 일	2008. 10. 30	활동기관	Ruaha Community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
파견직종	여 성	작성일자	2010. 09. 29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 현지업무 종결 결과, 성과, 문제점, 대책

본인은 2008년 10월 여성개발분야(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로 탄지나아 이링가지역에 파견되어 Ruaha Community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이하 Ruaha CDTI라 칭함.)라는 기관[1]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개발 교육 담당자로 2010년 5월 학기까지 담당하였고 그 다음 달인 6월부터 현재까지 KOICA지원 현장사업을 해당 수원기관 협조아래 진행하였다. 본보고서는 지난 1, 2 그리고 3차반기보고서를 종합하여 본인이 진행한 업무 내용에 기초한 평가에 관한 것이다.

1) 현재 탄자니아 전 지역에 걸쳐 CDTI는 모두 9개가 있고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Gender and Children (지역사회개발, 양성평등 및 아동부)에 속해있다. 또한 CDTI는 Folks Development Center (FDC)에서 승격된 기관으로서 탄자니아 정부가 3년 전인 2007년에 보다 원활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새로이 도입하였다. CDTI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인이 제출한 1차 반기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① 교육

2008년 10월 30일 파견 후 약 2개월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마치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파견기관인 Ruaha CDTI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첫 학기 커리큘럼에는 본인이 파견된 분야인 여성분야나 인권에 관련된 수업이 없어 Entrepreneurship Skills Development 과목을 여성 노동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가르쳤다. 수업내용은 주로 Entrepreneurship과 관련한 정의, 요건 및 개발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개발을 위한 소자본대출(Microcredit/Microfinance)과 관련한 지식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두 번째 학기에 담당한 수업은 본인이 파견된 분야인 여성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ender and Development였으며 이에 더해 정규 수업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본 수업은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시작으로 Windows XP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외국에서 선진교육을 받고 온 교사'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새로운 강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지에서는 주로 교재 없이 판서 후 일방적인 설명을 통해 수업을 해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약 500페이지 가량의 읽기자료 등을 준비해 모두 제본하여 배포했고 매 수업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판서 대신 눈을 즐겁게 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PPT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국제여성인권법 등 따분할 수 있는 주제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케이스를 예로 들어 흥미를 더하게끔 하였고 시험 시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찾게끔 하여 보다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여성개발과 관련된 외부 NGO 등의 대표를 통한 특강 등을 마련해 학생들로 하여금 탄자니아 내 어떠한 여성 개발 노력이 진행되는 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적인 변화에 더해 수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활동 지원물품제도를 이용해 구비하였다. 먼저, ICT수업 및 PPT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컴퓨터를 구비했으며 자료를 프린트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A4용지 또한 구비하였다. 그리고 CDTI가 제공하는 모든 수업과 관련한 교재를 구비해 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였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는 기존 CDTI 교육운영안과 실제 적용 사례 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 교사 및 교장 선생님과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Ruaha CDTI만이 아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타 CDTI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② 탄자니아 남부지역 지역사회개발훈련원(CDTI)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워크숍 주최 및 진행

탄자니아 전 지역에 걸쳐 있는 9개 CDTI 중 5개의 CDTI가 Certificate 과정을 가르친다.

CDTI	CITY	COURSE PROVIDED	
Tengeru	Arusha	Degree	
Buhare	Musoma	Diploma	
Misungui	Mwanza	〃	
Monduli	Arusha (Monduli)	〃	
Rungemba	Iringa (Mafinga)	Diploma/Certificate	Female students only
Ruaha	Iringa	Certificate	
Mabugai	Tanga	〃	
Mlale	Songea	〃	
Uyole	Mbeya	〃	

▲ 표1 : 탄자니아 내 CDTI 정보 (2010년 5월 기준)

각 과정별로 주어진 커리큘럼이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자세하지 않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커리큘럼은 어떤 수업이 제공되어야 하며 각 수업이 몇 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하는지 몇 학점인지 그리고 수업의 목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정도만을 다룰 뿐 어떠한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수업별 자세한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CDTI의 전반적인 교육특성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비슷하나 시험제도는 매우 달라 기말고사의 경우, 탄자니아 기술교육 주관 기관인National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NACTE)가 각 CDTI 교사들이 제출한 샘플 문제 중 좋은 문제를 뽑아 과목별 시험지를 만들고 이를 다시 각 CDTI에 보냄으로써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한다. 이는 현재 수업제목에 따라 각 CDTI 교사들이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부당한 처사로 학생입장에서는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한 시험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많은 문제에 따라 CDTI 교장 및 교사들은 같은 과정(Certificate)을 제공하는 CDTI끼리 모여 교육내용을 통일하자는 결

론을 내리고 2009년 10월 그리고 2010년 4월 두 번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2] 1차 워크숍은 Rungemba CDTI 2차 워크숍은 본인이 근무하는 Ruaha CDTI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2차 워크숍은 KOICA의 봉사단 활동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협력활동지원"의 일환으로 무형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 KOICA의 이름으로 열 수 있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지난 학기 동안 각 CDTI의 교사 및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점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교육 개선관련 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과정을 표준화함에 따라 모든 CDTI가 동일한 교과과정 하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본인은 주최자 및 참가자로서 워크숍 일정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며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 KOICA 그리고 World Friends Korea의 홍보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 플랜카드와 함께 단체 촬영

2) 2010년 10월 중 제 3차 세미나가 Uyole CDTI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을 매스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써 탄자니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다른 교육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KOICA에 대한 인지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DAILYNEWS ONLINE EDITION

Search

HOME LOCAL NEWS EDITORIAL COLUMNISTS BUSINESS FEATURES SPORTS BLOG CLASSIFIE

Wednesday May 12, 2010

Local News

Community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s set to improve syllabus

From FRIDAY SIMBAYA in Iringa, 26th April 2010 @ 12:00, Total Comments: 0, Hits: 289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rough its World Friends Korea Volunteers' programme has financed a workshop on improvement of supplementary syllabus and educational system of Community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s (CDTIs) in Iringa Region.

The four-day workshop (19-22/04/2010) held in Njombe District, Iringa Region which was attended by CDTIs of Mkole (Iringa), Kisaba (Iringa), Rungwe(Mafinga) and Uyole (Mbeya) was supported by KOICA through World Friends Korea Volunteers.

KOICA has been one of the active development partners of Tanzania since 2009 when its country office was established in Dar-es-Salaam. Its financial support to Tanzania has increased and as of 2009 it reached over eight million US dollars (about 10bn/-).

Currently, KOICA is carrying out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ducation, agri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food processing.

About 100 World Friends Korea volunteers are working in the projects

Most Read

More News

- Modern oil refinery for Dar es Salaam
- Governors to decide on BA federal bank June
- Few turn up for voter registration in Mbe
- Two Dar housekeepers in court over theft
- Dar es Salaam police nab eight suspected bandits
- Ruhoko District irresponsible teachers punished
- First Lady pledges commitment in maternal mortality reduction
- Burglary suspect faints in court
- Freelancer arrested over bank theft
- 50 opposition members join CCM in Rhobi
- Security guard killed at ISIA
- Piracy war extended to Dar es Salaam,NATO ships dock at port for strategy plans
- Tawla advises man to write wills

▲그림 2 : 2010년 4월 26일자 Daily News에 실린 기사

참고 링크: http://www.dailynews.co.tz/home/?n=9407&cat=home

이 워크숍은 2010년 10월 세 번째로 Uyole CDTI가 주최하여 음베야(Mbeya)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CDTI간의 모임을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③ 현장사업 및 사업 내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본인이 파견된 이링가지역의 저소득층 기혼 여성에게 무상으로 요리 및 재봉과 같은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였고 현재 해당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10년 10월 30일 전인 10월 중순께에 저소득 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교육(제빵 및 재봉)이 기초 이론 교육과 함께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림 3 : 공사가 완료된 조리실

프로그램은 1년 내 2차례(두 개 학기) 해당 훈련원의 학기와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1학기는 2010년 10월 중 시작해 2011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끝날 것이고 2학기는 2011년 4월 중 시작해 8월경에 마칠 예정이다.

(a) 매 학기별 훈련 과정 정보
대상 학생 수: 18명 (제빵 8명, 재봉 10명)
기술교육: 제빵 및 재봉 (20시간/주)
이론교육: Entrepreneurship skills (3시간/주), Basic math (3시간/주), Home economy management (2시간/주), Gender and development (2시간/주)

(b) 학생관리

매 학기 기숙형태로 학생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머물 숙소 및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경비는 1년간(2010년 10월-2011년 9월) 훈련원이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후의 경비는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이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학기 종료 시 학생들의 실력 평가에 따라 물품구매를 통한 사업지원을 해주거나 취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자립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이다.

(c) 신규단원 요청

우선,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한 단원이 파견되어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CDTI와 함께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관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단원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보며 프로젝트 성과 측면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제빵이나 재봉과 관련한 단원이 추가적으로 파견된다면 아무래도 보다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 공사 마무리 단계의 카페테리아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Ruaha CDTI는 교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항이 진행된다. 본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교장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셨고 현재 임시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으로 임명되는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후임 단원 근무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기관 내 교사와 지원인력이 모두 친절하고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규 단원이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적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현지 특성상 기관이 KOICA와 같은 수혜기관에 다양한 기대를 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단원은 KOICA의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의문이 생기는 경우 사무소에 문의하길 바라며 기관에 너무 큰 기대나 실망을 하지 않도록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현장사업 내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한 단원이 파견된다면 모니터링과 평가를 기관의 교사, 학생 그리고 수혜 대상과 함께 진행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CDTI와 함께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관리 역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CDTI 후임단원인 박현주 단원과 함께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2년간의 단원생활을 마치기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이렇게 후배단원을 위한 조언을 쓴다고 생각하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처음 파견

되기 전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국내훈련을 통해서만 접한 탄자니아와 KOICA단원 생활은 지금 본인이 느끼는 그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이 열악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아프리카는 생각만큼(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자연환경 및 자원적으로 훨씬 축복받은 땅이었고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다. 내가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만은 파견되고 얼마 안 되서부터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이미 숨어버렸다. 아마도 이 2년은 내 평생 가장 큰 기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설정과 자기관리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육의 특성상 주어진 과제나 일을 하는 데 익숙해 있어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원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힘들어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단원 활동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설정과 자기관리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다.

파견 전에 내가 파견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선배단원이나 지역사무소 등에 문의한다면 아마도 정성스레 답변해 줄 것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현지에 파견되어 정보를 얻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본다. 기관의 우수 인력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얼마만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목표를 정한다면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아마도 파견 2년 동안 갚진 어떤 것을 얻어갈 것이다. 또한 파견지역의 언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설정도 제안하고 싶다. 언어 습득을 통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단원이 열심히 한다면 본인뿐 아니라 파견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여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길 바란다.

4. 파견지역 연구

거대한 대륙 아프리카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그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덥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파견된 이링가(Iringa)지역[3]은 해발 1600-1700m정도 되는 고산지대로서 일 년 내내 우리나라 초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의 날씨를 보인다. 이에 따라 두꺼운 의복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KOICA에서 주는 전기장판도 필수품이다.

이링가지역의 인구수는 약 12만 명이며 주로 거주하는 종족은 헤헤(Hehe)와 베나(Bena)족으로 사용언어는 키헤헤(Kihehe)와 키베나(Kibena)이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를 주로 사용한다.

각종 곡물,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여 가격도 저렴하고 살기에 아주 좋으며 필요한 공산품도 대부분 다 구할 수 있는 편이다.

주요관광지는 루아하 국립공원(Ruaha National Park), 이시밀라 스톤에이지사이트 (Isimila Stone Age Site) 등이 있다.

3) 수도 다레살람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으며 버스로 8-10시간 정도 걸림.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3월 23일)

파 견 국	탄자니아	성 명	황 진 연
파견기수	40 기	활동기관	OLD TANGA SECONDARY SCHOOL
파견분야	수학교육	작성일자	2010. 03. 23

Ⅰ. 업무사항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본 단원은 2008년 4월 24일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탄자니아 탕가지역에 있는 OLD TANGA SECONDARY SCHOOL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OLD TANGA SECONDARY SCHOOL는 탕가니카(탄자니아 본토, 잔지바르 제외)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건물도 오래되어 보수가 많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도 많이 부족한 학교입니다. 다른 탄자니아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학, 과학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이 1200명 정도 되는데, 수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 3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선생님마저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가셔서 실질적으로 2명의 선생님만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파트타임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게 되거나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간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방학 때마다 와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들에게 많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적응훈련이 끝나고 6월 말에 임지에 부임을 하여, 7월 새 학기부터 학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일주일에 12시간, 많게는 24시간씩 수업을 하였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저희 학교도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으면 한반 50명의 아이들 중 2명의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여서 학생들에게 필기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이 없어 스스로 공부를 하기는 힘든 만큼 필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탬프를 만들어 필기를 잘하거나 숙제를 잘해온 아이들에게 찍어주어 마지막 학기에는 스탬프 수에 따라 MATHEMATICAL SET 및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노트, 펜 등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학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숫자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여 동기유발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수업 외로는 담임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2번에 나누어 출석을 체크 및 아프거나 학교 지정 복장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허가증을 나누어 주는 일, 환경미화를 위하여 학생들을 청소시키는 일들은 제가 맡은 반을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찾아오실 때면 학부모 상담도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어가 가능하신 학부모님들은 직접 하였으며, 영어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통역을 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성

적표 및 성적관리도 담임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문화와는 다르게 학교에 결석을 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출석하는 학생이 50명의 학생 중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근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한 달마다 빠지지 않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체크하여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더니 학교를 빠지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학교의 사정이 열악한 만큼 기본적인 수업도구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2번의 활동물품지원을 통하여 분필, 칠판지우개 및 학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문방용품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지를 인쇄할 때 쓰는 MASTER PRINTER의 잉크 및 MASTER 용지가 없어 다른 학교로 시험지를 들고 인쇄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어 MASTER PRINTER의 잉크 및 MASTER 용지, A4용지도 지원을 하여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인쇄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험 감독 및 학교 미팅, 행사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강당의 창문들을 천으로 막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년 동안 OLD TANGA SECONDARY SCHOOL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탄자니아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라 봉사활동 후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모르던 것을 이해하며 기뻐하는 표정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 OLD TANGA SECONDARY SCHOOL



▲그림 2 : 수 업



▲그림 3 : 담임 맡은 반 학생들과 함께




▲그림 4 : 졸업식 행사 및 영화상영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OLD TANGA SECONDARY SCHOOL은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1200명 정도인데 비해 선생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지정이 되었지만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신 분들도 많아 상주 교사 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KOICA나 다른 봉사단체를 통틀어 제가 처음으로 이 학교로 파견이 되어 그런지 외국인 봉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처음 이 학교로 파견되었을 때 몇몇 선생님들의 지나친 성적인 농담이나 금전적 요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새로운 단원이 파견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더욱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임 파견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이고 개인적으로 후임을 파견했으면 하지만 학교장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KOICA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자단원들 보다는 남자단원 위주로 파견이 되었으면 합니다.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봉사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들 중에서는 물론 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파견된 기관이 다른 사람이 파견된 기관보다 더 일이 많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고, 또 내가 사는 집이 다른 사람들 집보다 더 좋지 못하고 등등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론 저 또한 처음 파견되었을 당시, 학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악하고 근무조건 및 근무 시간도 많아 힘들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했던 조건들과는 다른, 더욱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생각하던 아프리카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있을 탄자니아는 많이 다릅니다. 전기도 물도 있고, 흙집에 사는 것도 아니며 학교에는 책상과 의자, 좋지는 않지만 칠판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상황도 충분히 아니 더욱더 감사하며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를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소신대로, 처음 가지고 왔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봉사를 마칠 수 있고, 또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다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 파견지역 연구

o TANGA, TANZANIA

탕가는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만큼 덥고 습한 기후가 계속되고, 한국과는 반대로 12월부터 2,3월까지는 햇볕도 굉장히 뜨겁고 덥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다른 해안 도시와 마찬가지로 탕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교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반 여학생 대부분이 히잡을 쓰고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강경 이슬람 집단이 아닌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냅니다.

또한 탕가지역은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인도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들도 탄자니아인 이지만 다른 흑인들과는 많이 어울려 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권은 그들 인도인들이 잡고 있으며 탕가의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입니다.

탕가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친절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매치기, 강도 등은 많지 않아 치안이 좋습니다.



▲그림 5 : 탕가 지역의 바닷가

바닷가에 위치한 곳이라 언제든지 바다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도시입니다.

5. 기 타

처음 와서 힘들었던 점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모두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OLD TANGA SECONDARY SCHOOL의 학교장 및 많은 선생님들께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탄자니아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활동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행정원님들과 소장님, 부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림 6 : 송별회 (2010년 3월 22일)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파 견 국	튀 니 지	성 명	방 수 연
파 견 일	2008. 12. 28	활동기관	아동보호센터
파견분야	사회복지	작성일자	2010. 11. 20

Ⅰ. 업무사항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 2009.03.01-2009.10.15

		Lundi	Mardi	Mereredi	Jeudi	Vendredi
Introduction	Warning-up (Répitition)	-Présentation soi-même -Badge de son nom	-Présentation soi-même -Badge de son nom	-Présentation soi-même -Badge de son nom	Activité Physique en plein air	-Présentation soi-même -Badge de son nom
Développement	Activité 1	Activité d'art	Activité manuelle	Activité d'art Plastique		Activité d'art
	Activité 2.	Activité physique en sale		Activité physique en sale		
Arrangement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2009년 3월 1일부터 임지에 파견되어 3월 한 달간은 기관에서 2년 동안 본 단원이 해야 하는 일을 살펴보고 기관에 적응하며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4월부터는 위의 표를 바탕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본 단원은 화, 목, 금 근무를 하였으며 자주 바뀌는 청소년들을 위해 매일 자기소개를 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재활용품이나 잡지를 이용하였다. 목요일에는 양경아 단원과 같이 출근하여 협동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관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Educateur)가 도움을 주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관의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 2009.10.15-2010.05.10

	Lundi Nejma	Mardi Soo	Mercredi Nejma	Jeudi Nejma&Soo	Vendredi Soo
Premiére **09:00–09:40**	Warming-up (Jeu + Activité manulle)	Warming-up (Jeu + Activité manulle)	Warming-up (Jeu + Activité manulle)	Warming-up (Jeu + Activité manulle)	Warming-up (Jeu + Activité manulle)
La pause	la pause	la pause	la pause	la pause	la pause
Deuxiéme **10:00–10:40**	Activité de pleier un papier avec le conte de fées	Activité d'art d'imagination	Activité de pleier un papier avec le conte de fées	- Fabrication du tableau commun - Activité	Activité d'art d'imagination

	Lundi Nejma	Mardi Soo	Mercredi Nejma	Jeudi Nejma&Soo	Vendredi Soo
La pause	la pause	la pause	la pause	physique en plein air/en salle - Activité d'arts plastiques	la pause
Troisiéme 11:00–11:40	Activité d'arts plastiques	Activité d'arts plastiques	Activité d'arts plastiques		Activité d'arts plastiques
Arrangement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Arrangement discutions d'opinion



2009년 10월에 활동지원물품을 지원 받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오전 중에 진행되며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보드게임이나 간단한 학습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처음 하는 보드게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진행하고 하는 보드게임은 "젠가"라는 게임으로 조심성과 꼼꼼함에 동반되어야 하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진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간단한 학습지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찾은 것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것들이다. 숨은그림찾기, 미로 찾기, 미완성그림 완성하기, 숫자 잇기 등 간단한 활동이지만 어려워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반면 재미있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본 단원은 창의

력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예를 들어 방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여 그리거나 배탈이 났을 때 뱃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단원이 예시를 제공한 것을 똑같이 따라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재료와 색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많으며 의욕이 넘쳤다. 또한 프로그램 후에는 항상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와 감사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다.

3) 2010.05.10 - 2010.12(현재)

본 단원은 2010년 5월 2차 활동지원물품을 받았다. 사무용품(잉크, 책, 가위, 스템플러, 테이프 등)을 포함한 미술도구(가면 만들기, 점토, 물 풍선, 양초 만들기 등)를 지원받았다.

1차 활동지원물품에서는 정적인(도화지, 종이접기, 물감, 크레파스 등) 활동을 하는 미술용품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활동지원물품은 동적인 활동을 위한 것으로 아동들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엔 실제 13-18세 아동들과 함께 하지만 한국아동들과 비교했을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점토 등을 이용한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지원물품이었다 생각된다. 또한 대상아동들이 남자임을 고려했을 때 더욱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지 실정에 맞춰 한국적인 재료를 이용한 부채 및 가면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동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배우며 한국과 튀니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장난감이 매우 비싸거나 거의 전무한 튀니지에서 보드게임을 신청하여 활동하였다. 보드게임으로 규칙과 질서를 배우며 협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는 양경아 단원의 현장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하였다. 아쉽게도 본 단원이 있는 동안 현장지원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긴 하였지만 이번 현장지원사업으로 본 기관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 되어 진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효과

처음 기관에 파견되어 아동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보았을 때는 모두 의욕도 없고 힘들어 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기관에서의 지원이 없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으며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오는 스트레스와 2-3개의 직업 때문

에 피로한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1달 동안만 보호되는 시설의 특성상 아동들은 변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경직되어 있거나 자해를 한 흔적들을 보였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TV시청만을 하거나 청소 또한 기관의 잡일 등을 하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본 단원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로는 아동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의 활동을 기다려 주고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은 자신의 작품들을 사회복지사 또한 직원들에서 자랑하였으며 그 작품들은 벽에 게시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KOICA단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하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이접기 수업의 경우에는 아동들, 사회복지사들, 직원들 모두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는 등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었다.

활동지원물품은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본 국에서의 학용품은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가격도 비싸고 질도 좋지 않으며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물품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 특히 물 풍선 놀이는 기관에서 억눌리는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 중에 하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2) 문제점

1달 동안 입소를 하는 아동들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동양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저 호기심만 있는 아동들이기에 계속적인 이해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의 설명을 하여야 했다. 또한 기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 또한 정확하게 우리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동들에게 우리를 소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서 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양 사람에 대한 신기함과 본 기관에 있는 현지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본 단원을 친구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곤란한 경우도 종종 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들이 현지어(아랍어)만을 사용할 수 있어 본 단원 또한 현지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 사용하여야만 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되었다. 하지만 문서작업이나 회의 등은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두 가지 언어의 혼돈이 오기도 하였다.

본 단원이 귀국을 하여도 여전히 양경아 단원이 활동을 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여갈 수 있겠지만 KOICA단원이 모두 없어지고 나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부분의 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욕구 불충분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마인드 결여와 반복되는 소진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 주소이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본 단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더욱 아쉬운 상황이라 하겠다.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장, 단점

- 장점

① 사회복지 교정사업에 관한 구축된 시스템이 매우 뛰어남.

· 아동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② 의료시설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점.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예방함. 또한 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관계자를 통해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며 바로 진단을 받음.

③ 청결을 우선시 함.

· 아동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의 청결이 최우선시 되어 매일 청소를 함.

- 단점

① 다소 위험한 기관 위치.

·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남.(돌을 맞거나 강도미수 사건 등)

②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됨.

·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일처리가 늦음.

③ 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2) 향후 필요 지원체계 및 협력관계

현재 진행 중인 현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 된다. 기관장의 공석과 신설 기숙사의 오픈 등으로 현장사업의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관장의 공석으로 행정처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장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만들어 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제는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현장사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KOICA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단원 파견 호응

모든 직원들이 본 단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모르며 오히려 인턴으로 배우러 왔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며 본 단원이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아동들은 본 단원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냥 같이 놀아 주는 사람 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달 동안만 있기 때문에 처음 오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일이 었다.

아동들이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다른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Ⅱ. 일반사항

1. 2년간의 현지 생활평가

1) 언어

2가지 언어를 하는 튀니지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현지에서의 생활에 있어서와 기관에서의 일들은 아랍어를 꼭 필요로 했다. 평소 현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랍어가 현지인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읽고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 한계점이 많았다. 또한 회의나 문서작업,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프랑스어를 해야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2가지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겠지만 2년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언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2) 현지 생활

① 식료품

- 본 국은 아시아식품점이 거의 없으며 한국식료품은 전혀 찾을 수 없어 한국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하여 본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먹어야만 했다.

② 대중교통

- 본 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택시, 버스, 메트로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본 단원의 경우는 출, 퇴근을 대부분 메트로를 이용하여 했다. 하지만 메트로가 많은 지역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2. 봉사활동을 마치는 소감

2년간의 생활은 생각보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처음 와서는 너무나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언어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었다. 조금씩 생활에 적응을 하고 일도 적응을 해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재미가 있었다. 가끔 게을러지는 모습에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하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살아갔다. 처음으로 해보는 이런 생활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해쳐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었다.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준 KOICA에 깊은 감사를 하고 싶다.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할 것이다.

Ⅲ. 기타사항

문화생활-공연

① 카르타고 국제 페스티벌

- 카르타고 국제 극장에서 이루는 어지는 공연으로 춤, 뮤지컬, 음악, 성악, 영화,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짐. 튀니지 최대 문화행사라 할 수 있음. 2009년엔 한국의 난타 공연단의 방문으로 튀니지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었음.

② 카르타고 재즈 페스티벌

- 매년 4월 카르타지에서 열리는 재즈 공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아티스트들이 튀니지에서 공연을 함.

③ 함마멧 국제 페스티벌

- 튀니지 및 국제 아스티스들의 춤, 연극,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음.

④ 엘젬 페스티벌

- 매년 8월엔 엘젬 원형경기장 내에선 공연이 이루어 짐.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벌어짐.

⑤ 카라반 문화행사

- 한국와 아랍국가간 친선 문화행사가 튀니지에서 있었음. 국악단, 사물 놀이 및 B-boy 공연과 한국영화제, 태권도시범단의 문화행사를 하였음.

⑥ 각종 콘서트

- 튀니지에서도 각종 콘서트가 있음. 얼마 전엔 영국의 유명가수 MIKA의 공연으로 많은 KOICA단원 및 현지인들이 즐길 수 있었음.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이루어 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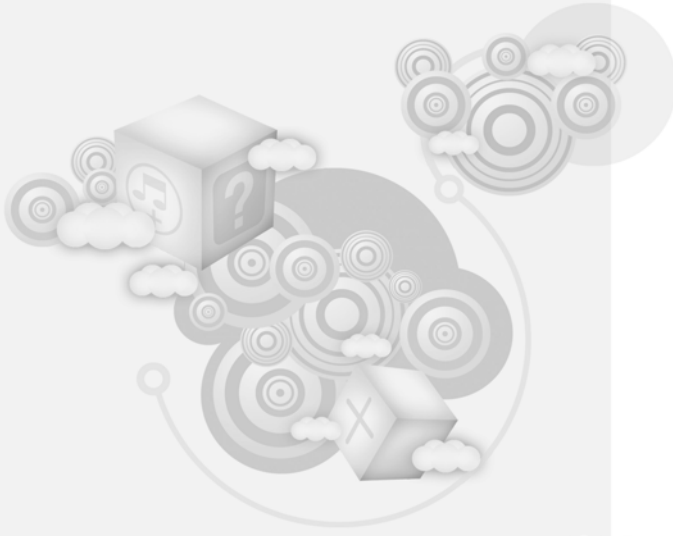
2년간의 동행, 그 아름다운 도전

2010년 귀국단원 우수 최종보고서

중 남 미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II



KOICA

한국해외봉사단 활동보고서

4차 반기보고 (2010년 04월 13일)

파 견 국	페 루	성 명	이 현 지
파 견 일	2008. 03. 13	활동기관	Toclla I.E 86102
파견분야	간 호	작성일자	2010. 04. 10

1. 2년간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총 평가

1. 업무 결과

1-1. 적응훈련 3개월 후 첫 파견 임지

: 2008.06.16~2009.08.05까지 페루 수도 LIMA의 항구도시 Callao의 Centro de Salud PERU-COREA 제 1한·페 의료원에 파견됨.

2008년도	활 동 내 역
3월~6월	현지적응훈련
6월	임지파견 및 활동을 위한 준비 및 계획
7월~ 09'7월	성인 및 노인의 골다공증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통한 건강진단, 결과 상담 및 교육
9월	CALLAO 사회복지센터 방문(성인질환 무료진료캠패인실시)
	LIMA의 외곽지에 사는 가난한 현지인들을 위해 2달간 매주 일요일 무료건강진료캠패인 실시
	의료단원들과의 협력 및 observation을 위해 제 2한·페의료원 (협력의사 및 간호단원) 1주일 견학, 건강프로젝트 및 지역무료진료캠패인 참여

11월	APEC 특별 무료진료캠패인 진행 및 참여
	KOICA하반기 건강검진 준비 및 진행
12월	KOICA연수생 주최 가난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무료진료캠패인 준비 및 참여
기 타 활 동 내 역	
6월~09'7월	JICAMARCA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봉사수업
6월~09'1월	한인무료진료 참여

2009년도	활 동 내 역
1월	방학 맞이 지역여성들을 위한 무료 골다공증 검사 및 건강관리, 상담
2월	Callao지역 공공기관 예방접종파견
3월	병원건물 신축을 위한 양국협력을 위해 대사관 및 KOICA사무소 및 본부조사단 방문(자료검토 및 회의참여, 통역)
	국외휴가(한국, 3주) 다녀옴.
4월~6월	Callao지역 학교, 재활센터, INABIF(보육지원기관), 요양원 방문 예방접종(독감, B형간염, 황열) 실시
7월	지역주민, 각종 공공기관 방문예방접종 실시 및 성인 골다공증, 심전도 검사를 통한 건강 상담 및 교육 담당
	23일 개원기념일 이후 병원신축건물 공사 착수로 인해 임지변경고려 및 계획서 제출함.

1-2. 활동 중간점검

현지적응 훈련 후 활동을 시작하면서 봉사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필수인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무엇보다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지리적인 면에서 페루는 지진이 잦은 곳이며,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하고(거의 중국인이라 생각함), 지역별로 날씨와 기온 차, 문화, 생활면이 같다고 생각되면서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 및 배탈, 설사, 복통 등으로 고생했던 터라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데 예민해진 편이다.

또한 기관 활동을 기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공부를 꾸준히 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자신의 활동영역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혹,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더라도 기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2008년 적응훈련 후 임지파견이 되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황당했던 일, 화가 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스스로 봉사에 대한 생각, 기대했던 것들을 점차 줄여나갔다. 중간시점에 언어적인 면에서 슬럼프 기간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 옆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동료들이 있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현지인들과의 대화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여유롭게 대처 하고자하는 마음, 현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덕분에 페루 친구들도 생기면서 식사초대 및 주말에 함께 소풍도 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기관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1. 임지 변경 - 두 번째 파견활동

: 2009.08.06~현재 두 달 후 2010.6.12까지 페루 ANCASH주의 Huaraz시의 Toclla지역의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활동마무리 예정임.

2009년도	활 동 내 역
8월~12월	임지변경승인 및 기관파견, 기관방문조사 및 활동준비계획
	학생들을 위한 보건교육, 영어와 미술수업을 시작함

10월	학생들의 신체검사 및 위생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무료건강 캠패인 실시 (구충제투여 및 위생교육, KOICA홍보)
12월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및 진행, 방학수업을 계획함.
1월~2월	방학수업을 준비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시행 못함.
	국내휴가(2주) 다녀옴.
	3개월 연장신청 및 새학기 수업을 계획.
	신규단원 OJT 보조.
3월~	새학기 시작 및 수업진행 중(영어, 미술)
4월~6월 초	현재 계속 수업진행 중이며 6월 초 마무리 예정
	5월 초에 학생들을 위한 신체검사와 학부모, 교사, 학생이 모두 함께하는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교육 캠패인 실시예정

2-2. 활동 마무리 시점에서의 점검

병원건물의 낙후로 인해 양국 간 협력차원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임지를 변경해야만 하였다. 사무소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페루 수도 LIMA는 점점 발전해가는 추세여서 본 단원이 활동을 진행 할 기관을 찾기가 어려웠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페루 ANCASH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영어 및 컴퓨터 수업 봉사활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Huaraz 도시의 Toclla 시골마을의 똑야 초등학교로 임지를 변경하였다. 09년 8월에 임지변경이 승인되어 바쁘게 짐을 옮기고 주거지를 알아보고 활동을 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니 또다시 새로운 슬럼프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했다.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리마와는 다른 억양과 말투의 스페인어, 현지인들이 쓰는 케추아어, 아이들의 수업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탄탄히 계획을 하더라도 매번 학교행사에 생계가 어려워 간간히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 수업에 뒤처지는 아이들, 부족한 수업재료 및 학용품 등으로 인해 거의 2달 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 사정상 임지를 옮기

게 되었지만, 역시 어디서나 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기에 또 물갈이에 감기, 두통, 복통을 앓고 거의 일주일간을 학교를 못 갔었는데 기관장과 선생님들께서 집까지 찾아와 식사와 약을 챙겨주시면서 극진히 간호해주신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아이들과 다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Huaraz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2010년 귀국 일을 앞두고 연장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기대를 안고 페루에 와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여겼던 것과는 달리 2년 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여기의 페루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Lima에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스스로의 자만, 오만, 편견 등의 생각들이 Huaraz에 와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좀 더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며, 살아있다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고 깨닫게 되었다.










2. 성과

	제 1 한 · 페 의료원	I.E. 86012 TOCLLA
KOICA 측면	1992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당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협력목적으로 건립한 페루 최초 한·페 의료원으로서 개원19년을 맞이해 낙후된 건물과 시설을 재확인하여 향상된 보건시스템마련을 위해 재건축 및 새로운 물품지원을 하게 됨. 이로써 양국 협력을 재확인하고 페루의 지역사회 복지보건시스템의 질·양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됨.	페루 ANCASH 주, HUARAZ 도시에서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에 KOICA 프로젝트 사업 (보건위생시설건립 및 물품지원, 보건위생교육, 초등영어·미술교육)을 통해 "대한민국"과 "KOICA"를 알리고 봉사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마을주민 및 초등학생들의 기초위생 및 초등교육에 대한 질·양적 향상의 중요성을 알림.
기 관 측면	낙후된 건물과 시설로 인한 지역사회보건보급의 어려움과 새로운 시스템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KOICA의 의료지원 프로젝트을 통해 새로운 건물과 시설, 물품 및 보건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됨. 지역주민들에게 질·양적으로 향상된 사회복지보건혜택을 보급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한민국"과 "KOICA"를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지원에 감사해 함.	"대한민국"정부와 국제협력단체 "KOICA"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한 학교보건위생시설 건립 및 대한민국봉사자들의 초등교육 및 위생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 및 초등학생들의 질병예방 및 위생개념개선, 초등교육의 질·양적 향상 및 중요성, 의무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와 KOICA에 감사해 함.
단원 개인적 측면	한국에서 페루에 처음으로 의료지원이 된 제 1한·페 의료원에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뒤따라 활동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지방으로 활동기관을 옮겨 약간의 방황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활동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선생님,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한 페루의 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가난한 마을주민 진료를 담당했던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의료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의식주 및 문화생활 등을 조금씩 이해하며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해로 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질·양적인 교육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은데 정이 참 많이 들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고 후회 없이 온 사랑과 정성을 쏟고 싶다.

3. 문제점과 대책

	제 1 한 · 페 의료원	I.E. 86012 TOCLLA
문제점	보건시설 재건축, 새로운 시스템 확충에 대해 대한민국정부 및 KOICA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	KOICA 봉사단의 파견으로 프로젝트사업의 성과를 얻고 난 뒤 더 많은 물질적인 이익, 양적인 이익만을 원하고 있음.
대 책	재건축을 통해 KOICA협력단의 목적을 재확인 시키고 지역보건관리자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및 물품 관리시스템마련이 시급.	KOICA의 지원목적을 재확인 시키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자발적인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학교보건 및 초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2. 현지 활동기관에 대한 총 평가

1. 장. 단점

	제 1 한 · 페 의료원	I.E. 86012 TOCLLA
장점	- 한국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자부심이 큼 - 선임단원이 진료를 담당했던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후임단원에게 지속적임. - 지역사회보건복지시스템이 체계적임.	-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속에 사람들이 항상 친절히 대해주고 관심과 애정을 많이 주려고 함. -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승되고 있음.
단점	- 선임단원의 활동과 비교를 함. - 기관장에 따라 병원관계자들이 단원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짐.	- 저소득으로 인해 가난하게 살고 있어 프로젝트 및 물품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함.

2. 향후 필요한 지원 및 협력관계

제 1 한 · 페 의료원	I.E. 86012 TOCLLA
1992년에 협력의료원 건립으로 인해 여러 지원을 받아오다 다시 재건축을 위해 2009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의료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밝고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함.	2009년 상반기 학교보건위생시설 건축 프로젝트 및 그 외 다양한 KOICA 물품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둠.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함.

3. 단원파견 호응도

제 1 한·페 의료원	- 일반 의료단원보다 정부파견의사를 더욱 선호함 - 언어능력이 뛰어난 단원에 대한 호응이 더 높음 - 프로젝트사업 및 물품지원을 통해 기관에 도움을 주는 단원을 선호함
I.E. 86012 TOCLLA	- 간호단원에 대한 호응이 일반단원에 비해 높음 - 프로젝트 사업 및 물품지원을 통해 학교사업에 도움을 주는 단원을 선호함 - 아이들을 좋아하며 함께 즐겁게 수업하고, 학교행사에 적극참여 하며, 현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단원을 더욱 선호함

3. 후배단원에 대한 조언

- 타문화 이해 :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는 자세를 갖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현지생활적응 : 현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문화시설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천천히 적응하였으면 좋겠다.

- 건강과 안전 : 계절, 날씨, 음식,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문화차이,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시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불안전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건강을 유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 언어 : 모든 면이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므로 꾸준한 언어학습을 통해 타문화 이해, 생활적응 및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봉사활동 : 위 모든 사항이 활동의 뒷받침이 되는 요소이다. 이에 부가하여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플러스 요소로 긍정적인 활동을 도울 것이다.
  봉사활동이 때로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때도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기대에 자신감을 부풀리지 않도록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목표가 봉사활동에 상관없는 것이라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돈과 함께 허비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 취미 : 활동 외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활동시간 외에 집에 와서도 기관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 산책, 독서, 요리, 미술, 언어공부, 영화・박물관 관람, 축제 및 행사참여, 현지인 친구들 사귀기,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알리기(드라마・영화・노래....)등 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슬럼프, 언어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등)들을 빨리 극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4. 파견지역 연구

LIMA	HUARAZ
- 페루의 수도, 중심지 -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다양한 인종 거주) - 국제공항, 국제항구가 위치하여 세계 수출입 등 모든 사업의 중심지, 각종 정상회의 및 행사가 다양하며 각종 문화생활 공간 및 서비스업이 발전되는 추세이며, 더욱 많은 외국관광객유입을 위해 환경이미지조성, 관광이미지 상승을 추구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남.(예, 수도가 지방에 비해 급격하고 월등하게 선진국의 모습을 닮아 발전되는 모습) - 교통이 혼잡하여 공해가 심하고 바다 옆에 위치한 습하고 사막지대인 COSTA지역으로 교통과 COSTA의 특성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줌.	- 페루의 ANCASH주의 큰 도시 - 성수기, 비수기 / 건기, 우기에 따라 인구변동이 심함(일자리의 변화로 인해) - 페루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안데스산맥의 중심에 위치, 고산지대(해발 약 3300M)에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트레킹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방문 광물・관광산업이 주요 소득원(하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자산으로 고소득층이 전체 약 3%에도 미치지 않음) - 큰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외국기업 등이 도시중심에 존재하지 않음. - 교통이 인구변동만큼이나 심함. 교통이 계절과 날씨에 변화됨. 페루의 SIERRA 지역에 위치하여 건기와 우기는 뚜렷하나 계절의 특성이 거의 없이 고산지대의 특성을 띄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함.

5. 기 타

없음

2년간의 동행, 그 아름다운 도전

2010년 귀국단원 우수 최종보고서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발 행	2011년 8월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WFK사업운영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 화	031-740-0114
팩 스	031-740-0655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디자인/인쇄	참기획 / 042-861-6380

본 보고서는 비매품입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